

Two Systems of Featural
Syllabographic Characters

한글과 수어문자

김종태 지음



도서출판

봄이다



한글과 수어문자

김종태 지음

나는 한글의 위대함을 잘 알지 못했다.

어릴 적 쉽게 배우고 평생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수어문자는 수어를 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다.

수어문자를 연구하다 보니 한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이 글은 한글과 수어문자의 공통점에 대한 글이다.

004	책을 펴내면서
006	추천사 1
008	추천사2
010	Chapter 1 수어문자 소개
050	Chapter 2 정서법과 필기체
080	Chapter 3 한국 수어 기초단어
126	Chapter 4 수어시 적기
140	Chapter 5 한글의 우수성과 수어문자

책을 펴내면서

언어는 문화를 잇는 다리이며,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쓰는 말들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시간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고 전하는 도구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수어(手語), 즉 농인의 언어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손짓과 몸짓, 공간을 통해 표현되는 수어는 기록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야기와 지혜, 감정과 역사가 세대를 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수어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문자가 없는 언어라는 이유로, 때로는 ‘불완전한 언어’로 여겨졌고, 심지어는 침묵 속에 갇힌 언어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스토키가 처음으로 수어에 문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수어를 적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을 때 그 침묵은 깨졌습니다. 이후 많은 발전이 있었고 지금은 수어를 수어답게 적을 수 있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모으고 글을 쓰면서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어문자와 한글을 비교하면서 두 문자의 공통점을 알게 되었고 효과적으로 수어문자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수어가 지닌 언어로서의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언어의 기록 가능성이 한 문명의 지속 가능성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수어는 말해지고 사라지는 언어가 아니라, 남기고 전할 수 있는 언어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어문자가 1974년 이후 전 세계 4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수어문자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자론적 연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글의 특성을 공부하면서 한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수어문자와의 유사성으로 수어문자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의 영어 제목은 “Two systems of featural syllabographic characters”입니다. 이는 2024년 수어문자 심포지엄에서 제가 발표한 발표 제목과 동일합니다. 한글과 수어문자는 공히 FSC에 해당하는 문자입니다. 한글과 수어문자는 모아쓰기를 합니다. 수어문자를 음절자라고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음성 언어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수어문자들은 모아쓰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수어

문자는 수향을 수형에 포함함으로써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어문자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한국수어의 예시가 올바른 수어가 아닐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의 목적은 수어 학습이 아니라 수어문자 학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수어문자가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면 좋을 것인지 그 정체성과 용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어 문학 작품을 영상이 아닌 수어문자로 접하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글쓰기를 시작할 때 한글의 우수성과 수어문자를 제일 앞쪽에 위치해 두었다가, 책 마무리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 책을 손에 든 독자들의 흥미를 반감시키고 싶지 않아, 재미있는 수어문자를 먼저 배우고 익힌 뒤 이론 부분을 나중에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필을 끝마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어문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국수어누리사전의 탄생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최초로 공식적인 수어문자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축하 행사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습니다. 수어를 학습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수록된 수어문자가 한국수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며칠 전 평택에서 열린 VV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수어문자가 VV를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농인 문학이 활짝 꽃피우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 한국에서도 수어문자가 뿌리내려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김종태

2025년 6월 22일

문래예술촌에서

추천사 1

When Jongtae Kim, the author of this comprehensive new reference book [한글과 수어문자], [Korean and SignWriting], contacted me back in March, 2023, with questions about how to write specific handshapes in Korean Sign Language with the Sutton SignWriting Script, I remember feeling so happy to realize that SignWriting is being used to write Korean Sign Language. It is a big job to categorize all of the handshapes needed to write Korean Sign Language and now, with Jongtae Kim's documentation, and with his remarkable research that was presented at the SignWriting Symposium 2024, Jongtae Kim has given the world a big gift.

Korean Sign Language is indeed being written daily now, in 2025. Jongtae Kim's published research comparing the "featural aspects" of the Hangeul Script with the SignWriting Script will open your eyes to the enormous amount of detail and painstaking analysis necessary to make this possible. Korean Sign Language is now, indeed, a written language.

My gratitude to Jongtae Kim and to the Korean Deaf Community.

Visit the world wide web, SignWriting in Korea:
<https://www.signwriting.org/korea/>



Valerie Sutton

June 9, 2025

Inventor, SignWriting

추천사 2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바치는 대상과 분야가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김종태 선생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과 함께 수어로 소통하며 통역하고 번역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김종태 선생님이 큰일을 하셨습니다. <한글과 수어문자>라는 책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수준 높은 ‘수어문자 학습서’입니다. 더군다나 한글과 수어문자를 대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어문자를 이해하고 익히는 데에 최적화된 양질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농인 및 그들의 가족과 수어 통·번역사, 수어 연구자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어에도 문자가 있으면 유용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시각언어인 수어를 문자로 담아내는 작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수어문자를 익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시도하는 책이 나온 겁니다. 놀랍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수어문자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리 속속들이 알진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김종태 선생님의 열정과 헌신이 녹아들어 간 내용들로 구성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한국 농인을 후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에 하나’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 책은 그야말로 한국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한국어와 한글’에 사회문화적이며 사회구조적으로 병합시키려는 속물적 견해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어도 문자를 갖고 있는 주체적이고 당당한 언어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니까요. 그러고는 ‘한 번 배워보라!’라고 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으로 수어문자를 배우고 익혀 수어 사용능력을 더욱 증진시키면 참 좋겠습니다.



이준우

2025년 6월 17일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주임교수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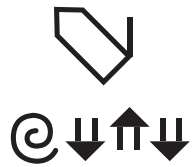
Chapter 1

수어문자 소개

〈Chapter 1. 수어문자 소개〉에서는 초보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로
기원과 명칭, 홈페이지에서 수어문자를 적는 방법을 설명한다.

Chapter 1. 수어문자 소개

수어문자를 처음 접해 본 사람은 그 낯섦에 살짝 당황할 수 있어요. 제 논문 책자를 동료 직원 몇 분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그 중 한 분이 [알다] 수어를 적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 기록 관련인가?”

“골뱅이가 있으니 안주인가 ㅋ”

“이때일?”

알았다는 뜻이에요.

“골뱅이랑 오징어 조합인 줄...”

오징어 모양은 손바닥을 표기한 것이라는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 아래 골뱅이 표시는 뭐지? 이제 하나 하나 배워 보려고 해요. 골뱅이는 문지르다(rub)를 뜻합니다. 옆에 화살표도 수어 알다를 아시는 분이라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모르는 분을 위해 그것도 설명하지요. 손바닥을 펴서 가슴에 대고 위 아래로 문지르는 동작이 한국수어 [알다]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래로 쓸고 위로 올렸다가 다시 아래로 쓸어 내리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의문이 들 겁니다. 왜 가슴에 대고 문지르는 거지? 약속입니다.

수어문자 소개를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빠뜨렸군요.

① 누가, ② 언제, ③ 어디서, ④ 왜, ⑤ 어떻게

육하원칙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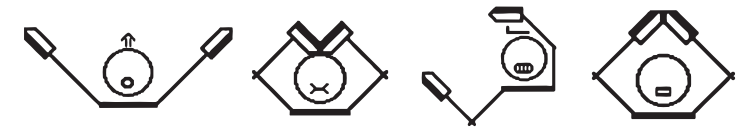
- ① 수어 문자(SignWriting)는 댄스 표기법(DanceWriting)을 개발했던 무용가 발레리 서튼(Valerie Sutton)이
- ② 1974년에 개발하였다.

③ 서튼이 덴마크 왕립 발레단에 댄스 표기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



④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수어를 연구하고 있었던 Lars von der Lieth가 댄스 표기법이 수어를 기록하기 위한 표기법으로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⑤ 서튼은 댄스 표기법에 기초하여 수어 문자(SignWriting)를 만들었다.



비록 서튼의 수어 문자는 수어를 위한 첫 번째 문자 체계는 아니지만 얼굴 표정, 자세의 전환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합성어와 짧은 구보다 더 길게 수어 단어들의 연속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표기법이다.

서튼은 원래 관찰자 관점에서 영어처럼 수평으로(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자 설계했지만 후에 농인들(Deaf writers)의 바람에 따라서 수어 사용자의 관점에서 수직으로(위에서 아래로) 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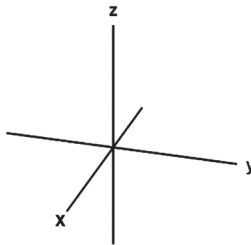
그럼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만 그려져 있고 어떤 동작 표기와 함께 나오면 그 동작은 가슴에서 한답니다. 그 이유는 한국수어문법 책에 나와 있듯이 한국수어 수위의 빈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수어가 가장 많이 발화되는 수위는 몸상(몸통) 즉 중립공간입니다. 중립 공간은 무슨 말이에요? 몸 앞, 가슴 앞, 수화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공간입니다. ~~중립공간 같은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좋을 듯합니다.~~

음성을 적는 문자도 마찬가지지만 음성의 강약이나 억양같은 초분절적 요소를 모두 적을 수는 없어요. ‘가가가가’라고 적으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알아서 억양을 넣어서 읽는 것처럼 수어문자도 수어를 100% 완벽하게 표현하지는 못해요. 알아서 적당히 적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규칙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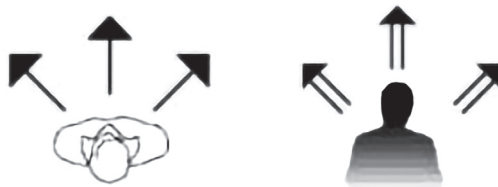
시작에 앞서 기본 개념과 몇가지 용어를 정리할게요.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라요.

- ① 공간 평면 이름 붙이기
- ② 형태소별 기호 설명 (수위, 수동 등)
- ③ 변별적 자질 설명

수어문자는 수어를 문자로 적는 거예요. 3D의 정보를 2D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어려운 작업이지요. 그렇기에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가능한 한 간단한 표현으로 복잡한 모습을 함축하여 전달해야 해요. 그러면서도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그림 형태로 표현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미 데카르트 좌표계를 알고 있어요. 평면에 x,y,z축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방법이지요. 수어문자에서는 두 개의 평면을 이용합니다. 제1평면과 제2평면입니다. 이 용어는 제가 임의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싱크를 맞춰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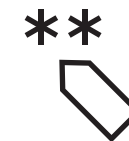


<너>¹⁾라는 수어를 표현해 볼게요. 화자로부터 상대방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방향은 땅 바닥과 평행하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제1평면이라고 불러요. 이 책에서는 계속 이렇게 제1평면으로 부를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부터 우리는.”

1) 언어학에서 음성을 [], 음소를 //, 형태소를 { }로 나타내는 데 대해, 문자론에서는 단자소를 <>안에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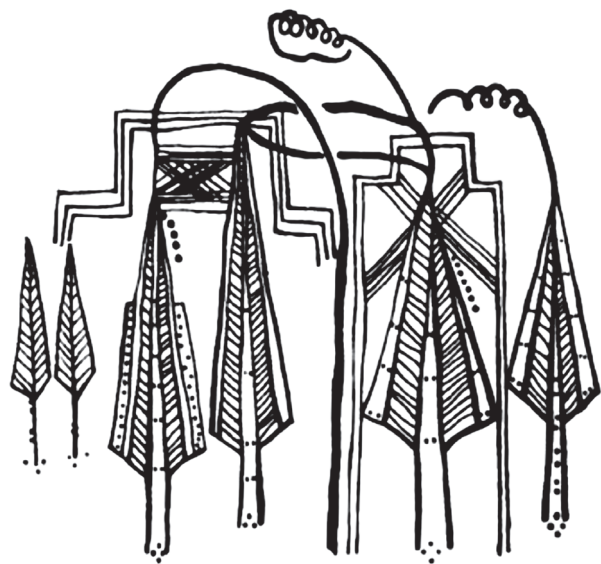
상단 좌측 그림이에요. 머리 위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앞이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역방향 일치동사인 <빌리다>도 제1평면에서 움직입니다.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만세를 불러 볼게요. 제2평면입니다. 벽과 평행한 평면에서 움직이는 수어를 표현할 때 제2평면을 사용해요.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의 화살표를 잘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화살표의 선이 한 줄 또는 두 줄이에요. 제1평면은 한 줄, 제2평면은 두 줄. 기억하기 바라요. 개인적으로 제2평면을 “두 손 만세”로 기억하고 있어요.

수어의 형태소 중 한가지는 해결되었어요. 손의 움직임을 두개의 평면으로 단순화시켰어요. 이제 나머지 형태소 중 수위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수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위를 생각해 봐요. 대부분의 수어는 가슴 앞쪽에서 표현돼요. 얼굴이나 머리, 눈, 코, 입에서 발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빈도수가 가장 많은 수어 위치는 가슴 앞에서 이뤄져요. 그러면 가슴 앞을 표현하는 기호를 생각해 볼게요.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無). 다음 수어문자를 보자구요.



<나>를 뜻하는 수어문자예요. 손바닥이 보이나요? 편 손입니다. 별 두 개는 가슴을 톡톡 치는 동작이에요. 쉽죠? 손바닥으로 톡톡 치는데 어디서? 바로 가슴 위치에서. 앞에서 약속했지요? 그럼 가슴 위치를 표시한 기호는? 바로 무가 되는 겁니다. 왜? 가슴 위치에서 톡톡 칠 수 있는 것은? 가슴뿐이니까요. 중립공간 기억나시죠?

이제 또 다른 형태소 수형에 대해 설명할게요. 그 전에 한가지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문자 중에서 한글과 같은 글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자질 문자예요. 어떤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사물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한글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었어요. 자질 문자? 아. 머리아파. 이 책 괜히 샀어. 머리 좀 식힐 겸 다른 얘기 할게요. 이걸 재미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세요.



시베리아 유카기르족의 소녀가 젊은 남자에게 보낸 편지. 의미문자로 쓰여 있다. 개개 글자는 발음과 관련 없이 의미적으로 분석 가능한 단위에 기초하고 있고 어떤 언어로 말하든 동일한 의미기호로 적을 수 있고 반대로 그 의미 기호로 적힌 문자는 어떤 언어로든 읽을 수 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침엽수 모양의 물체는 사람들이다. 우측에서 두 번째는 편지를 쓴 사람이다(점선은 땀은 머리를 표시하며 따라서 그가 여자임을 보여준다). 왼쪽으로 다음은 편지 받는 사람인데, 전에는 그녀의 애인이었으나 이제는 떠나서 러시아 여인과 살고 있다(땀은 머리가 파니에르가 붙은 스커트와 더불어 러시아 의상과 유카기르 의상을 구별해 주고 있다). 러시아 여인은 당연히 편지 쓴 이와 수신인 사이의 관계를 끊어 버렸다(러시아 여인의 머리에서 나온 선이 이 두 유카기르 인을 잇는 것을 끊고 통과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가정은 폭풍우가 감돌고 있다(두 사람을 잇는 십자로 교차된 선들).

편지 쓴 이는 그의 집에서 홀로(장방향의 둘러싼 구조물) 불행하다(교차된 선들). 그리고 그녀는 아직도 편지 수신인을 생각하고 있다(곱슬 곱슬한 덩굴손이 그에게로 뻗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편지 수신인은 고향의 다른 남자가(맨 우측) 그녀에게 덩굴손을 뻗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편지 받는 이가 이러한 정보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새 가정에 아이들(왼쪽의 작은 두 침엽수)이 생기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문자는 시각적 보조물 시대에서 그림 시대로, 준문자 시대로, 문자 시대로 흘러왔다. (배보은, 2013)

어때요? 그림편지. 내용 이해하셨나요? 문자론을 정리한 논문을 읽다가 신박한 문자를 알게 되었죠. 당시 편지를 쓴 아낙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런 문자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어서 인용해 봤어요. 이제 다시 수어문자 이야기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변별적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투도 바뀔거구요.

변별적 자질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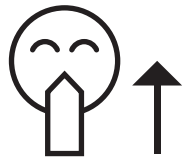
음소를 구성하는 음성적 특징을 바탕으로 음소를 더 작게 쪼개어 표기한 단위이다.

특성

- ① 개별 음소들을 서로 변별시켜 준다.
- ② +, -의 이분법적인 특징을 지닌다. 변별적 자질의 수가 N이면 이론적으로 2^N 개의 음소가 변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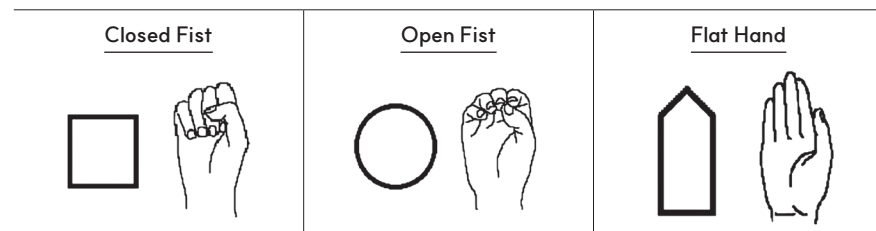
장점

- ① 변별적 자질이 음소들의 음성적 특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연부류(음운론적 성질이 비슷한 음소들의 묶음)을 하는데 편리하다.
- ② 서로 다른 음소들의 대립 양상을 기술하는 데 편리하다.
- ③ 음운 현상(음소들이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꾸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음소들의 변화 과정은 인접한 음소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위 수어문자는 입에서 손 키스를 날리는 동작이다. 미국수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생큐는 한글로 자모로 구성되어 있다. 생큐라고 적지 않는 것은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어문자를 구성하는 단자소들의 조합도 모아쓰기를 하고 있다. 수어에서 한글의 자모와 같은 것은 수형, 수동, 수위(수향), 비수지를 나타내는 형태소들의 기호를 그림으로 나타낸 단자소들이 있다. 여기서 수향을 괄호안에 적은 이유는 수향은 수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수어문자도 자질문자이다. 한글이 음소문자이면서 자질문자인 것처럼 - 이 말의 뜻은 ㄷ, ㅈ과 같은 음소가 문자로 표기될 때는 단자소로 나타내지만 자질문자인 경우, 기본 단자소(기본자)에 또 다른 부가 단자소(부가자)가 추가되어 새로운 단자소를 만든다 - 수어문자도 자질문자이기 때문에 단자소를 더 작은 단위인 자질소로 나눌 수 있다. 수형과 수향을 합하여 하나의 단자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수어문자에서 입 앞에 위치하고 있는 손바닥의 모습은 손의 방향까지 알려주고 있다. 손바닥 내부를 비어 두었으면 즉, 흰색이면 손바닥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형태소를 설명하면 수위는 얼굴이다. 그 중에서도 입 앞에 위치시킨다. 수동은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제1평면을 표시하고 있다. 화살표의 기둥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비수지 신호는 눈 모양으로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 웃으면 된다. 다시 자질문자의 특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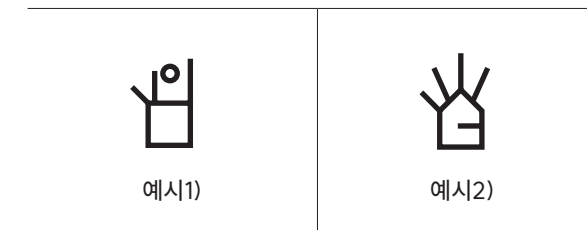


수형을 나타내는 단자소의 기본자는 3가지가 있다. 기본자에 부가자가 추가되어 새로운 단자소를 만든다. 추가되는 자질 중 첫번째로 손가락의 갯수와 모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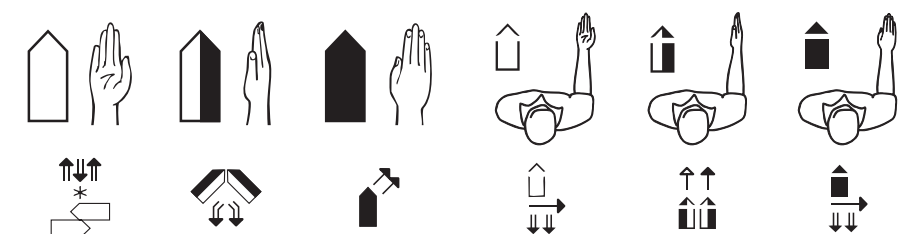
손가락은 나무의 가지와 같다.
기본형은 자형의 기본을 제공한다.
(기본형은 3가지가 있다. 팽 뽕 주먹, 동그랗게 뽕 주먹, 뽕 손)

위 예시는 팽 뽕 주먹에 검지와 중지를 추가한 것이다. 숫자 2를 나타내는 수형이다. 한국수어도 2이고 미국수어 ASL에서도 2를 뜻한다. 펼쳐져 있는 손가락만 표시하며 접혀있는 손가락은 그리지 않는다. 구슬을 튕기는 모양의 수형은 다음과 같다.^{예시1)} 그럼 다음 수형은 어느 손가락이 접혀있는지 알겠는가?^{예시2)} 맞다. 엄지만 접혀있다. 한국수어에서 숫자 4이다. 미국 수어에서도 4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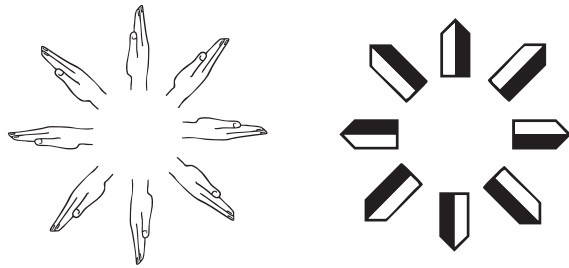


또 다른 추가되는 자질로 손의 방향 즉 수향이 있다. 손의 방향에 따라 단자소는 색깔이 바뀐다. 손 바닥은 흰색, 손 등은 검은색이다. 옆 모양은 흰색과 검은색이 반반이다. 양념반 후라이드반.

손의 방향은 손바닥의 방향과 손 끝의 방향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제1평면과 제2평면으로. 손을 하늘을 향해 세우면 제1평면이고 손 끝의 방향이 지면과 수평이면 제2평면으로 손바닥을 표시한 오각형을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분리하여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 간격을 두어 표시한다. (이 간격을 앞으로 '띄움'이라고 부르자. 김인선 논문 참고)



또한 손의 방향은 팔을 돌려 회전을 시킬 수 있다. 손으로 그리는 경우에는 360도 중 원하는 각도로 마음대로 정해 그릴 수 있지만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회전 각도를 정해야 한다. 그 각도는 45도이다.



45도 마다 단자소가 달라지니 총 8개의 손 끝방향 단자소가 생성된다. 각 단자소들의 조합에 의해 하나의 단자가 완성된다.

왼손/오른손 (2) * 수향 (3) * 수직/수평 (2) * 손끝 방향 (8) = 96

- ① 수형을 나타내는 단자소는 여러 자질소의 조합으로 완성된다.
- ② 왼손/오른손 (2) * 수향 (3) * 수직/수평 (2) * 손끝 방향 (8) = 96
- ③ 완성된 단자소는 또다시 수위, 수동, 비수지 단자소와 조합되어 (모아쓰기) 하나의 단자(음절문자)가 된다.

지금까지 변별적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수어는 5가지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지요. 수어문자도 각 형태소를 표현하는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면을 설명한 것은 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한거예요. 중립공간 설명은 수위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설명한 것이구요. 수형에 대한 것과 수향에 대한 것도 설명했어요. 비수지도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이제 기초 수어단어를 하나씩 문자로 바꾸면서 위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해 보기로 해요.

[학교] 양 손을 펴서 얼굴 옆에 세워 뒤쪽으로 두어번 당기는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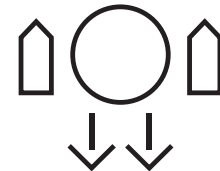
손의 모양은 발화자(수어를 하는 사람)가 보기에 바닥면이 보입니다. 그러면 오각형의 내부는 비어 있는 모양으로 그립니다. 엄지는 나머지 4개 손가락에 붙여도 되고 떼어도 됩니다. 일단은 붙이는 걸로 하지요. 수형과 수향은 이렇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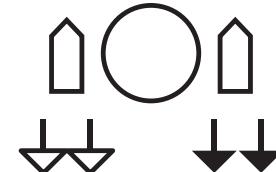
이제 손의 동작을 표시해 봅시다. 손바닥 전체의 움직이는 방향은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두어번. 화살표의 선이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바닥과 평행인 방향으로 하나입니다.



두 손 동시에 뒤쪽으로 두 번 이동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위치는 양손의 중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화살표 축의 모양에 따라 두 손인지 한 손인지 한 손이면 좌,우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고깔 모양은 양손, 오른손은 속이 채워진 삼각형, 왼손은 비어진 삼각형입니다.

SignPuddle Online v2.1

Search by Words
Dictionary Korea

Search by Words

Search by Signs

Search by Symbols

Search by Groups

Symbol Frequency

Translate

Terms and Titles
학교

☒ Any part of word
☐ Start of word
☐ Exact word

Text

Source

Puddl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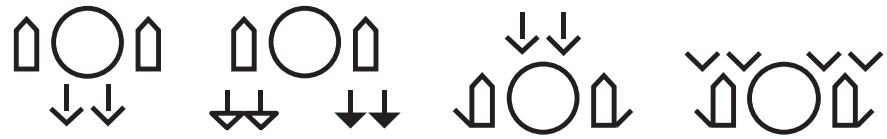
View All Entries

school
학교

Source: 허일

Search location: exact or approximate

인터넷 싸인퍼들에서 써치 바이 워즈로 검색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일교수님이 그리신 방법은 위와 같군요. 다른 분들 것도 찾아 보면 아래처럼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본인의 생각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우측 두 개는 엄지 손가락을 붙이지 않았네요. 제일 우측 것은 팔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마디만 움직이게 그렸네요. 꺾쇠 표시는 손바닥을 반으로 접는다는 표시입니다.

싸인퍼들이 뭔가요? 인터넷 어디에 그런게 있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은 signwriting.org에 있습니다. 먼저 싸인뱅크에서 한국 수어문자를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먼저, 발레리 씨튼의 홈페이지로 갑니다.(signwriting.org)

① 왼쪽에 몇가지 아이콘이 보입니다. 그 중에 우산 모양을 클릭합니다.

싸인퍼들(SignPuddl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② 싸인퍼들 온라인이라는 페이지로 갑니다.

아래 태극기 그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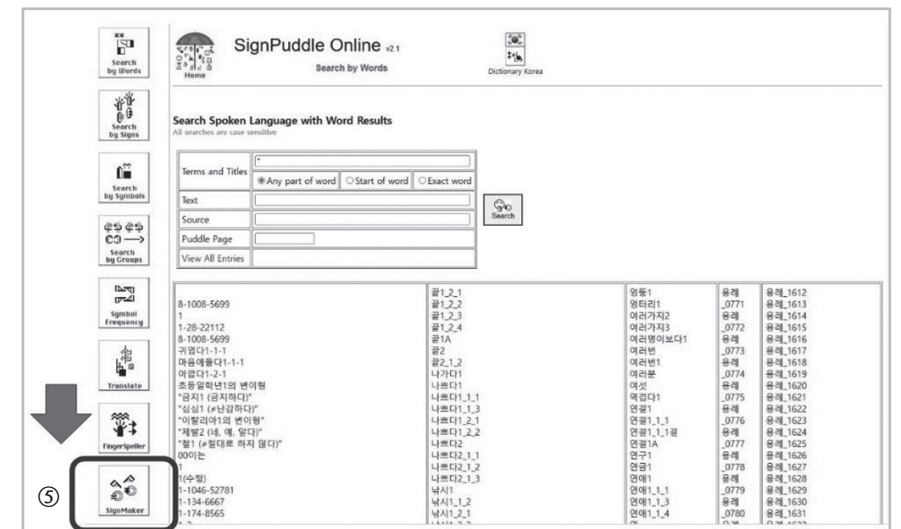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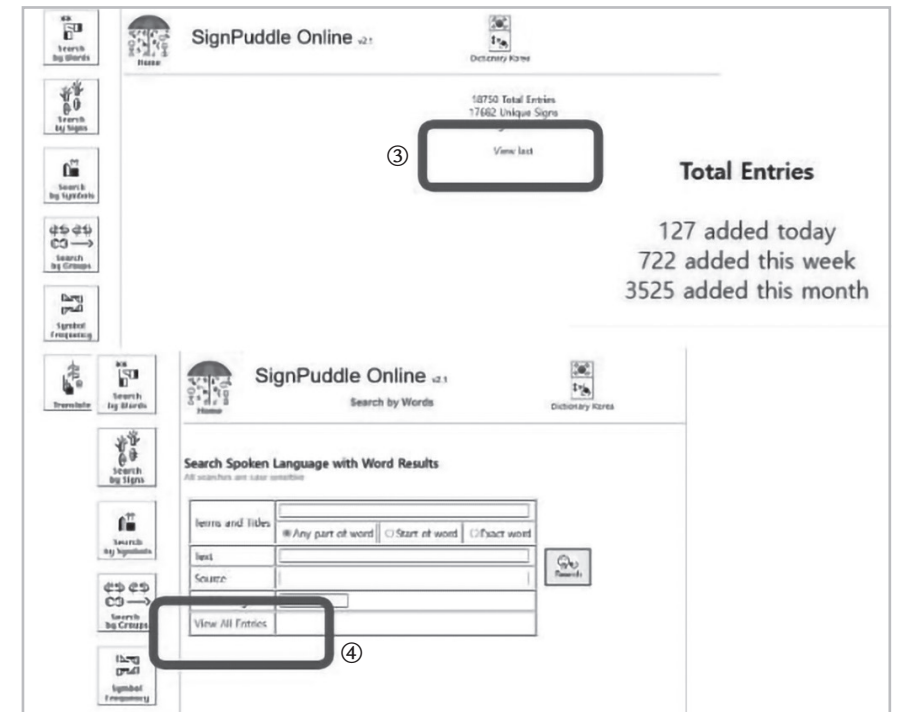
③ 아래와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View Last 클릭하면 2022년 12월 26일 기준으로 127개를 오늘 입력하였고 이번주에 722개를 이번달에 3525개를 입력하였네요.

왼쪽에 있는 아이콘 중 첫번째 아이콘(Search by Word)를 클릭합니다. 우측그림이 나옵니다.

④ 맨 밑의 View All Entries를 클릭합니다.

⑤ 새로 그리려면 SignMaker로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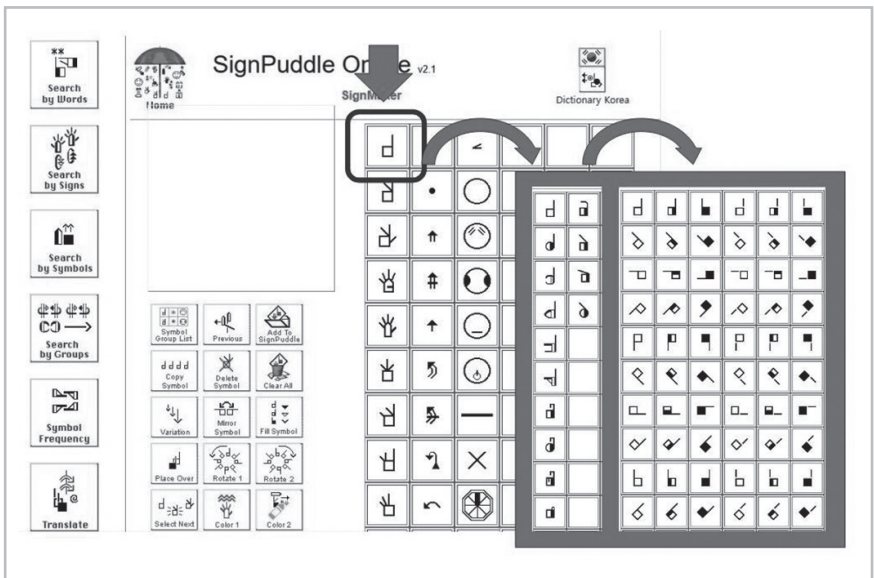


싸인 메이커로 바로 들어 가기 위한 링크입니다.
<https://www.signbank.org/signpuddle2.0/signmaker.php?ui=1&sgn=78>

위 링크가 너무 길면 아래 링크 또는 QR 코드를 사용하세요.
<https://m.site.naver.com/1HVk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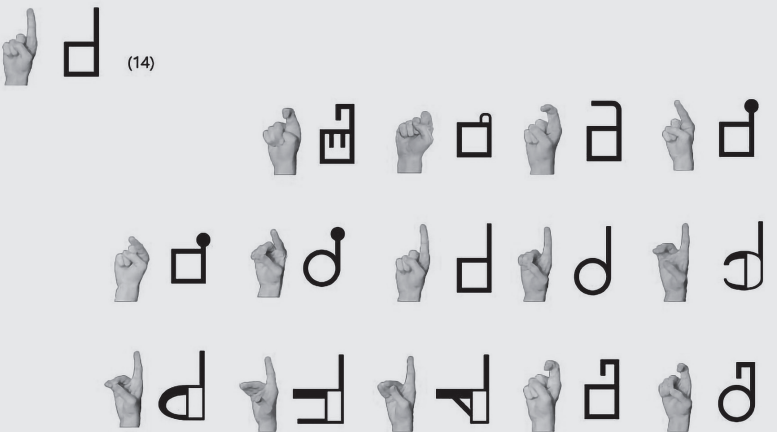


⑦ 수형을 선택합니다. (아래 예시는 검지만 편 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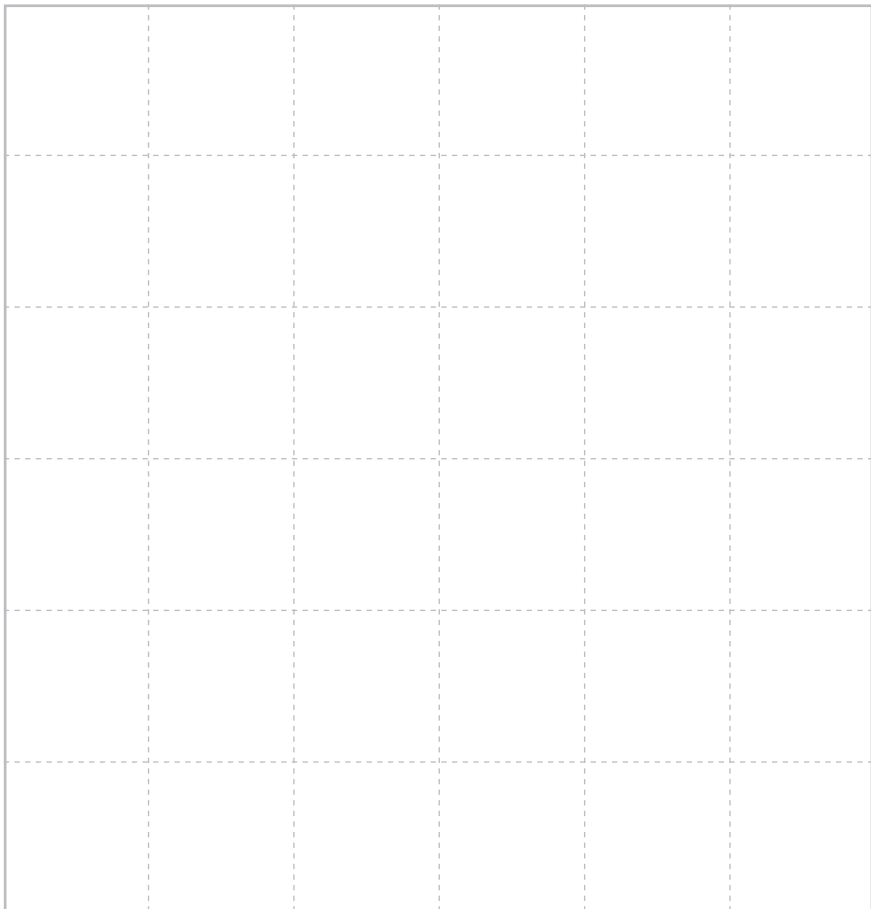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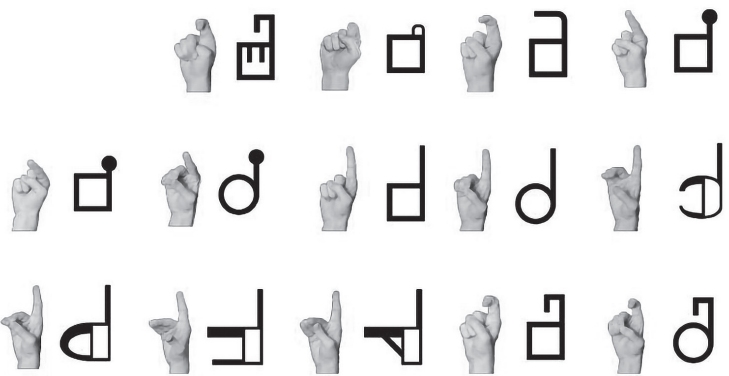


수형 리스트 순서는 미국 수어 지숫자 순서입니다. 미국 수어 지숫자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찾기 쉬울 거예요. 참고로 한국수어 지문자 ‘ㄴ’ 즉 한국 수어 지숫자 6을 찾으려면 미국 수어 지숫자 9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주 들어가서 어디에 어느 수형이 있는지 익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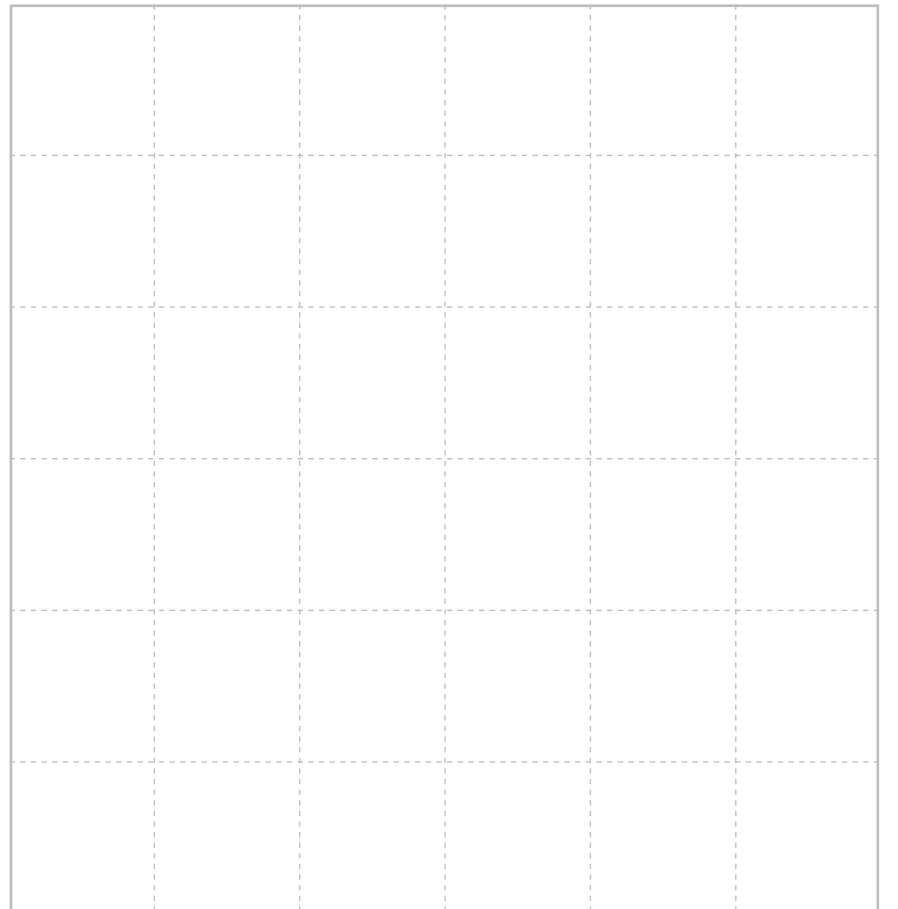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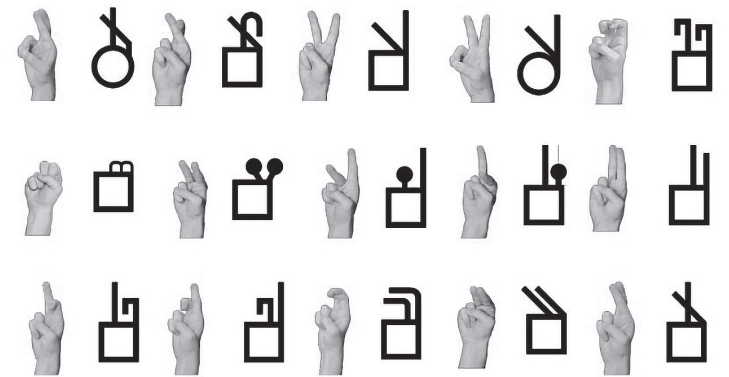
< 아래 예제를 참고해서 261개 수형을 같이 연습해 봅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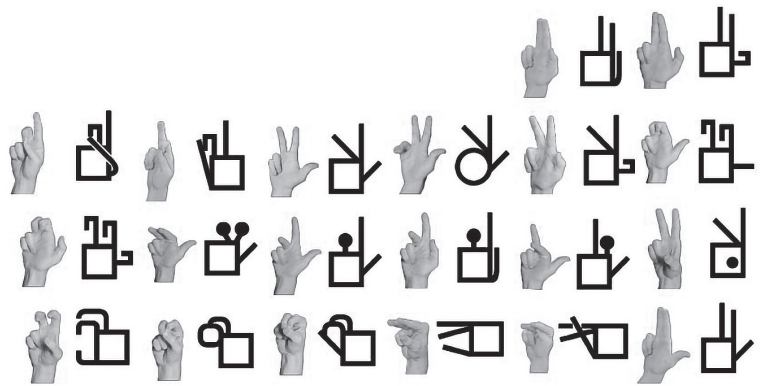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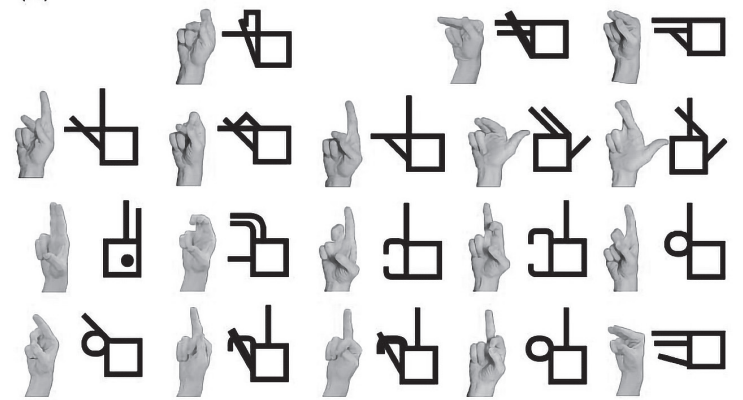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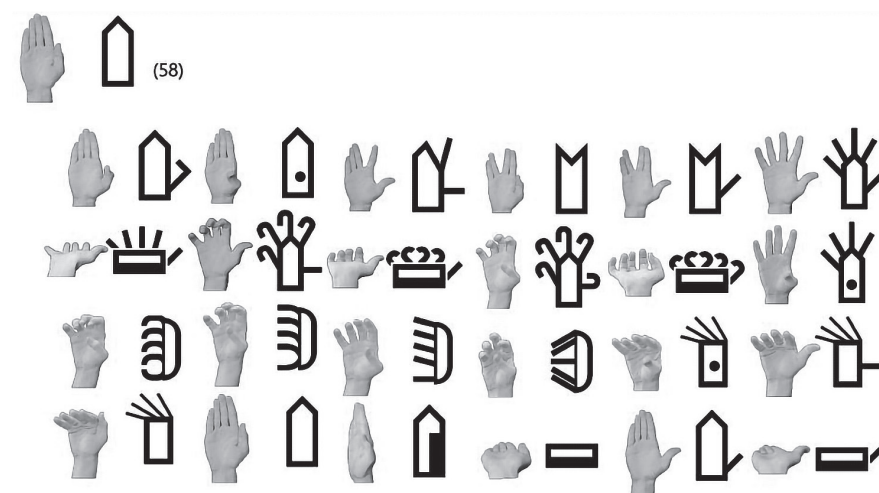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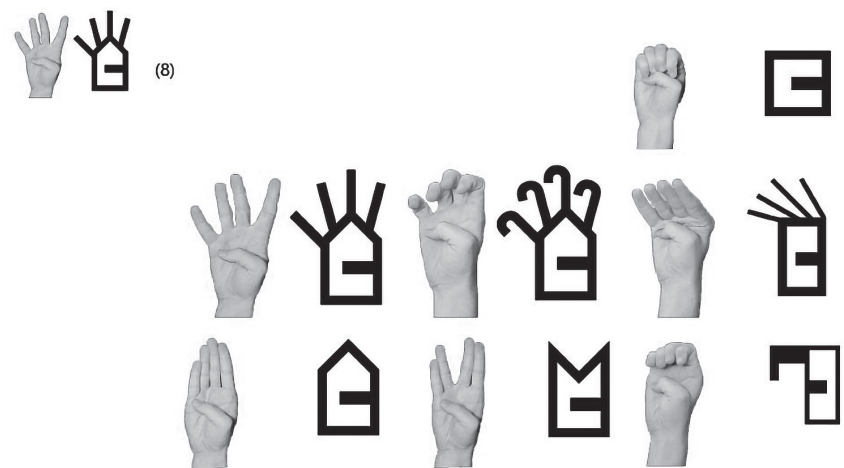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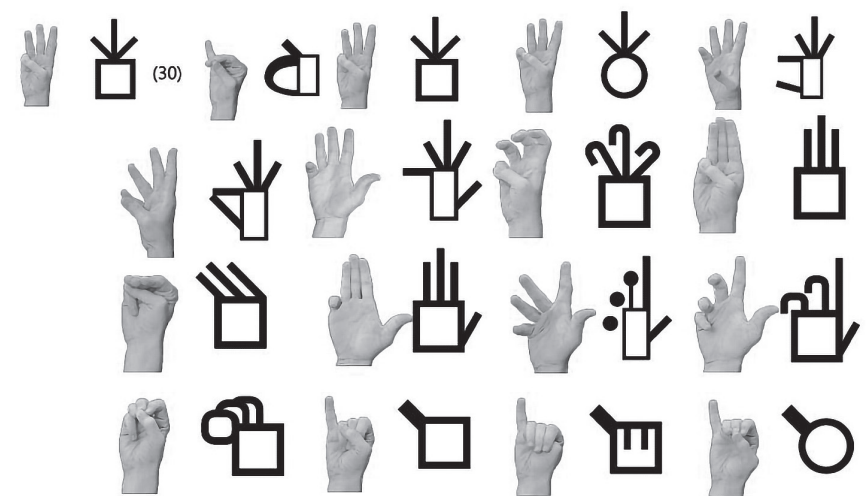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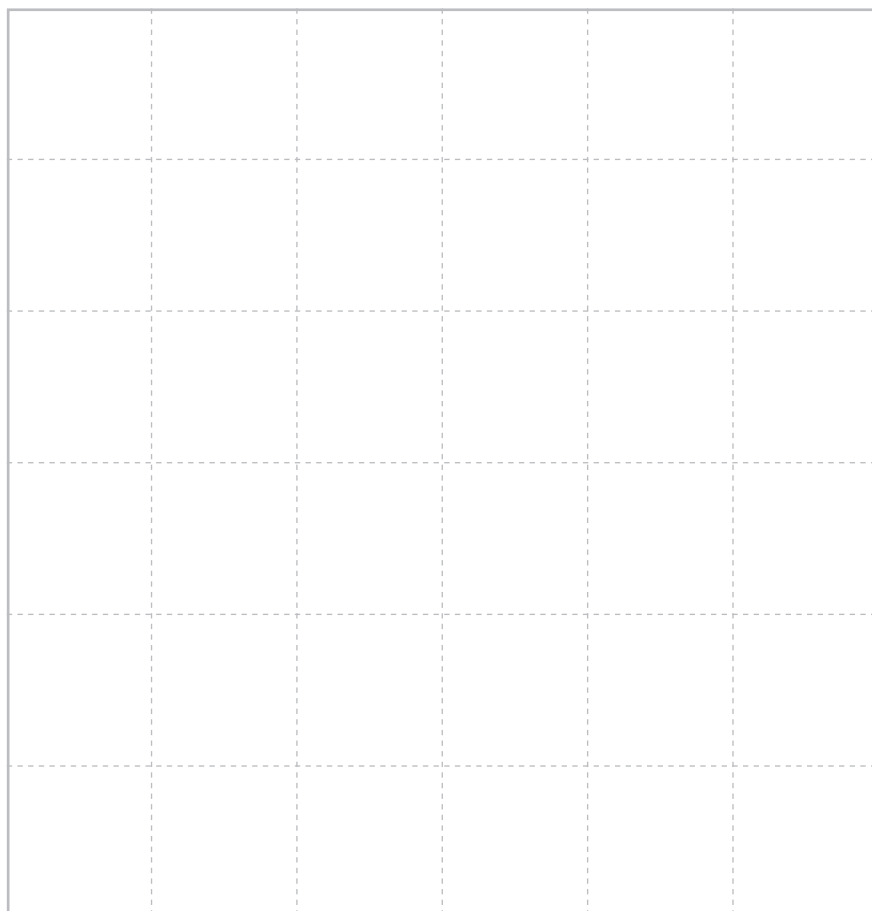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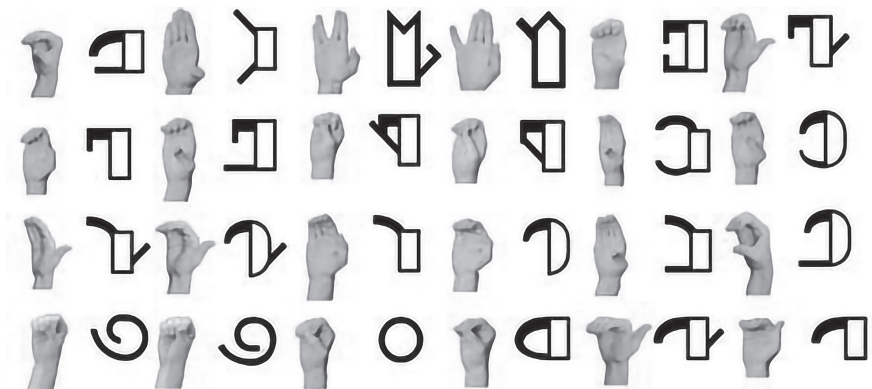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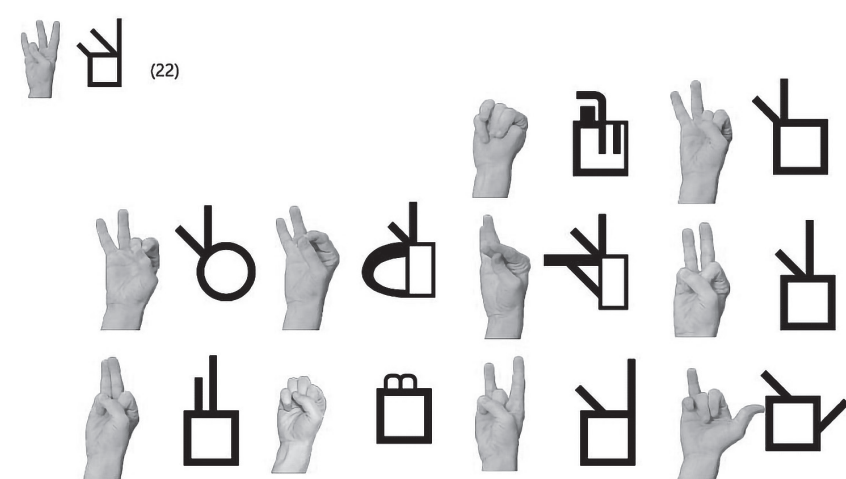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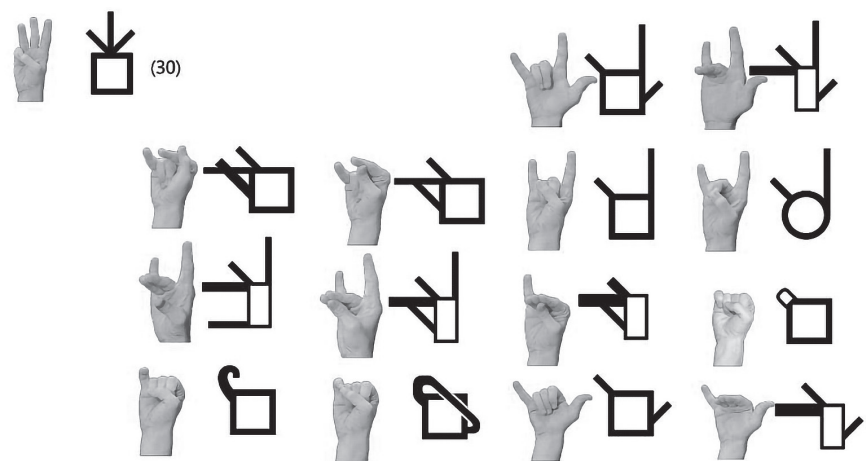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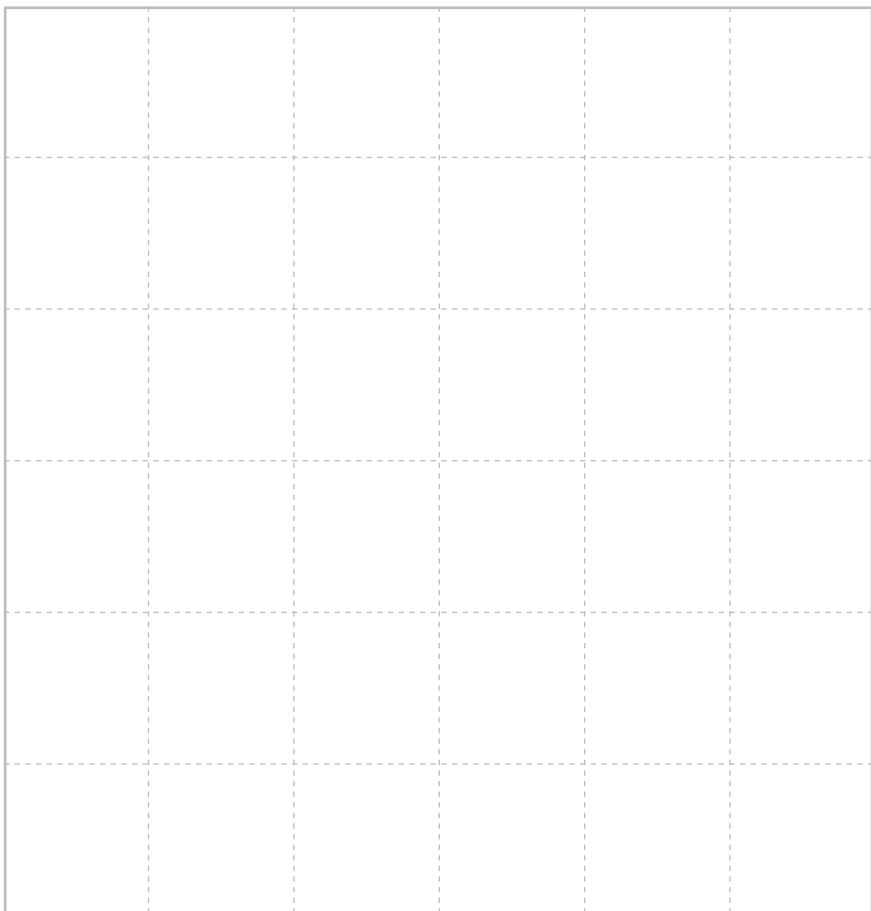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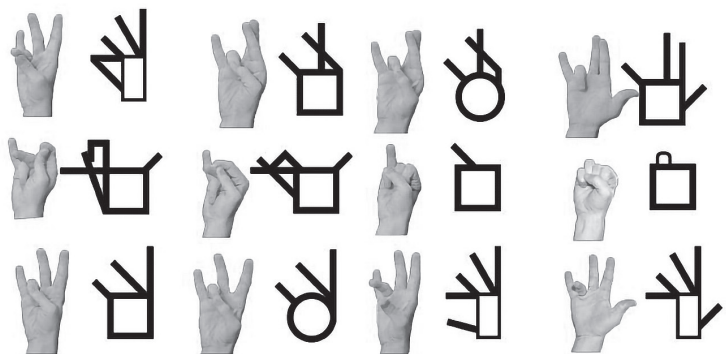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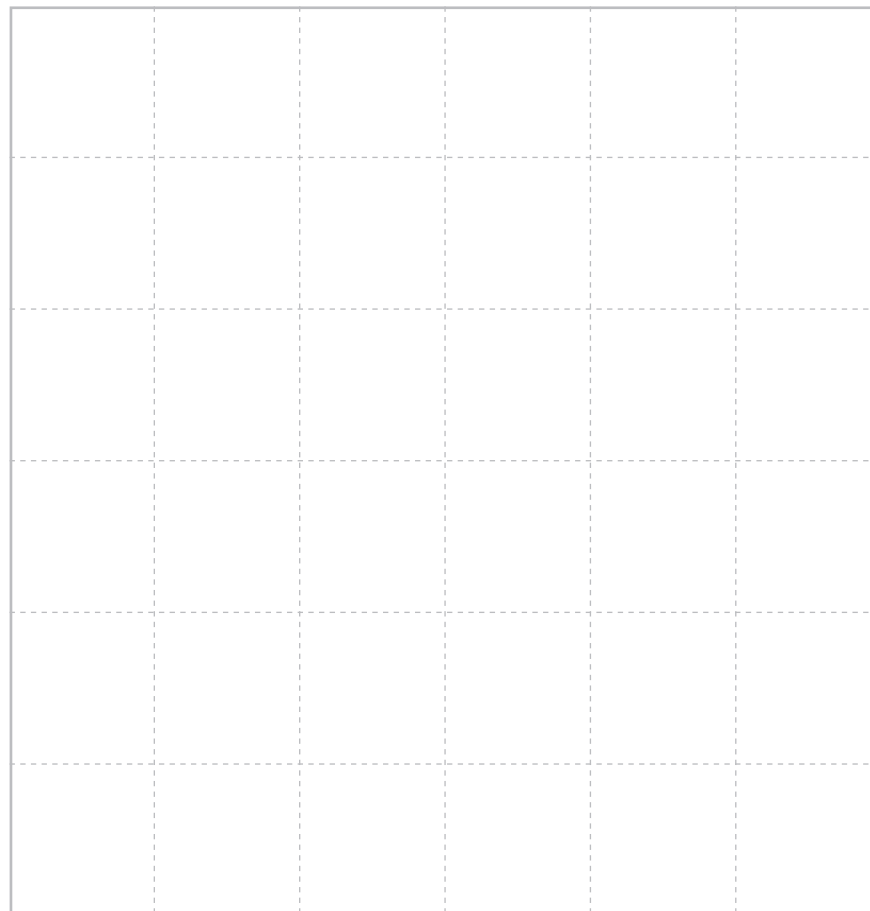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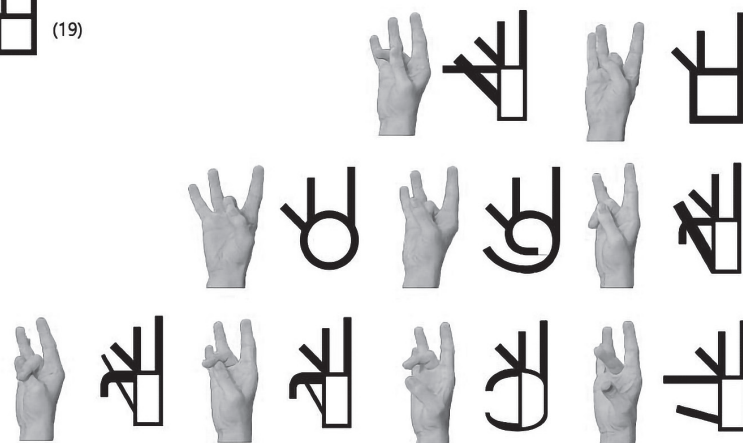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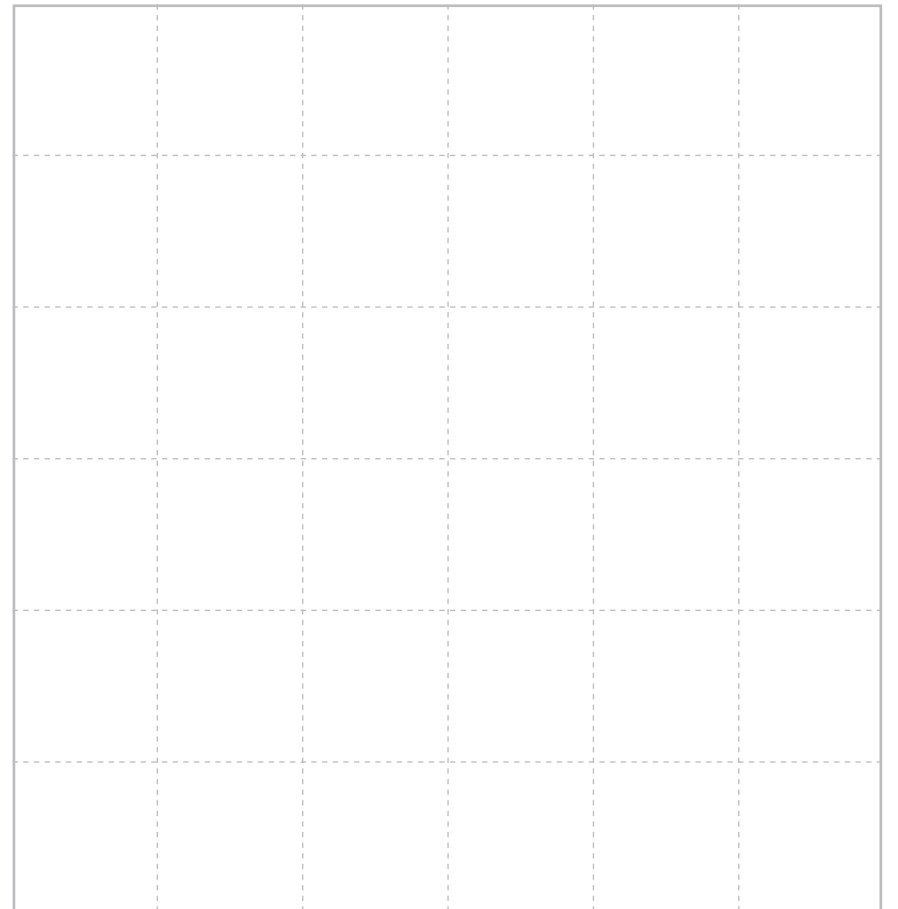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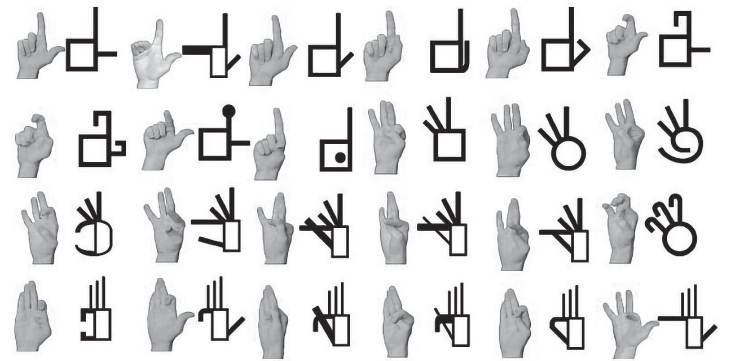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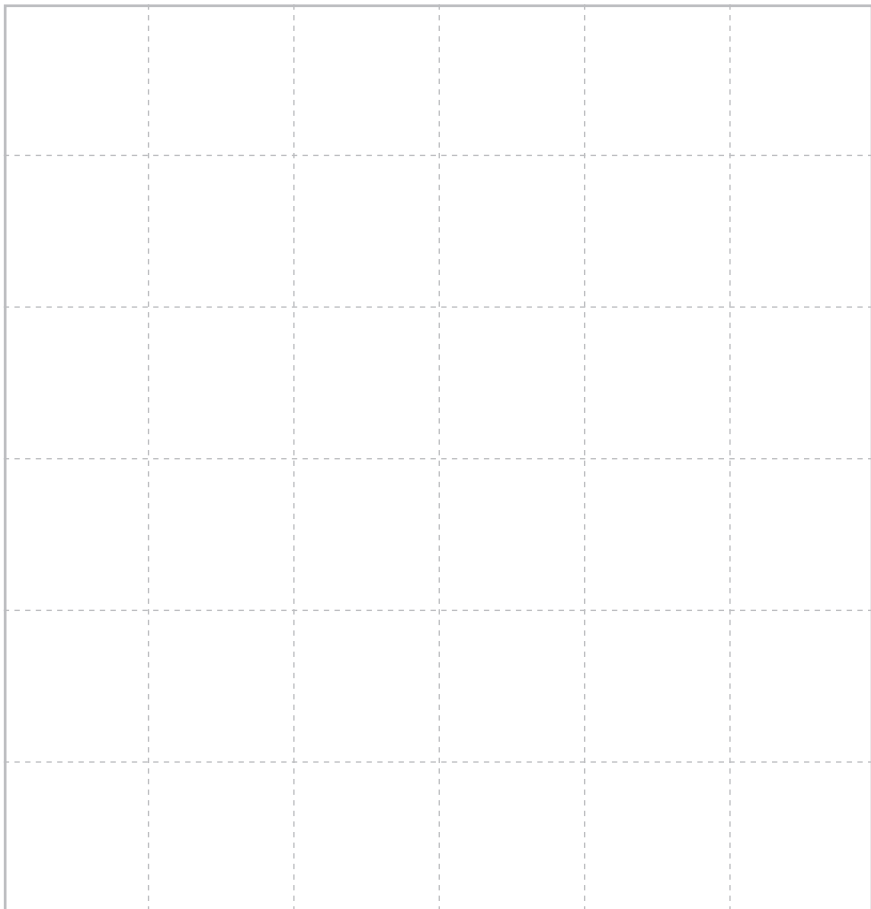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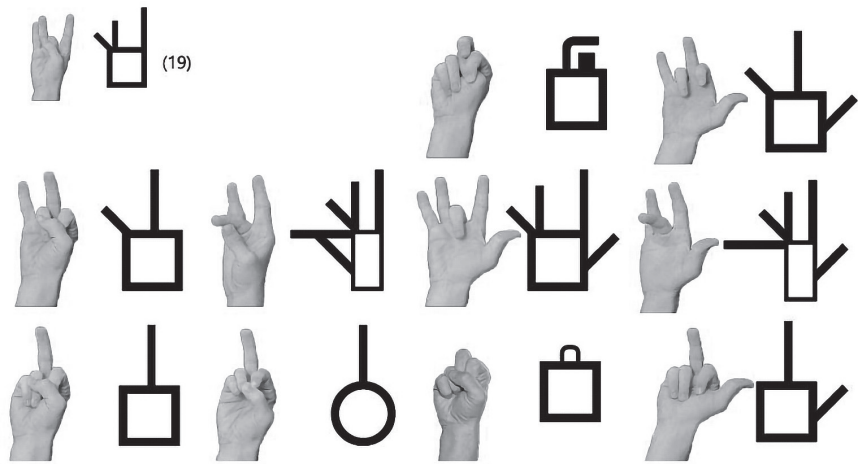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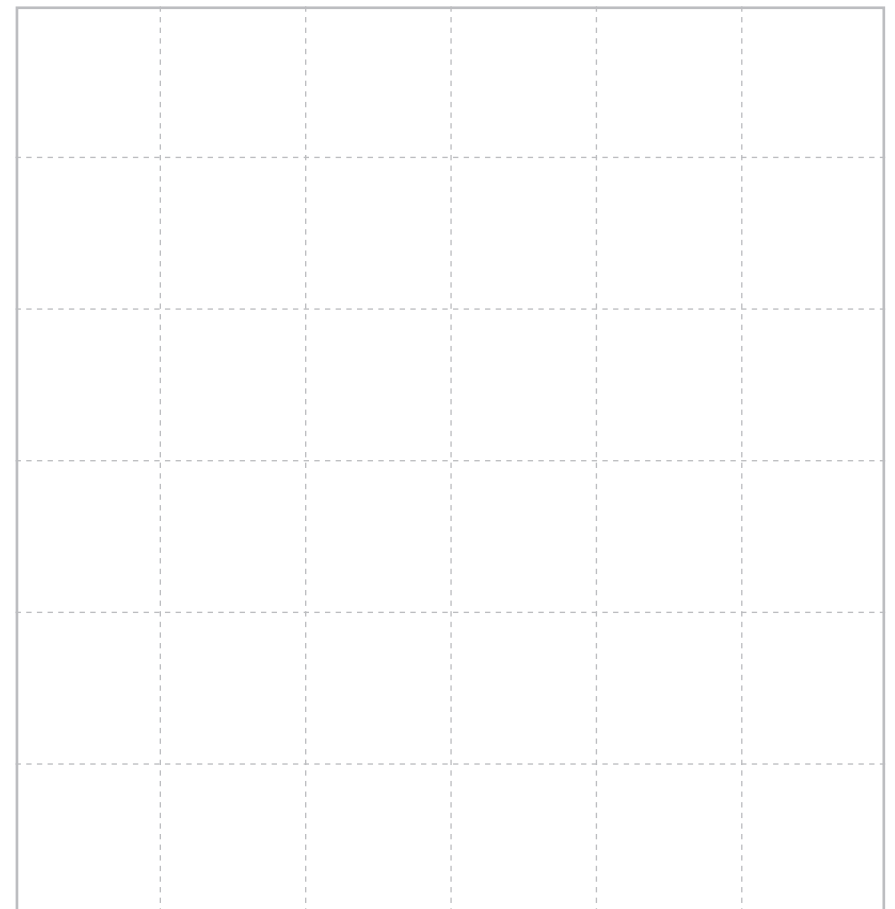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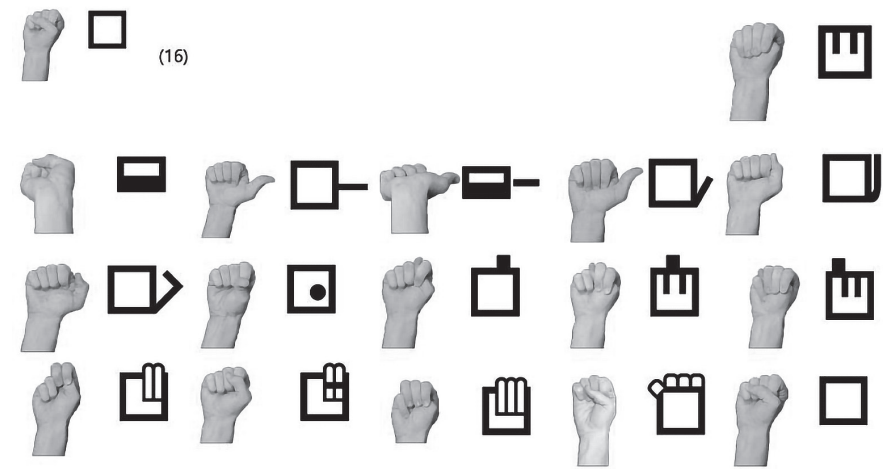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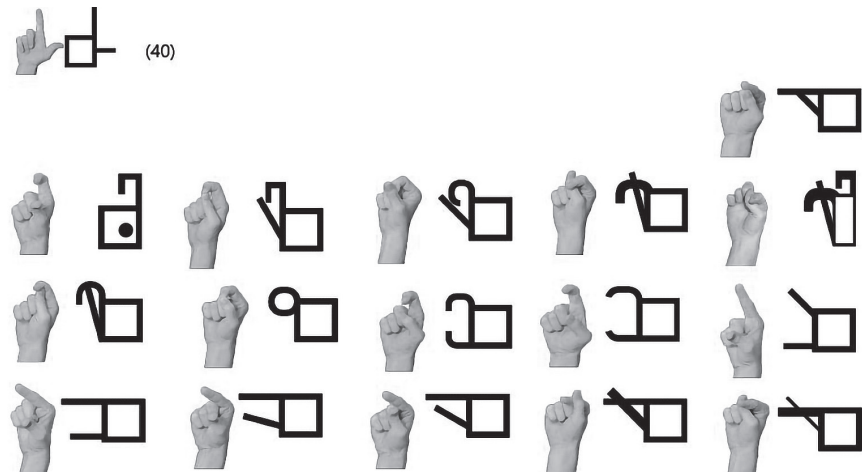
 (22)



 (19)







수형을 찾는 순서는 ASL 숫자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다. 한국수어 수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남자, 여자, 사람 수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남자는 ASL 숫자 10에서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여자, 사람 수형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영어 지문자 W는 2,3,4지를 펴고 1,5지를 접은 수형이다. 영어 지숫자 6은 다섯 손가락을 다 편 상태에서 1,5지를 마주댄 수형이다.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여튼, 영어 지숫자 6도 2,3,4지가 펴져있는 수형이다. 한국수어 사람 수형을 6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의미는 편 손가락 2,3,4지와 관련된 수형 한국수어 지숫자 3도 영어 지숫자 6 카타고리에 속해 있고 한국수어 사람 수형에서 편 손가락은 1,5지이지만 영어 지숫자 6 카타고리에 마찬가지로 속해 있다. 접힌 손가락도 편 손가락처럼 대우를 해주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하나 있다. 수어문자에서는 2,3,4지만을 편 W 수형을 보면 주먹 쥔 손에서 2,3,4지를 작대기 3개로 표현한다. 1지와 5지는 접혀 있어 표시하지 않는 것이다. 즉, 중요한 손가락만을 보여준다.

펼쳐져 있는 손가락(중요한 손가락)을 부르는 용어를 **우지**라고 김인선 선생님은 정의하였다. (논문 “수어문자 표기에서 수향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연구”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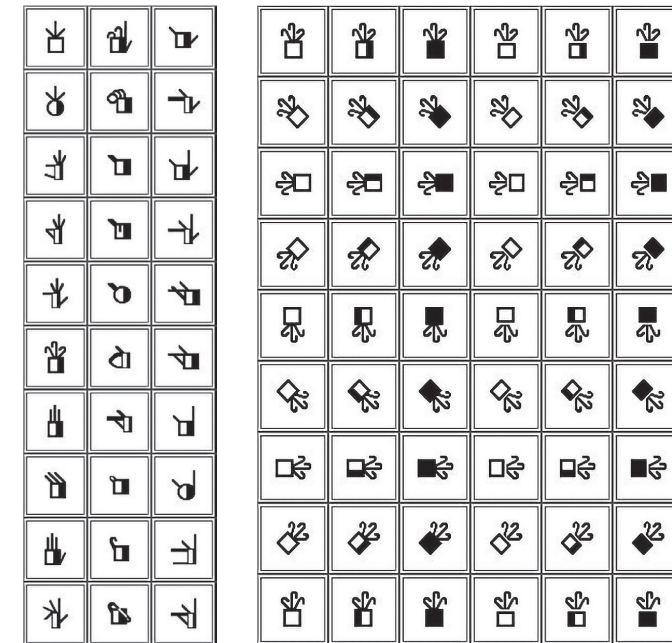
띄움	손바닥면이나 손등면이 바닥면과 평행 할 때 수향을 표기하기 위한 수어문자 표기법으로 수형의 가운데 부분이 일정 간격 띄어져 있는 것을 지칭함
비우세 손가락	우세 손가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를 적게 가지거나 가지지 않은 손가락으로서 주먹을 쥐거나 손가락 끼리 붙어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손가락 부분
우세 손가락 (우지)	의미를 가진 손가락으로서 주먹을 쥐거나 손가락끼리 붙어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튀어나온 손가락 부분(의리를 가진 손가락 여부가 튀어나옴의 여부보다 더 우선시함)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자, 사람 수형을 찾으려면 우지 2,3,4지의 반대인 1,5지로 이루어진 혹은 5지로만 이루어진 수형이므로 비우세 손가락이 1,5지 혹은 5지인 **여자, 사람 수형은 우지 2,3,4지로 표현된 W(ASL 지숫자 6)에서 찾으려면 된다.** 조금 이상하다. 하지만 어쩔랴. 분류를 정한 사람이 미국사람인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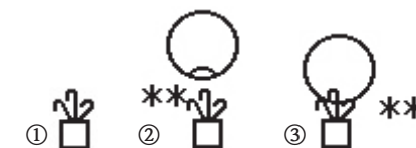
〈서울〉

한자 서울 경(京)에서 아래 부분을 2,3,4지를 구부려 턱에 대는 수어 2,3,4지를 싸인메이커에서 찾으면 미국 수어 지숫자 6에서 찾을 수 있다. 좌측열 위에서 6번째 모양이 우리가 찾는 수형이다.

클릭을 하면 우측의 그림이 나온다. 여기서 수향을 결정한다.



① 수향을 포함한 수형이 정해졌다. ② 수위를 표시하자. 얼굴의 턱을 표시하는 기호 밑에 별 표시와 함께 위치 시킨다. 여기서 별 표시는 두드림(contact)이다. ③ 이렇게 그리고 싶어할 것이다. 그래도 된다.



간단한 그림에서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복잡한 그림에서는 두 개의 기호가 겹치게 되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위의 그림② 처럼 분리해 표기하기를 권장한다. 그럼 여기서 별 표시 말고 다른 기호는 없는지 궁금하게 된다.

+	△	*	◎◎
#	⊖	**	@
##		*	@
#		+	@@
⊙		++	@

위 기호들이 Contact 기호이다. 아직 한국어 명칭도 없다. 별 표시는 두드림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절대값 사이 별은 사이에 끼어 넣는다는 의미인데 다음과 같은 수어에 사용된다. 끼임 표시라고 부르자. 명칭은 임시로 부르는 것이다. 다음 버전의 책이 발행될 때는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 ① 왼손 주먹 안에 오른손 2,3지를 넣고 잡은 상태에서 빼는 동작이다.
+ 표시는 잡는 동작을 표시한다.
- ② 오른손 1,5지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 옷을 잡는 동작이다.
잡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잡기 표시라고 부르자.
- ③ 왼손 바닥에 오른손 ‘ㅁ’의 손날을 때리는 동작이다.
치는 동작이니 때리기/치기 표시라고 부르자.

① 팔다	② 옷	③ 법

영어 이름과 함께 번역한 이름을 나열해 보자.

*	Touch Single	한번 두드림
**	Touch Multiple	여러번 두드림
*	Touch Between	사이 두드림/끼임
+	Grasp Single	한번 잡기
++	Grasp Multiple	여러번 잡기
+	Grasp Between	사이 잡기
#	Strike Single	한번 때리기/치기
##	Strike Multiple	여러번 때리기
#	Strike Between	사이 때리기
⊙	Brush Single	한번 쓸어내리기/쓸기
⊙⊙	Brush Multiple	여러번 쓸어내리기
⊙	Brush Between	사이 쓸어내리기
@	Rub Single	한번 문지르기
@@	Rub Multiple	여러번 문지르기
@	Rub Between	사이 문지르기
△	Surface Symbol	표면 기호
△-△	Surface Between	사이 표면

*	 없다	 서류	 방법
*	 목적	 얼음	 말기다
+	 약속	 선출	 올림픽
#	 다르다	 변하다	 끝
⊙	 나누다	 훔치다	 물건
@	 사전	 변하다	 운명

아래 예시 중에서 <흠치다>는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흠치다 수어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른손이 왼손 바닥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알겠지만 처음 이 수어를 접하는 사람은 어느 손이 위에 존재하는 지를 알려 주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기호가 표면 기호이다.

 <흠치다> 왼손 옆에  이 표시를 추가해 주자!!
 <표면기호 ,  >
 위에 위치한 수형에 표기,  앞에 위치한 수형에 표기.

두 줄 표면 기호()의 의미가 스페인 교재에서는 위쪽에 위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발레리 서튼의 문서에는 앞쪽에 위치하도록 설명되어 있다. 즉, 스페인 교재에서는 원래 목적과 다르게 반대로 표기하고 있다. 만일, 스페인 교재를 번역한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의하기 바란다.

한국수어문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한국수어의 수형 40가지 중에 기존 수어 문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형이 3개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발레리 서튼과 주고 받은 메일 내용을 공개하겠다.

주요 수형소 (33개)									
									
									
									
부차적 수형소 (7개)									

보낸 메일 : 첨부는 한국수어의 수형들입니다. 40개 중에 ISWA2010에서 찾을 수 없는 수형이 3개 있습니다.

첫째는 01-06-001-01()과 비슷하지만 검지가 접힌 수형입니다. (지숫자 13)
 둘째는 01-04-001-01()과 비슷하지만 검지가 접힌 수형입니다. (지숫자 14)
 셋째는 01-06-009-01()과 비슷하지만 검지가 접힌 수형입니다. (지숫자 18)

부차적 수형소이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수형입니다.

받은 메일 : 기호를 만드시면 됩니다. 기본형에 심볼그룹 28번을 사용하세요 기존 기호에서 손가락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수형(지숫자 13)에 대한 대안으로 수형(01-06-001-01)에 구부린 손가락 (05-02-004-01)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수형(지숫자 14)에 대한 대안으로 수형(01-04-001-01)에 수형(05-02-004-01)을 추가하였으나 검지에 잘 맞지 않더군요. 그래서 수형(05-02-003-02)을 추가하거나 수형(05-02-003-03)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수형(지숫자 18)은 좀 어렵더군요. 01-06-009-01과 비슷하지만 검지가 접힌 수형이라고 하셨는데 그림을 보니 중지가 펴져 있더라구요. 01-06-009-01과 달라요.



그래서 기본형이 무엇일지 찾아 봤어요. 주먹형이 아닌거 같더라구요. 왜냐면 손가락이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을 거 같습니다.

수형 01-07-007-01에 엄지를 추가했어요 이게 아마도 읽기 더 쉬울거 같아요 검지와 새끼 손가락이 접혔다는 정보는 없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할걸요?

메일을 통해 완성된 한국수어 수형 40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수어문법 수형소의 수어문자 예시

주요 수형소 (33개)						
부차적 수형소 (7개)						

미국수어 지문자의 수어문자 예시



Chapter 2

정서법과 필기체

〈Chapter 2. 정서법과 필기체〉에서는 signwriting.org에 나온 다양한 예시를 통해 수어문자를 바르게 적는 방법과 손으로 빠르게 적는 법을 설명한다.

Chapter 2. 정서법과 필기체

음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화되는 '음성'을 적어야 한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 가셨다"라고 하면 "아버지가"를 듣고 있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할 지는 알 수 없다. 문장이 모두 끝나야 방에 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시간에 따라 1차원적으로 의미가 전달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수어는 공간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동시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시각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2장의 예시 [생큐]만 보더라도 손의 움직임과 함께 비수지 기호인 웃는 모습을 동시에 보고 종합적으로 수어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수어를 문자로 적는다는 것은 수어가 다선형적인 것과 같이 문자도 다선형적으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스토키 표기법과 함노시스 표기법은 선형적으로 적는 방식을 채택하여 수어를 수어답게 적을 수 없다.

수어문자는 수화자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을 적는다

수어를 말하는 사람, 즉 내가 하는 수어를 내가 보고 적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수어를 보고 적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여기서 수화자의 관점은 수화자가 수어를 보는 시점이 맞기는 하지만 손의 위치가 어깨너머 뒤로 가는 경우, 수어를 적는 방법이 명확하게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수화자의 관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바라보는 눈의 위치는 수화자 뒷편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찾으려면 원래 발레리 서튼이 처음 수어문자를 만들었던 시기로 돌아가 생각해야 한다. 수어문자의 근원이 댄스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녀는 젊은 시절 발레리나였고 춤 동작을 적기 위한 댄스표기를 고안해 냈다. 댄스를 적는 방식은 춤추는 사람의 동작을 보고 적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수어문자도 수화자의 모양을 보고 적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농인들의 요청에 의해 수화자의 관점에서 적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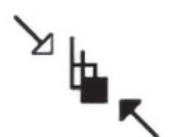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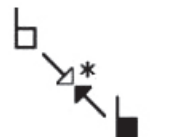
처음 수어를 배우는 청인들의 입장에서 수어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 좌우를

반전한 형태로 수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청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돌 춤을 가르쳐 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 거울모드라는 방식으로 영상을 편집하여 보여주는 예가 있다. 수어도 마찬가지로 청인 입장에서는 좌우가 바뀌어 학습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농인은 처음 수어를 배울 때부터 거울모드가 아닌 수화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수어를 학습한다. 이를 경기도 수어전문교육원에서는 조망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수어문자도 처음에는 보는 사람 기준으로 적었지만 결국 수화자의 시점에서 적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 때는 시점이 수화자 뒤통수에 있다고 생각하고 적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다음은 수어문자를 그리는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1) 접촉하는 위치에 표시할 것

 ○ 올바른 표기 접촉점이 수어의 중심	 × 틀린 표기 수어가 떨어져 있어 초점을 잃음
---	--

수어문자를 적으려면 수어의 접촉 위치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두 손이 서로 만나는지, 손이 얼굴이나 몸에 닿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두 손이 닿는 위치에 가능한 가까이 기호를 표기 한다. 실제 손의 위치처럼 그린다. 접촉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수어의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수어문자를 읽을 때 눈은 접촉 위치에 집중하게 되어 있다. 접촉 위치는 하나의 단위다.

올바른 예					
올바르지 않은 예					

접촉 위치에 기호를 그리면 가로와 세로 폭을 줄여 콤팩트하게 표기 할 수 있다. 접촉 점을 그리면 수어의 시각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두 손이 가까운 위치

에서 접촉한 그림을 그릴 때 별(*) 표시 한 개는 거의 필요 없다. 한 개를 그리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다. 별을 생략하여 더 간단히 그릴 수 있다. 단, 여러 번 접촉하는 경우 별 표시를 생략하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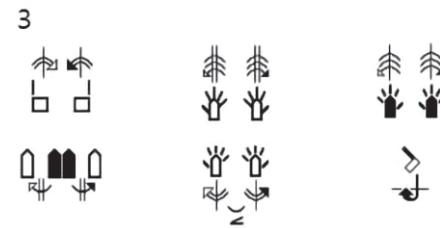
손과 얼굴이 만나는 경우 가능한 가까이 위치시키고 움직임 기호는 그 근처에 그린다. 수어의 접촉 위치 말고 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 기호만 그린다.



(2) 경로 수동 표시 위치

경로 수동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표기 할 때 그 위치는 수어가 이동하는 방향에 그린다. 하지만 이동하는 방향에 다른 기호가 있는 경우 예외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2번은 [GOOD]이라는 미국수어로 화살표를 우측에 두었다.)

회전 화살표를 표기하는 경우(3번) 아래로 휘어지는 경우 손 위에 그리고 위로 휘어지는 경우 아래에 그린다.



(3) 화살표 표기 방법

시작할 때의 수형과 끝날 때 수형이 다른 경우, 두 번째 수형을 화살표의 머리 쪽에 둔다(1번).

화살표의 꼬리는 첫 번째 수형에 둔다. (만일 화살표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시킨다.)

내부 수동이 있는 경우 시작할 때 수형만을 화살표의 꼬리 위치에 둔다(2번). 앞서 설명한 경로 수동 2번과 마찬가지로 이동하는 위치에 다른 기호(얼굴 표시)가 있는 경우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화살표의 위치를 조절한다(3번).

오른쪽 수형이 시작할 때 수형이다(4번).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순서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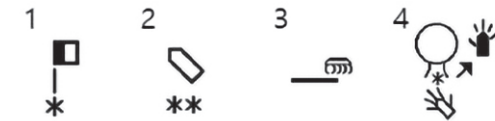
(4) 신체 접촉 수어 : 몸

어깨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선을 사용한다(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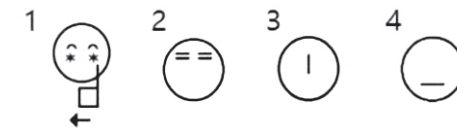
목이나 눈, 코, 입 위치는 해당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4번은 목을 포함한 기호).

가끔 손이 몸과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한 손이 가슴의 가운데를 터치하는 경우 손 기호 밑에 별 기호를 붙인다(1,2번). (기타 다른 기호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 마치 일반적으로 수어를 중립공간에서 발화하는 것과 같다.)

수어의 초점이 눈이라면 작은 반원으로 뜬 눈을 표기한다(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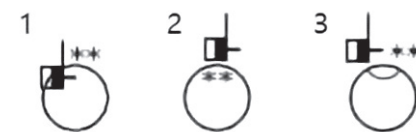


눈썹을 나타낼 때는 2번 기호를 사용한다. 이는 눈썹과 속눈썹을 뜻한다. 코를 나타내는 기호는 세로선, 입을 나타내는 기호는 가로선.(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이 있다.) 단순한 수평 선은 중립적인 입 모양을 뜻하면 이는 단지 접촉점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된다.



(5) 신체 접촉 수어 : 얼굴

수어 [GERMANY]를 표기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모두 엄지가 이마를 두드리는 동작을 표시한 것이다. 1번은 심볼이 겹쳐져 있어 어디를 두드리는지 명확하지 않다. 2번은 두드리는 위치가 각기 다른 위치라고 오해 할 수 있다. 3번은 닿는 위치의 범위를 표시해 주고 엄지를 이마에 두드린다는 표시까지 확실하게 보여 준다.



손(1번)이나 터치 심볼(2번)이 머리 심볼의 어느 곳에 닿는지 이마, 볼, 턱을 바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심볼이 겹치면 혼동을 일으킨다. 또다른 방법은 닿는 부위의 범위(3번)를 지정해 주는 것이다.
단, 머리의 위나 옆, 턱 아래와 같은 얼굴의 경계를 터치하는 경우는 범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보면 e레슨이라는 Q&A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signwriting.org/lessons/elessons/>)

Question 0006

지역 수화로 배를 압박하는 동작 어떻게 하나요?

배를 압박하는 동작 이렇게 합니다.
두 손을 마주대고 누르는 동작



미국 수어 '압박'



Question 0012

표면 기호는 언제 사용하나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분류사처럼 위치를 확실하게 표시 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Question 0052

표면 기호가 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기호를 읽기 힘들 때 사용합니다. 다른 손의 위나 앞에 위치 할 경우 읽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스페인 교재에서는 위와 앞의 기호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역주)

1	☞	표면의 앞에 (가슴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표면)
2	☜	표면의 뒤에 (가슴 방향으로의 표면)
3	☛	표면의 왼쪽에
4	☞	표면의 오른쪽에
5	☞☜	두 표면을 통과하여 (앞과 뒤에)
6	☛☞	두 표면을 통과하여 (좌측과 우측에)

Question 0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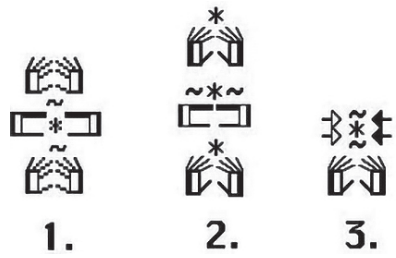
농인 학생이 알고 싶다네요 영상에서 신디가 농인을 표현하는 수화가 틀린 게 아닌지요? 농인수화는 접촉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아닌지요?

웃음. 아니예요. 신디는 실수 하지 않았어요. 영상에 나온 세 사람 모두 맞게 사용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래 5가지 예시 모두 맞아요 물론 특정 시점에 철자법이 정해 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여러 가지 방법 모두 맞아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모두 제대로 읽었으니까요. 수어문자는 많은 기호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수어문자를 적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일 접촉점이 구체적으로 두 군데가 없어서 읽을 수 없다면 접촉 별을 두 개 그려 주세요. 혼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 그려도 OK입니다. 덴마크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별을 그리기로 몇 년 전에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충 그러도 모두 이해합니다. 철자법은 유연하게 사용하세요.

Question 0056

손가락을 마주대고 누르는 동작은 어떻게 그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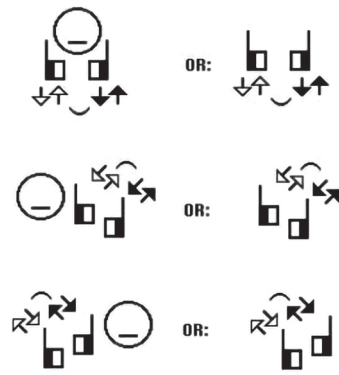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조 기호를 접촉 별 옆에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 시선은 두 개 기호의 조합으로 누른다는 뜻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3번 그림은 두 번 누르는 움직임을 뜻하는데 이는 마치 안으로 안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움직임 기호 조합은 누르는 동작의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화살표 표시는 방향을 강조합니다. 누르는 접촉은 Q. 0006 참고.



Question 0003

말하다 수어의 방향성은 어떻게 그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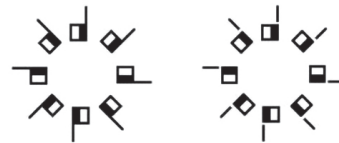
화살표의 방향이 수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손가락은 위를 향하고 있지만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수어의 방향성은 대각선으로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즉, 수형보다 수동의 표시가 우선.



Question 0004

방향성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래 왼쪽 그림은 손이 위나 아래를 지시하는 방향의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손이 앞이나 뒤를 지시하는 방향의 그림입니다.



Question 0005

위를 가리키는 손을 어떻게 그리나요? 또 움직임은 위가 아니고 앞으로 향하는 경우는 어떻게 그리나요?

첫번째 그림은 앞쪽을 가리키는 손. 손가락 관절에 빈 마디가 있습니다. 공간은 앞을 지시함을 의미합니다. 바닥과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당신의 가슴과 평행

합니다. 위쪽을 가리킵니다. 세번째도 수형은 동일합니다. 네번째는 앞을 가리킵니다. 바닥과 평행입니다. 하지만 동작은 위로 이동하거나(선이 하나인 경우) 앞으로 이동합니다. (선이 두개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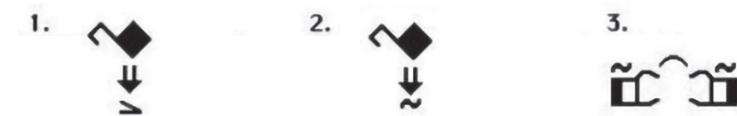
첫 번째 그림은 앞을 향해 앞으로 이동, 두 번째는 위를 가리키고 앞으로 이동, 세 번째는 위를 가리키고 위로 이동, 네 번째는 앞을 가리키고 위로 이동. 마지막 그림은 손가락 방향은 위를 나타내지만 움직임은 앞으로 뒤로 옆으로 대각선으로 이동을 나타냅니다. 연습을 조금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0013

마지막에 갑자기 정지하는 동작은 어떻게 그리나요?

강조 기호를 사용하여 근육의 긴장을 표시합니다. 이를 움직임 기호라고 부릅니다. 1번 그림에서 입술에 긴장을 줍니다. 동작의 마지막에 강조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2번 그림은 시계를 벽에 고정할 때 마지막에 강하게 정지하는 동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조 기호는 갑자기 정지를 나타냅니다.



Question 0014

속도 기호와 강조 기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속도 기호는 빠르게 움직이라는 의미이고 여기에는 강조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움직임으로 빠르게 라는 뜻이죠. 강조 기호는 빠르게나 느리게와는 상관없습니다. 속도는 보통이고 움직임의 텐션을 부여합니다. 강조 기호가 사용되는 또 다른 사용처는 분류사를 위치시킬 때 씁니다. 수형 아래 강조 기호를 표시하면 말 그대로 공간에 분류사를 위치 시키시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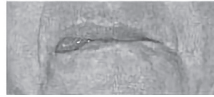


Question 0090

얼굴 표정 중 혀를 내미는 동작?

입술 사이에 혀를 내미는 동작, 가운데 위치(메롱),
한쪽에 위치(오뚜기)

*기존에 없던 기호로 2006년에 추가



Question 0009

화살표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건가요? 독일 수어에서 몇몇이라는 수어는 바닥과 평행이 아니고 벽과 평행입니다. 그럼 마디 없이 그리는 거지요? 맞나요? 주먹 쥘 수형에서 5 수형으로 변화하는 경우 어떻게 그리나요?

아니요. 손이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화살표는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가락 펴기 수동의 몇가지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손가락을 순서대로 펴는 법
2. 어느 손가락을 먼저 펴는지 모르는 상태로 펴기
3.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 모습 보여주기



Question 0010

주먹을 쥐는 동작에서 언제 검은 점을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나요?

예시 0010 을 보면 많은 정보를 알수 있다. 1번은 최초 문서에서 적었던 방식이다. 2번은 같은 수어를 새로운 버전에서 적은 것이다. 1번에서 추가 정보인 검은 점을 표현했다. 손가락이 가운데에서 모아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지막 위치의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독자는 손가락이 모여져 주먹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수 있다. 때문에 검은 점은 중복된 정보가 된다. 없어도 된다. 1번에서 마지막 위치에 별 표시가 2개 있다. 이것은 두 번을 부담히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만일 정말로 두번 터치하는 경우 두개 별로 표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번에서 터치 표시는 하나다. 왜냐면 토치는 한번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검은 점은 두번째 위치에 표시할 필요가 없을 때 주로 사용되어 진다. 그러니 두번째 위치를 그리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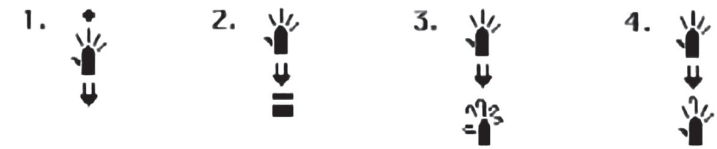


Question 0011

주먹을 쥐는 동작에서 언제 검은 점을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나요?

예시 0011에서 1번은 최초 문서에서 적었던 방식이다. 잘못된 것은 없다. 독자가 수어를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도 나열하였다. 최소의 방식은 다섯 손가락 수형을 바닥과 평행하게 두고 손가락을 쥐는 동작.

이것은 쥐는 동작이 주먹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쥐는 동작이 구부린 상태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지만 구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은 점이 중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은 점을 지식을 가정한다. 문자를 적는 사람은 독자가 기호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안다면 문제가 없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두번째 동작도 그려줘라.



Question 0015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검은 점을 사용하는 대신 시작 위치와 마무리 위치를 표현했다. 이게 맞나? 나는 훨씬 더 편한거 같은데...

예시 0015를 보라. 맞다. 검은 점은 손가락을 접는 동작 또는 중지만 접는 동작을 말한다. 동작은 주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2,3,4처럼 다른 모습으로 끝나기도 한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다. 분명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처음과 끝 위치를 적는 경우, 검은 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확실하니까.

하지만 점을 쓴다면 마지막 위치에 사용하기를 권한다. 처음 위치에서는 빼버리고. 어떻게 마치는지 알수 있다. 곧게 편 손가락에서 구부린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검은점이 매우 유용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접었다 다시 접는 경우다. 더블 클로징. 한번 접을 때와 같지 않다. 정리하면 더블 클로징에서는 점을 사용하고 한번 접을 때는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써주자.



Question 0016

수어 발화시 눈을 감는 것을 어떻게 적나요? 처음에는 뜨고 있다가 발화 후 감을 때.

가장 좋은 위치는 마지막 위치의 위에 표시하는 것이다. 시작 위치보다. 왜냐면 동작 그 자체가 두 위치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손 위 꺾쇠는 편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동작으로 마지막엔 집계 손가락이 된다. 이 동작 표시는 눈꺼풀에도 사용한다. 눈 깜빡거리를 보면 눈꺼풀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 쓰인다.

꺾쇠는 손가락 까딱과 눈꺼풀 깜빡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눈을 뜬 상태에서 수어를 하기 때문에 눈꺼풀 움직임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 단지 감긴 눈을 표시하면 된다. 충분하다. 평소에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말이다.



Question 0035

미국수어 가르치다와 같은 수형(한국수어 오리) 에서 엄지가 나머지 손가락을 문지르는 수동을 어떻게 표현 하나요?

1번은 손가락 끝이 원형으로 움직인다. 화살표가 없으면 문지르는 동작은 원형을 그리는 것이다. 2번은 문지르기 기호 옆에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다. 화살표의 크기는 작다. 이 화살표는 문지르기 기호와 함께 사용된다.(예외적으로 발리나 인도에서 춤출 때 놀라운 손동작을 사용한다.)

3번은 같은 동작이지만 자체 움직임 기호를 포함하고 있다. 팔과 함께 손이 움직이는 것이다. 2번은 한국수어에서 초토헤시키다 또는 돈을 뜻하는 제스처와 같다(역주)

2000년 2월 16일 질문을 받고 그 당시에 답변을 바로 줄 수 없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를 연구하는 중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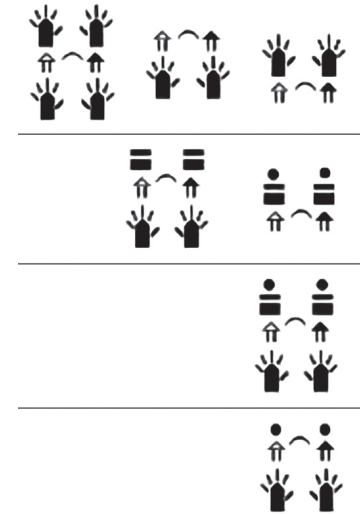


Question 0041

항상 첫 동작과 끝 동작을 적어야 하나요? 언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래에 자세한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세가지 모두 같은 동작이다. 모두 맞다. 수형이 동일하면 하나는 제거 할 수 있다. 문제없이 읽히기 때문이다. 둘다 맞게 적었다. 정확하고 읽기 쉽다. 만일 한가지 동작을 제거한다면 시작 동작을 제거 할 수 있다. 독자는 시작할 때 펼친 손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옳게 적었으나 검은 점은 불필요하다. 없어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좋은 스펠링이 될 수 없다. 틀렸다고 할수는 없지만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다. 검은 점은 중지를 접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여러 모양으로 마지막 수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표현에 점만을 표현하면 안된다. 완벽한 기호를 알수 없다.



Q&A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따로 책을 내야 할 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5가지 카타고리 총 90개 질문 중에 수형을 제외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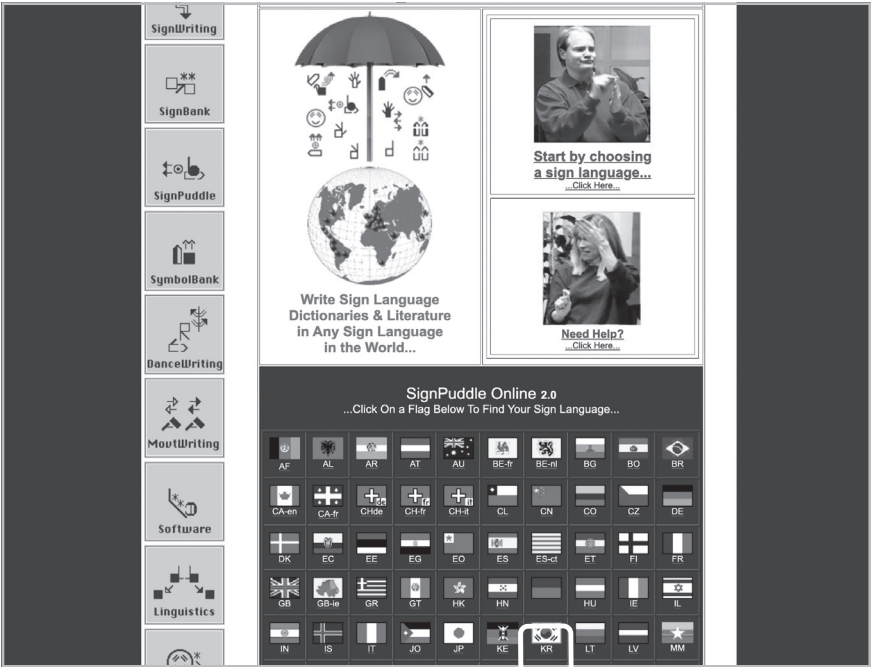
1. Contact Symbols
2. Directionality
3. Dynamics
4. Fingers
5. Handshapes

Signwriting 홈페이지에 수어문자로 적은 한국수어가 일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며 바르게 적었는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경로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 Signwriting.org을 입력하고 좌측 하단 SignPuddle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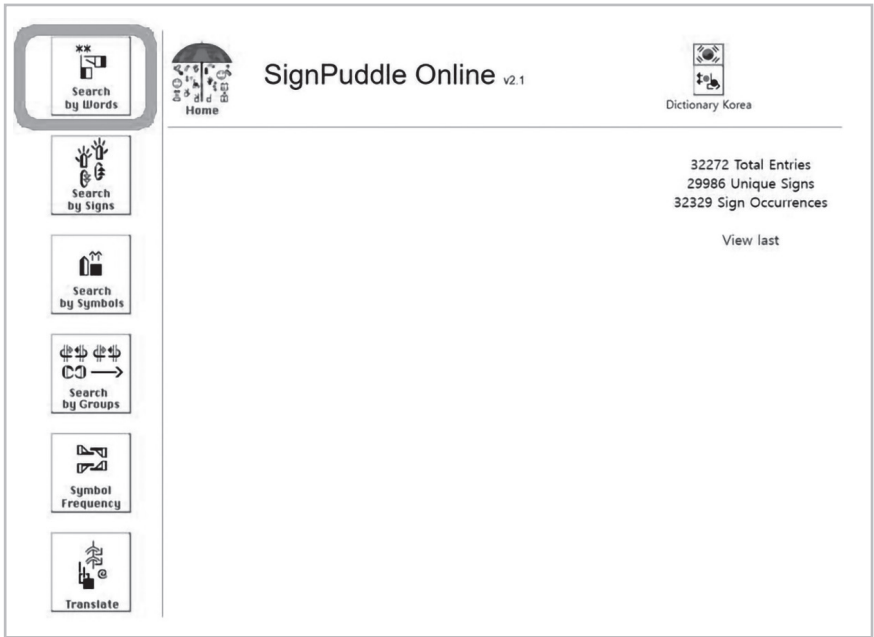
각 나라 국기가 보입니다. 그 중에 태극기를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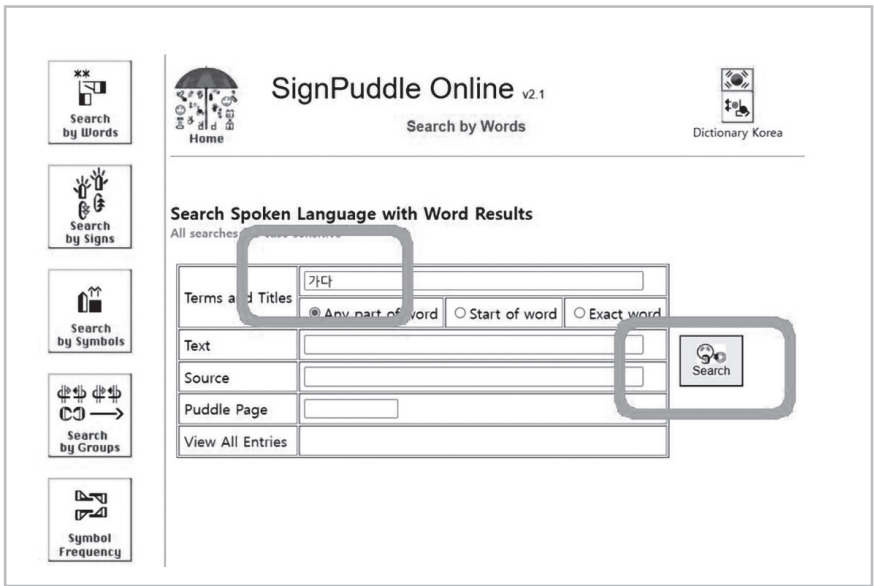
수어문자는 세로로 적을 수 있다

수어문자는 가로로 적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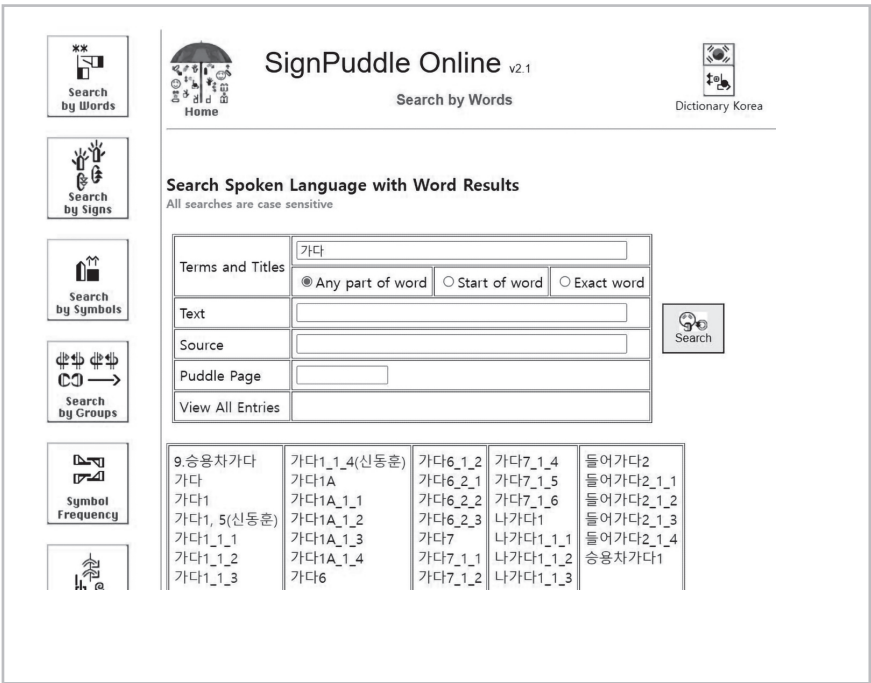
한국수어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총 3227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Search by Words를 클릭합니다.



Terms and Titles 창 안에 알고 싶은 수어문자의 글로스를 입력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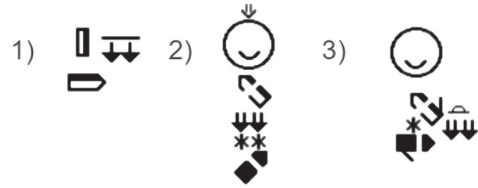
1. 가다



2)번을 제외한 3가지 모두 손목을 꺾는 표시를 사용하였네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2)번은 처음 동작과 마지막 동작을 표시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명확한 동작을 표시하였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3가지는 방향만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4)번은 어깨를 표시하여 수위까지 표현하였네요. 어깨 표시가 없는 1)번, 3)번은 중립공간에서 발화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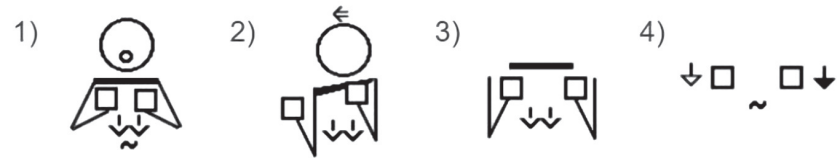
2. 감사하다



여기서도 손목을 꺾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뉘네요. 1)번은 오른손을 왼손등 위에 두 번 치는 동작입니다. 접촉 기호는 사용하지 않았네요. 2)번, 3)번은 터치 기호를 사용하였고 3)번은 오른손이 왼손 위에 위치한다는 표면 기호도 적어 주었네요.

수형을 다르게 사용했지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표시해도 무관합니다. 2)번은 고개를 수그리는 동작도 표현했습니다. 인사하는 것이죠. 좋네요. 비수지까지 표현해서요.

3. 건강하다



수어문자라기 보다는 그림 문자같은 느낌이 드네요.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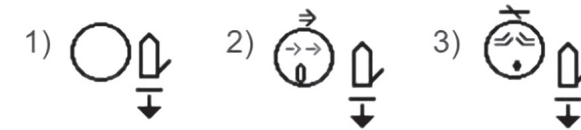
1)번과 4)번은 강조 표시를 넣었네요. 힘을 주어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2)번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하는 모습이라 아마도 구성된 행위같네요. 3)번은 2)번과 비슷한데 어깨와 팔이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조금 이상하죠? 4)번은 주먹과 연결된 팔의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합니다.

4. 공부



같은 수어를 적었는데 참 다양하네요. 일단 수형은 모두 통일되어 있습니다. 엄지를 붙여 표현한 문자는 없네요. 수동은 조금씩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이 가장 맘에 듭니다. 제가 발화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앞으로 두 번 움직이는 동작이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3)번과 1)번을 적절히 버무리면 좀 더 간결하게 적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5. 과거



비수지 표현을 제외하면 사실 세 가지 모두 동일한 표기이네요. 손목을 꺾는 표기를 사용하였는데 사실 처음 배울 때는 팔 전체를 뒤로 움직이게 배우는데 쓰다 보면 편한 동작으로 변형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다룹니다. Chapter 5. [그림 16]을 참고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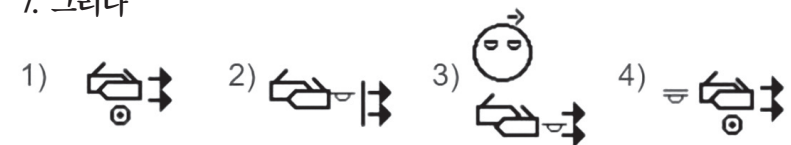
6. 교사



손목을 표현하는 방법은 주먹에 선을 그어 표시합니다. 왼손의 수형은 모두 동일합니다. 오른손은 조금씩 달라요. 1)번의 오른손 수형은 2)번, 3)번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래 4)번처럼 손가락을 벌리던가요?

2)번은 표면 기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손이 왼손 팔 위에 위치한다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미 수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정보가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참, 1)번은 팔이 아플거 같네요. 건드리는 기호가 아닌 때리는 기호를 사용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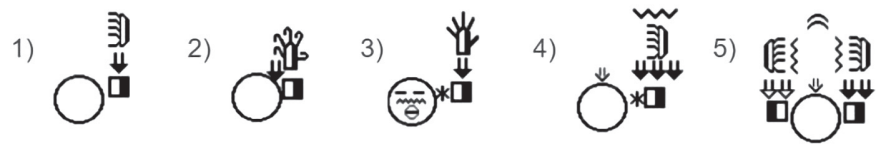
7. 그리다



1)번이 가장 간결하고 확실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표면 기호 보다는 접촉 기호를 선호합니다. 표면 기호는 위치를 명확하게 나타내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붓이 도화지를 쓸어 내는 동작이므로 브러시 기호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4)번은 매우 명확하게 표현이지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과 3)번은 표면 기호 사용에 오류가 있네요.

8. 기억하다



1)번, 2)번, 3)번 모두 동일합니다. 4)번은 반복한다는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접힌다는 정보를 따로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은 교대로 양손을 사용하여 암기하고 암기한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접는 정보를 넣었는데 중복되는 정보입니다. 화살표도 이중으로 표시했네요.

지금까지 내용이 **바르게 쓰기**였다면 다음은 **빠르게 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으로 그리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빠르게 적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합니다.

싸인라이팅을 적을 때 컴퓨터 활용 전 손으로 적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차이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1. 블록 프린팅 (해서체), 2. 손글씨 (행서체), 3. 속기 (초서체)
- (괄호에 적은 표현은 저자가 붓글씨에서 쓰는 용어를 차용한 표현임)



손글씨(행서체)로 적는 경우 기본적인 문자들

행서체 설명(선 사각형) | 초서체 설명(겹선 사각형)

8가지 기초 문자가 있습니다

(하단 좌측 그림)

엄지 표시는 선을 지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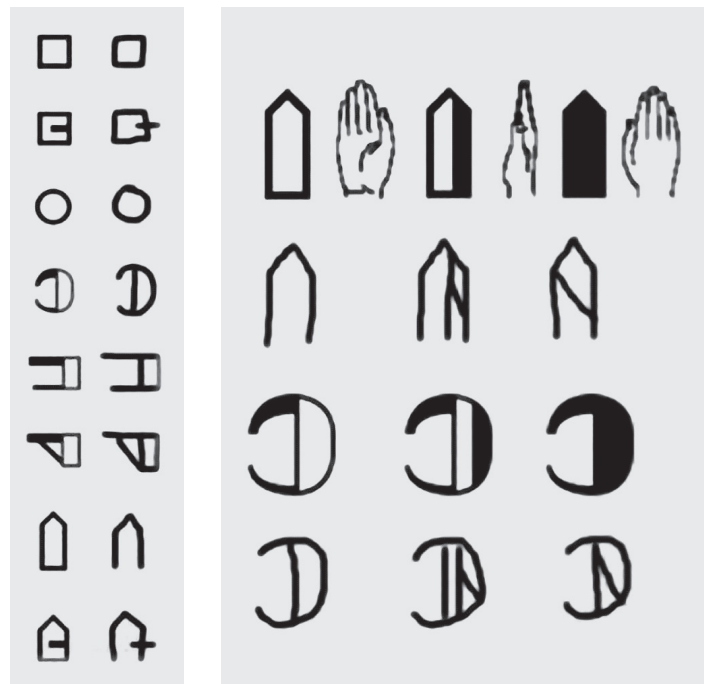
블럭프린팅에 비해 손가락 표시선이 얇습니다.

손바닥 그리기

(하단 우측 그림)

손바닥 안의 검은색은 대각선으로 대체합니다.

대각선을 그릴 때 확실하게 표시하기 바랍니다.



주먹 그리기

90도 꺾은 모양을 그릴 때 (즉,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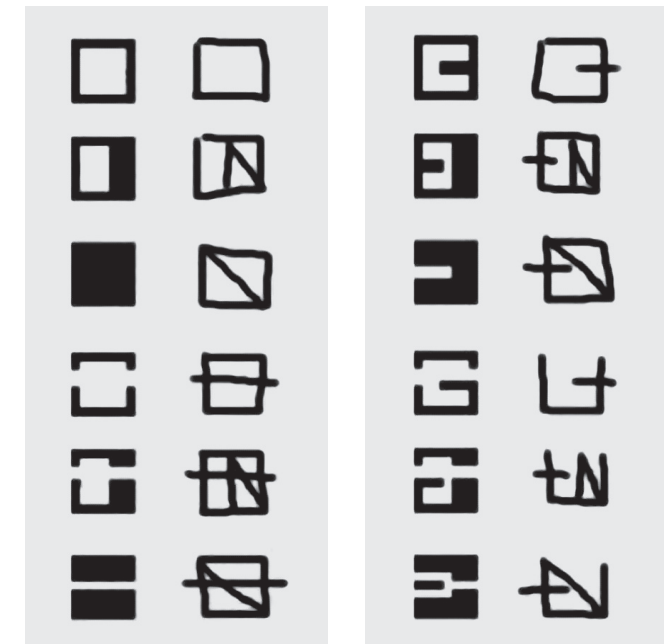
공간을 만드는 대신 통과하는 선을 긋는다.

확실하게 양쪽 모두 밖으로 선이 나가도록 주의하자.

엄지가 있는 주먹그리기 (하단 우측 그림)

엄지가 있는 경우 그림이 살짝 변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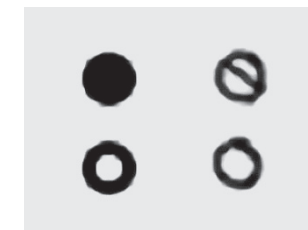
공간을 만드는 대신 사각형의 한쪽 선을 생략한다.



손가락 마디 접기 표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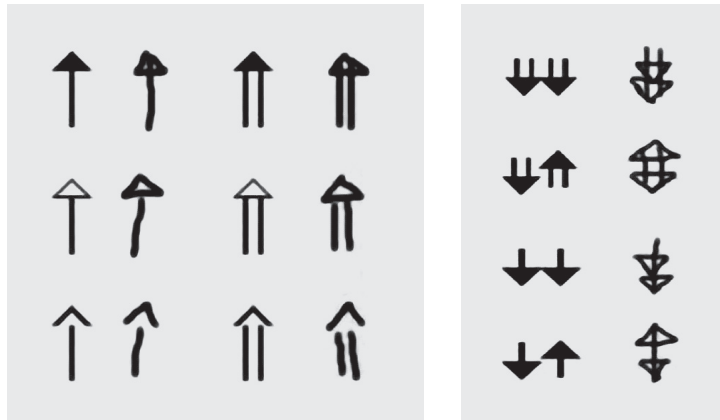
검정색 칠하는 부분을 수형에서와 같이 대각선으로 긋는다.

기초 문자와 크기가 같지 않도록 작게 표기 할 것.



화살표 표시법

화살촉이 검정인 경우 화살대가 지나가도록 긋는다.
화살표가 두 개 있는 경우 같은 화살대에 그린다.
앞, 뒤 화살표인 경우 화살대 양끝에 그린다.
순서 정보는 사라진다는 사실에 주의하자.



점차적으로 두꺼워지는 화살대를 그릴 때
안에는 채우지 말고 외곽선만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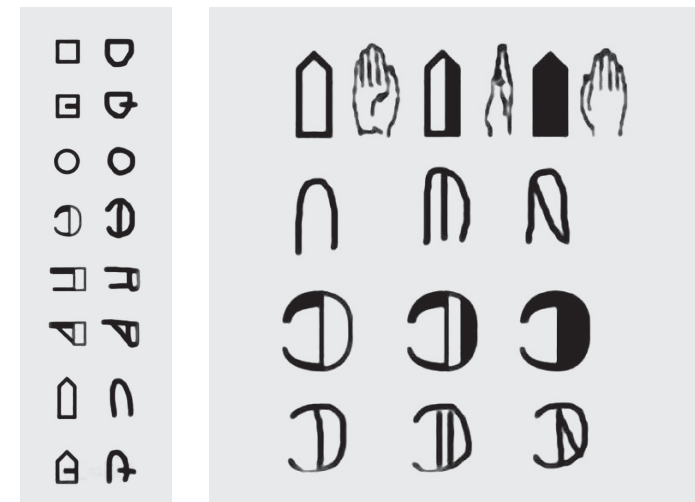
문장부호 표시법

굵은 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얇은 선은 그대로 얇은 선으로 표시한다.
굵은 선을 표시할 때 대각선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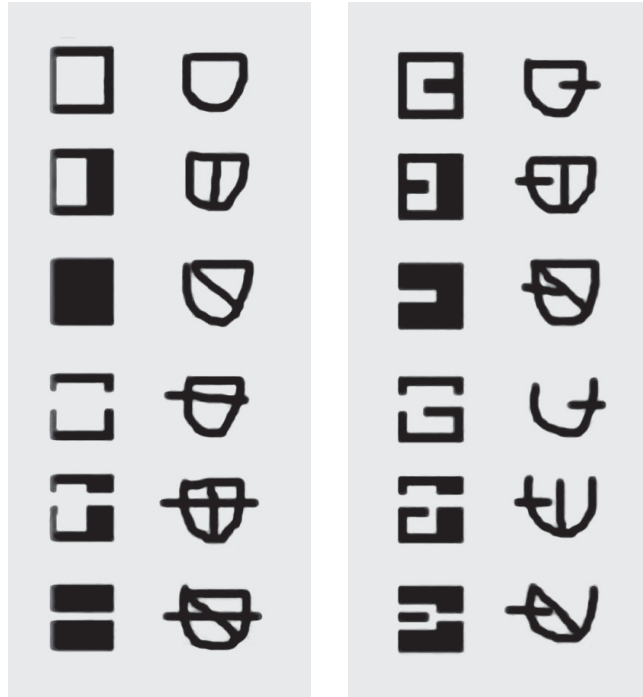
속기(초서체)로 적는 경우 기본적인 문자들

손글씨보다 좀 더 빨리 적기 위해 살짝 달라진 부분이 있다.
각진 부분은 둥글게 표현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하자.
손의 검은색 부분은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긋는다.
손의 옆모양은 대각선 없이 수직선 하나로 표시한다.
대각선은 손등이 보이는 경우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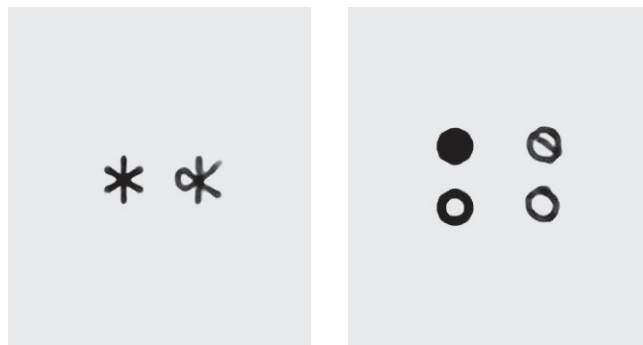


주먹 그리기

90도 꺾은 모양을 그릴 때 (즉,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
공간을 만드는 대신 통과하는 선을 긋는다. (띄움 → 선)
나머지는 대부분 손글씨(행서체)와 동일하다.



터치 표시가 유일하게 다르다



화살표 표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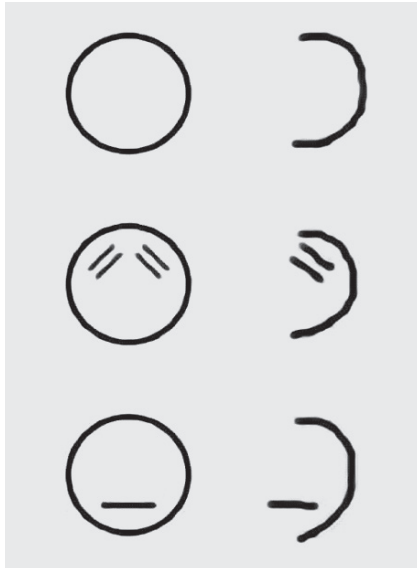
화살표 대신 대각선이 사용된다. (마치 반만 그린 형태)
대각선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두 개 양방향 화살표가 단순화된 모습에 주목하자.
점점 굵어지는 화살대는 표시하지 않는다.



머리모양 표시법

중요한 부분 반만 그린다. 눈도 한쪽 눈만 그린다.

입은 하나 뿐이라 중요한 반쪽만 그릴수는 없다.



문장부호 표시법

문장 부호 표시법은 동일하다. 굵은 선은 사용하지 않는다.

얇은 선은 그대로 얇은 선으로 표시한다.

굵은 선을 표시할 때 대각선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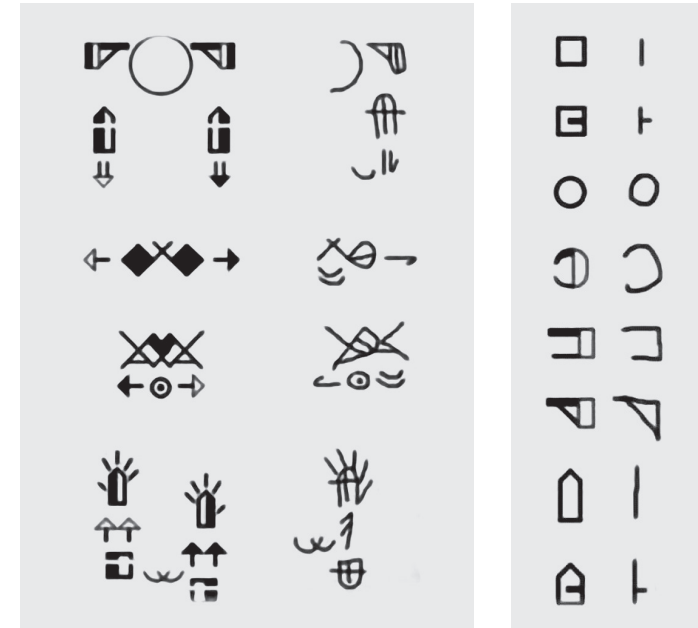


속기(초서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반만 그린다.

동시시간 부호로 동작을 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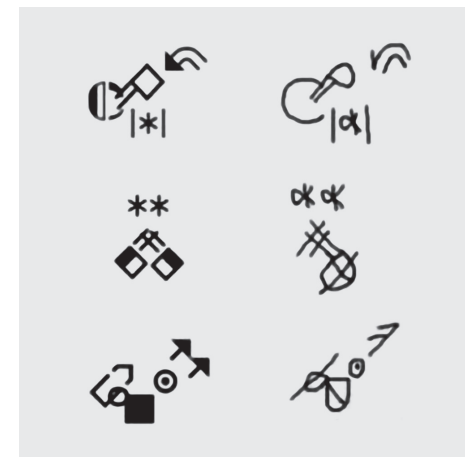
비우세손의 모양과 표시는 우세손과 같이 그려도 되고

그림을 참고하여 생략해서 그려도 된다.



속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반만 그린다.

비우세손의 모양과 표시는 적절히 생략해서 그려도 된다.



Chapter 3

기초 단어 적기

〈Chapter 3. 기초 단어 적기〉에서는 한국수어에서 사용 빈도수가 높은 기초 단어 486개의 예시를 보여 준다.

Chapter 3. 기초 단어 적기

수어전문교육원에서 배우는 한국수어 학습용 어휘를 정리한 최정숙(2022)님의 논문에 나오는 어휘 중에서 기초단어 486개를 수어문자로 적어 보았어요. 여러분이 적은 것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선택 빈도 백분율의 100%(11/11명)에 해당하는 어휘 : 54개

번호	한국어 표제어	수어 문자
1	가다	
2	감사하다	
3	건강, 튼튼하다, 기력, 강건하다	
4	공부하다, 학업	
5	과거, 전, 지나다	
6	교사, 교원, 사범, 선생, 스승, 교직자	

7	그리다, 미술, 회화, 그림	
8	기억하다, 외우다, 암기, 외다	
9	길, 도로	
10	나, 저	
11	나무	
12	남자	
13	낮, 밝다, 대낮, 환하다, 흰하다, 개다	
14	내일, 1일	
15	너, 당신	
16	다시, 또, 그리고	
17	덥다, 여름, 더위	
18	듣다, 소리, 소식, 청각	

19	만나다1	
20	많다, 흔하다	
21	먹다, 식사	
22	멀다, 멀리	
23	모르다	
24	무엇, 어느, 어떤, 무슨, 어디	
25	물	
26	미래, 다음, 앞날, 앞길, 장래, 장차, 향후	
27	반갑다, 즐겁다, 기쁘다, 재미있다	
28	반대하다	
29	반성하다	
30	받다	

31	배우다	
32	병, 질병, 병환, 질환, 앓다	
33	보다, 시각	
34	비슷하다, 근사하다, 유사하다	
35	사람, 인간	
36	아프다, 편찮다	
37	알다	
38	어둡다, 밤, 껌껌하다, 어둠, 캄캄하다, 캄캄하다	
39	어제	
40	없다	
41	여자, 여성, 여	
42	예쁘다, 곱다	

43	오늘, 금일, 이번, 오늘날, 현재	
44	오다	
45	우, 오른쪽	
46	운동, 체육	
47	이름, 성명, 명, 성함	
48	일본	
49	있다	
50	좋다	
51	주다	
52	집, 주택, 가옥, 세대, 호, 댁	
53	책	
54	크다, 매우, 몹시, 무척, 아주, 대단히	

2) 선택 빈도 백분율의 90.9%(10/11명)에 해당하는 어휘 : 89개

번호	한국어 표제어	수어 문자
1	(비가)내리다	
2	1년 (~년)	
3	1시 (~시)	
4	1월	
5	가깝다, 짧다	
6	가능하다	
7	가을, 바람불다	
8	가족	
9	가지다, 갖다, 지니다, 취하다, 소유하다, 소지하다	
10	같다, 똑같다, 마찬가지로, 동일, 맞다, 동	
11	걷다, 걸음, 도보, 보행	

12	검정색, 흑색, 검다, 까맣다, 타다	
13	겨울, 춥다, 추위, 냉각, 북, 한랭, 차다	
14	괜찮다, 무방하다	
15	기다리다, 대기, 이따가	
16	길다, 오래다, 오래	
17	깊다, 깊숙하다	
18	까지, 끝, 끝나다, 마치다, 그만, 종결, 종료	
19	나이, 나잇살, 살, 연령, 연세	
20	농인, 농아인	
21	높다	
22	누가, 누구	
23	눈 (내리는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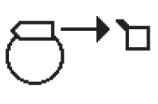
24	눈치, 재빠르다	
25	다르다, 상이하다	
26	닫다, 폐쇄	
27	달	
28	닭	
29	돈, 값, 대금, 가격, 금액, 금전, 화폐	
30	돕다, 도움, 보조, 원조, 지원	
31	딸	
32	땅, 흙, 가루, 육지, 토지	
33	마시다1	
34	마시다2, 흡수하다	
35	마찬가지	

36	만들다	
37	말하다1, 말, 언어	
38	맛있다, 맛나다, 맛	
39	무조건, 무작정	
40	미안하다	
41	박수, 환영	
42	방	
43	배, 선박	
44	버리다, 폐기, 폐하다	
45	봄, 따뜻하다, 남쪽, 남, 포근하다	
46	비행기, 항공, 항공기	
47	빨간색	

48	사장	
49	살찌다	
50	세수하다, 세면, 세수, 씻다, 세안	
51	소	
52	수고하다, 노고	
53	수어	
54	승용차, 자동차	
55	시간	
56	시작하다, 개시, 개최, 거행, 시발, 착수, 출발, 열다, 이행, 하수	
57	신청서	
58	신체 (입, 목, 얼굴)	
59	아니다, 아니	

60	아버지, 아빠, 부, 부친, 아비	
61	아직, 미-, 미처	
62	않다, 아니다	
63	앞, 앞쪽, 전면, 전방	
64	어렵다, 어려워하다	
65	어머니, 모친, 어미, 엄마	
66	연습하다, 훈련	
67	옆	
68	왜, 어째서	
69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논문에 그림 없음
70	울다	
71	웃다, 웃음	

72	일주일, 이레	
73	입다, 복장	
74	자매	
75	작다, 적다	
76	잘하다, 잘	
77	잠자다1, 수면, 숙박, 잠, 기숙사, 자다	
78	적다, 쓰다, 필기, 쓰기	
79	전화	
80	점심, 정오	
81	좌, 왼쪽	
82	지난 주	
83	청소하다	

84	청인	
85	학교	
86	학생	
87	할머니	
88	할아버지	
89	흰색, 백색, 백, 하양, 하얗다, 희다, 치아, 이	

3) 선택 빈도 백분율의 81.8%(9/11명)에 해당하는 어휘 : 65개

번호	한국어 표제어	수어 문자
1	~하지 마, 그만, 금지, 그만두다, 금하다, 말다	
2	가난하다, 가난, 곤궁, 궁핍, 빈곤	
3	가르치다, 가르침, 교육, 교수하다	
4	개, 강아지	
5	걱정하다, 근심, 상심, 시름, 염려, 우수, 괴롭다	
6	검사 (직업)	
7	결혼하다	
8	구청	
9	깨끗하다, 결백, 깔끔하다, 말끔하다, 산뜻하다, 소박하다, 순결, 순수, 정결, 청결	
10	나쁘다, 악, 못되다, 악하다	
11	나중, 결과, 결말, 마지막, 최종, 최후, 결국, 드디어, 마침내	

12	남편	
13	낳다, 태어나다, 나다, 분만, 생식, 출산, 출생, 탄생, 해산	
14	노래, 음악, 가요	
15	느리다, 지각, 지체, 늦다, 더디다, 천천하다, 서서히	
16	달다, 당분, 당	
17	대화, 대담	
18	도착하다, 닿다, 이르다, 도달	
19	뒤, 뒤쪽, 후방	
20	마치다	
21	말하다2	
22	맛없다	
23	맞다, 정말, 옳다, 사실, 진짜, 참, 정말로	

24	모두, 온통, 전부, 전체, 제반, 모든, 온, 다	
25	목적하다	
26	목수	
27	목욕하다	
28	무지개	
29	물론, 당연하다, 마땅하다, 응당하다	
30	바다	
31	배고프다, 시장하다, 출출하다, 고프다, 굶다	
32	버스	
33	벗다	
34	부탁하다, 당부, 요청, 청하다, 요구	
35	불, 화재, 불타다, 불길, 불꽃, 타다, 활활, 활활타다	

36	빨리, 곧, 이르다, 어서, 얼른, 일찍	
37	산	
38	색깔, 빛깔, 색, 색상	
39	손가락, 손가락으로 먹다	
40	쉬다, 휴가, 휴게, 휴식	
41	쉽다, 용이하다, 손쉽다	
42	스마트폰	
43	아내, 부인, 배우자, 처	
44	아들	
45	언제, 날짜, 날, 일자	
46	옷, 의복, 의상	
47	원하다/~고 싶다, 싶다, 바라다, 소원, 욕구, 원	

48	인사, 경례	
49	읽다, 읽기	
50	잊다, 망각, 잊어버리다	
51	자전거	
52	저녁	
53	젊다, 청춘	
54	좁다1 (공간이 좁다)	
55	준비하다, 장만, 채비, 마련, 차리다, 챙기다	
56	처음, 먼저, 우선	
57	출발하다1	
58	취미	
59	친구, 동무, 벗	

60	타다, 올라서다, 탑승	
61	파란색, 파랑, 청, 청색	
62	형제 관계 (누나, 언니, 오빠, 형, 남동생, 여동생, 남매, 형제, 자매)	논문에 그림 없음
63	혼자, 홀로, 스스로, 자기, 자체, 홀로, 자발, 자신	
64	화나다, 노여움, 노엽다, 노하다, 성나다, 성내다, 화내다	
65	후배, 하, 아래, 낮다	

4) 선택 빈도 백분율의 72.7%(8/11명)에 해당하는 어휘 : 94개

번호	한국어 표제어	수어 문자
1	(과일) 배	
2	(버스, 엘리베이터 등 탈 것에서) 내리다, 하차	
3	~번, 차례, 횟수, 번호	
4	1분	
5	1시간	
6	가끔, 간혹, 때때로, 이따금, 종종, 드문드문, 종종히	
7	가볍다	
8	가장, 제일, 일등, 으뜸, 제일, 최고, 가장, 맨, 수석	
9	감	
10	감자	
11	거짓, 허위	

12	결석하다	
13	계절	
14	고등학교	
15	그러나, 뒤엎다, 뒤집어엎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지만	
16	기분, 감정, 정서	
17	기차	
18	꽃, 꽃피다	
19	꿈꾸다, 꿈, 포부	
20	넓다	
21	녹색, 초록, 초록색	
22	놀다, 놀이	
23	다음, 그다음	

24	단체, 그룹, 모임, 부, 부분, 부서, 서클, 회, 팀, 동아리, 무리	
25	동물, 짐승	
26	돼지	
27	뒤쳐지다, 뒤떨어지다, 뒤지다	
28	드라마	
29	들리다	
30	딸기	
31	때, 경우, 시기, 시절	
32	뜨겁다, 화끈	
33	면접하다, 면접보다	
34	몇 시	
35	모이다, 합치다, 집합, 합, 모으다, 합하다	

36	무겁다, 부담, 부담감, 짐	
37	믿다, 신용, 믿음, 신뢰	
38	바꾸다, 고치다, 갈다, 교대, 교체, 변경, 변동	
39	발표하다, 광고, 표시, 표현, 나타내다, 드러내다	
40	방문하다	
41	방법, 요령, 방식	
42	배부르다	
43	병원	
44	부지런하다, 열심히, 성실하다, 근면, 꾸준하다	
45	비싸다	
46	사과	
47	사다, 구매, 구입, 쇼핑	

48	사용하다, 지출, 소비, 쓰다, 이용	
49	사진, 사진촬영, 카메라	
50	살다1, 지내다, 생활, 삶	
51	생일, 생신, 생일날	
52	서다, 일어서다, 기상, 일어나다, 독립	
53	선배, 상, 위, 상류	
54	손해, 결손, 손실	
55	수박	
56	시장, 가게, 상점, 장사	
57	싫어하다1, 거부, 거절, 난색	
58	싸다	
59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60	약속, 꼭, -야, 필수, 필시	
61	양궁	
62	어디서	
63	어떻게, 어찌	
64	여러분, 우리	
65	열다, 개방	
66	영화, 화상	
67	오전	
68	오토바이	
69	오후	
70	요즘, 요사이, 요새, 요즈음, 최근, 작금	
71	유치원	

72	의사	
73	일하다, 근로, 근무, 노동, 일, 작업	
74	자주, 반복, 수시로, 자꾸	
75	젓가락	
76	주사	
77	지금	
78	지하철	
79	진찰	
80	질문, 문의, 물음, 묻다, 물어보다, 여쭙다, 여쭙다, -바니까	
81	집들이	
82	찬성하다	
83	찾다	

84	친척	
85	친하다, 다정, 우정, 우애, 우의, 친목, 정답다, 친교	
86	테니스	
87	토끼	
88	필요하다, 소용	
89	하늘	
90	함께, 같이, 랑, 더불다, -끼리	
91	행복하다, 복	
92	환자	
93	후	
94	논문에 정보 없음	논문에 그림 없음

5) 선택 빈도 백분율의 63.6%(7/11명)에 해당하는 어휘 : 90개

번호	한국어 표제어	수어 문자
1	(불빛을) 켜다	
2	(빠르게) 달리다, 뛰다, 뛰기	
3	(초인종, 버튼 등을) 누르다	
4	~개월, ~달, 몇 개월	
5	TV	
6	가방	
7	강	
8	검사하다, 점검, 감사, 감시, 감찰, 검토, 수사, 사찰, 조사, 살펴보다, 살피다	
9	경찰	
10	고구마	
11	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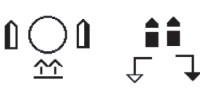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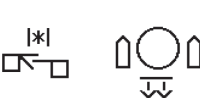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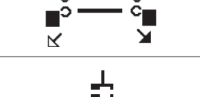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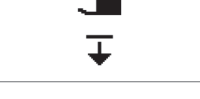
12	교통	
13	구름	
14	꿈이다, 데우다, 때다, 삶다	
15	날씨	
16	노란색, 황색	
17	농구	
18	눈뜨다	
19	다니다	
20	답답하다, 갑갑하다	
21	더럽다, 때, 불결, 지저분하다	
22	돌	
23	되다	

24	등록, 가입	
25	따라가다, 뒤따르다	
26	떠나다, 송별, 이별, 작별, 헤어지다	
27	라면	
28	맛보다	
29	매일	
30	머리감다	
31	못하다2, 잘못	
32	무섭다, 겁, 겁나다, 두려워하다, 두렵다	
33	물건	
34	밉다, 미움, 미워하다, 알밉다	
35	바나나	

36	바쁘다, 분주하다	
37	반찬	
38	방학	
39	별	
40	부럽다	
41	부자, 부유하다	
42	부터, 이래	
43	빨래하다, 빨다, 세탁	
44	살, 고기, 가족	
45	새벽	
46	소개하다, 통역하다, 매개, 변호	
47	슬프다, 슬픔, 슬퍼하다, 설움	

48	식당	
49	떨다	
50	아마, 아마도, ㄹ 것이다	
51	앉다, 지위	
52	야구	
53	약하다	
54	얼마, 몇, 개수	
55	여행	
56	영어	
57	요일	
58	우유	
59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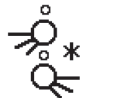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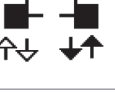
60	이탈리아	
61	이혼하다	
62	잃다, 잃어버리다, 분실	
63	입원	
64	잔치, 행사, 축하, 식, 파티	
65	조심하다, 지키다, 신중, 경계, 주의, 준수	
66	주문하다	
67	죽다, 사망, 별세, 서거, 돌아가다, 사거, 숨지다, 죽음, 임종	
68	중학교	
69	짜다	
70	참다, 견디다, 인내, 자제, 억제	
71	창피하다, 부끄럽다, 부끄러움, 수줍다,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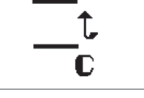
72	책상	
73	초등학교	
74	총장	
75	축구	
76	춤, 연극, 공연, 무용, 추다, 춤추다	
77	치마	
78	칭찬하다	
79	카드	
80	켜다, 켜지다, 전깃불	
81	택시	
82	토하다, 게우다, 구토	
83	틀리다, 그릇되다	

84	피곤하다, 피로	
85	필요없다, 소용없다, 쓸데없다, 쓸모없다	
86	한국	
87	할 수 있다	
88	항상, 날마다, 나날, 매번, 매일, 수시, 일상, 늘, 언제나	
89	해	
90	힘들다, 벅차다, 힘겹다	

6) 선택 빈도 백분율의 54.5%(6/11명)에 해당하는 어휘 : 74개

번호	한국어 표제어	수어 문자
1	(맛이) 쓰다	
2	(스위치, 밸브 등을 돌려) 켜다	
3	~적 있다	
4	간호사	
5	계단	
6	궁금하다	
7	굴	
8	기본, 근본, 기반, 기초, 바탕, 뿌리	
9	까다, 벗기다	
10	나라, 세계	
11	노력하다, 안간힘, 공들이다, 애쓰다, 힘쓰다	

12	놀라다, 경악, 깜짝	
13	늡다, 늡은이	
14	다치다, 상처, 상하다, 부상, 손상	
15	대학교	
16	대학생	
17	뜻, 까닭	
18	멋있다1, 멋지다, 멋	
19	며칠	
20	모습, 모양, 상태, 상황, 장면, 형태	
21	못하다1, 할 수 없다	
22	무	
23	미남	

24	미녀	
25	바꾸다, 대리, 대신, 대치, 대체, 전환, 바꾸다	
26	발	
27	배드민턴	
28	백일	
29	뱀	
30	법률, 법, 법규, 법칙	
31	보라색	
32	볼링	
33	부족하다, 모자라다, 결핍, 부족	
34	불다, 합격, 당첨	
35	사격	

36	사귀다, 교류, 교제, 사교	
37	살다2, 안녕, 생명	
38	새롭다, 신선하다	
39	선물	
40	송년회	
41	수영	
42	수학	
43	숙제, 과제	
44	순종하다, 복종, 순응	
45	시다	
46	시합, 경기	
47	신발	

48	심심하다	
49	안개	
50	안되다	
51	양 (동물)	
52	옥수수	
53	외롭다, 고독, 쓸쓸하다	
54	요리하다	
55	원숭이	
56	유도	
57	이기다, 승리, 낫다	
58	이동하다	
59	이사하다, 전출	

60	이야기, 강의, 설교	
61	전(~전에), 미리	
62	졸업, 수료	
63	중 (中)	
64	쥐	
65	지체되다	
66	커피	
67	탁구	
68	팔다, 판매	
69	포도	
70	하루, 온종일, 종일, 하루종일, 진종일, 진일	
71	학원	

72	해보다, 시도, 보이다	
73	호랑이	
74	호흡, 생명, 보험	

7) 선택 빈도 백분율의 45.5%(5/11명)에 해당하는 어휘 : 17개

번호	한국어 표제어	수어 문자
1	경쟁하다, 시험, 겨루다, 겨루기, 고사, 고시, 수험, 승부, 시합	
2	녹차	
3	다이어트	
4	때문, 바람, 탓, -니까	
5	바지	
6	불가능	
7	삼키다	
8	싫어하다2, 싫다	
9	아파트	
10	어기다	
11	유리, 거울	

12	용	
13	자연, 천연, 저절로	
14	지루하다, 싫증나다, 지겹다, 따분하다	
15	퇴원	
16	풀, 숲, 잔디	
17	확실하다, 분명하다, 정확, 명확하다, 틀림없다	

8) 선택 빈도 백분율의 36.4%(4/11명)에 해당하는 어휘 : 3개

번호	한국어 표제어	수어 문자
1	비다, 없다	
2	터널	
3	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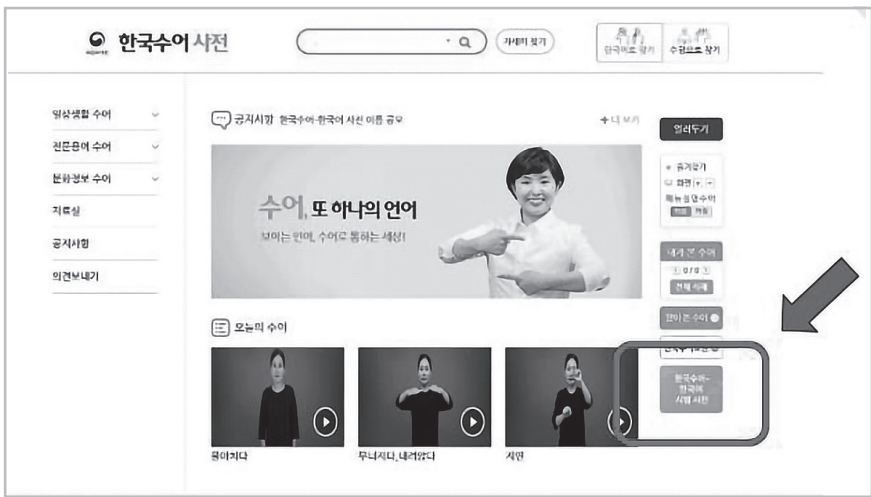
Chapter 4

수어시 적기

〈Chapter 4. 수어시 적기〉에서는 수어 단어가 아닌 문장을 적는 방법을 설명한다. 한국수어누리사전, 거북이의 귀환, 솜사탕 등

Chapter 4. 수어시 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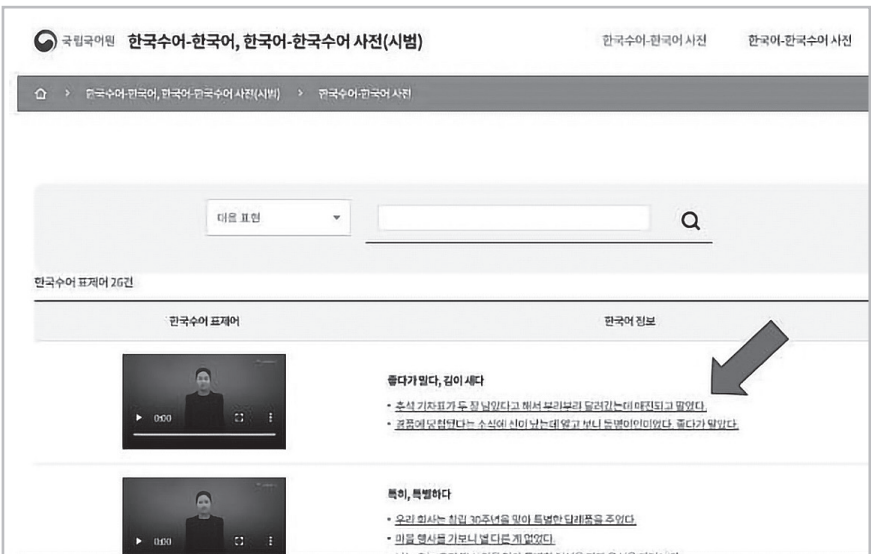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단어를 적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제는 문장을 적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문장이라고 다를 건 없어요. 문장 부호가 몇 가지 있고 비수지가 좀더 포함되어야 하겠죠.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 보면 문장을 수어 문자로 바꾼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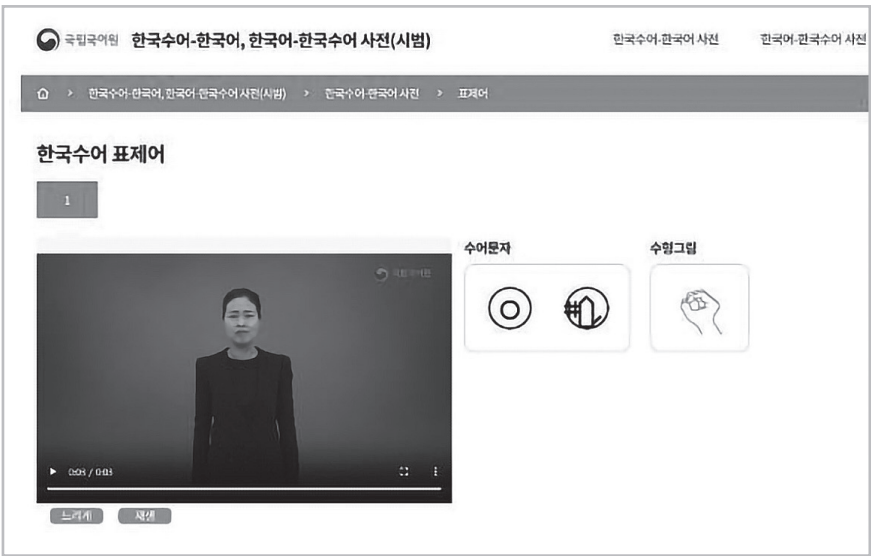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책을 구매해서 보고 있는 시점에는 홈페이지가 개편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어문자로 알고 싶은 문장을 선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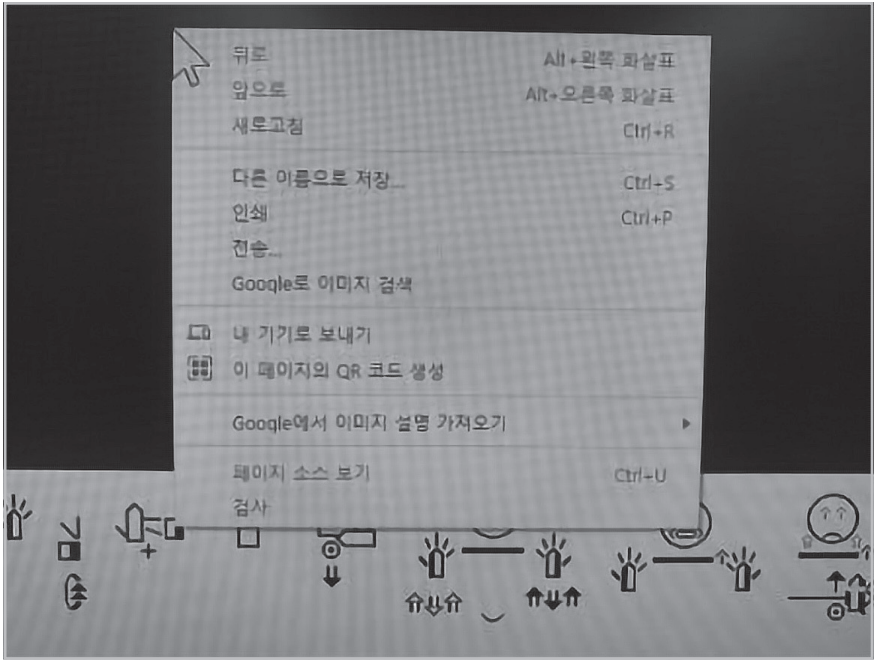
한국수어 표제어 하단 한국수어 용례를 확인합니다.



한국수어 용례 하단 수어문자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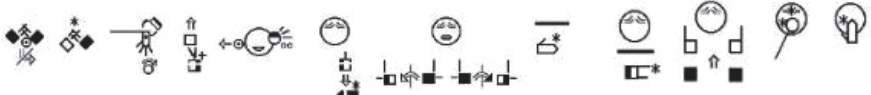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하거나, 우클릭 후 인쇄하거나 저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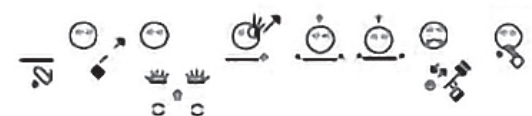
한국수어 표제어	한국어 정보
	좋다가 말이다, 김이 새다 - 추석 기차표가 두 장 남았다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매진되고 말았다. - 경품에 당첨됐다는 소식에 신이 났는데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었다. 좋다가 말았다.
	특히, 특별하다 - 우리 회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답례품을 주었다. - 마을 행사를 가보니 별 다른 게 없었다. - 나는 오늘 우리 딸 생일을 맞아 특별히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 냈다.
	아무 생각 없다, 별생각 없다,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다, 넌 놀다, 정신없이, 정신없다, 태평하다, 별 탈 없이, 태평하다, 망중한 - 바쁘게 일을 하다 잠시 쉬면서 커피를 마시며 망중한을 즐겼다. - 내가 별생각 없이 한 말에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알았다. - 나는 전하테평으로 회사에 다니다 보니 일 년이 훌쩍 지나갔다. - 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카드 결제일인 20일까지 입금하는 것을 놓쳐버렸다.



추석 기차표가 두 장 남았다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매진되고 말았다.



경품에 당첨됐다는 소식에 신이 났는데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었다. 좋다가 말았다.



마을 행사를 가보니 별 다른 게 없었다.



나는 오늘 우리 딸 생일을 맞아 특별히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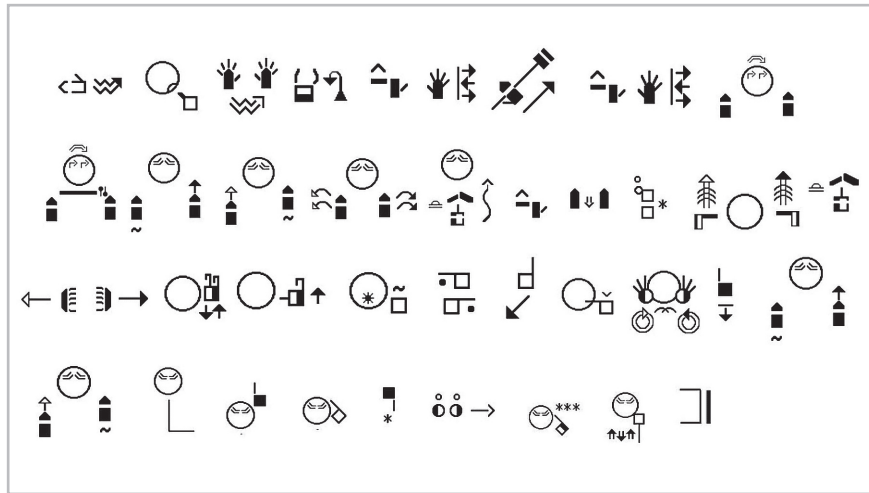
우리 회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답례품을 주었다.

이제 우리는 문장도 수어문자로 적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북이의 귀환

2022년 크리스마스였을 겁니다. 박민호 선생님과 함께 연말 수다를 나누었을 때 예전에 거북이를 방생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게 수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생한 거북이가 자라서 가족들과 함께 돌아와 왜 자기를 버렸냐고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https://youtu.be/MJXZDBTqGpw> <https://youtu.be/HQQGMY2zqL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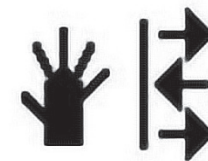
[바다] 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얼굴의 위치를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하고 두 기호를 분리시켜 잘 볼 수 있게 구분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얼굴 안에 표시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동작은 두 손을 펴고 제2평면에서 화살표처럼 움직입니다.



생산적 수어로 거북이를 강물에 띄우는 동작이고 [보내다] 동작입니다. 고깔 모양의 기호는 손가락을 펴는 동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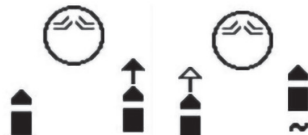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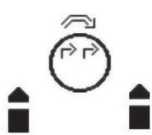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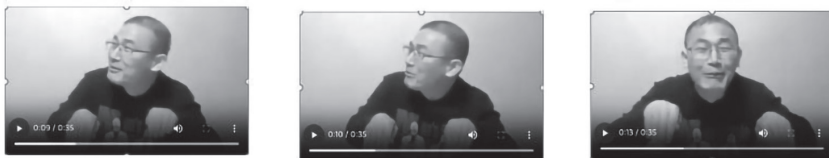


손 흔드는 동작입니다. 옆 세로 선은 손목을 기준으로 움직이라는 표시입니다. 선이 없으면 전체가 움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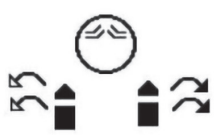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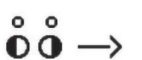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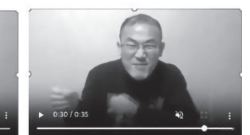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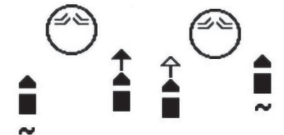
손 만을 표시하다가 팔이 필요한 경우 손에 선을 그어 팔을 표시해 줍니다.
[잘]이라는 수어 표현입니다.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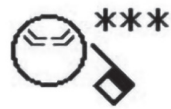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서 거북이가 걸어가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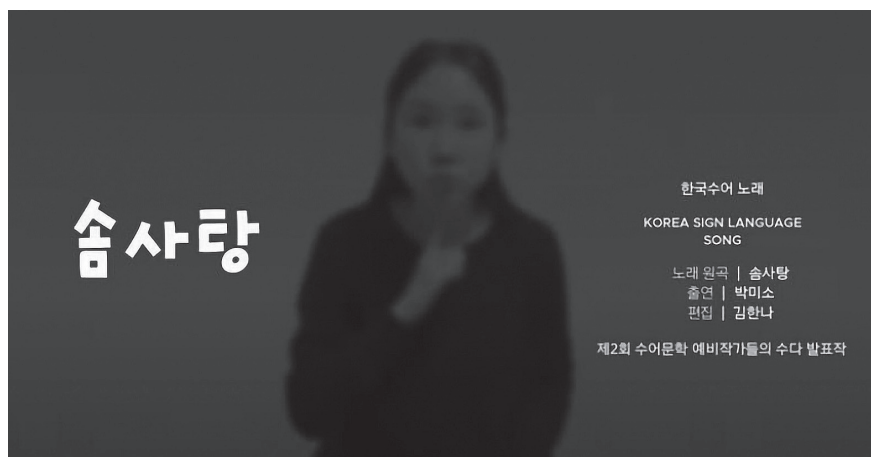
가운데 그림에서 거북이 표현에 사용된 표면 기호에 오류가 있네요!!





가끔은 문장 전체나 구 전체가 동일한 수어에 표시하거나(불필요한 중복) 문장이나 구를 괄호로 묶을 수 있어요. 첫번째 수어의 윗부분에 얼굴 표정을 넣어 주고 괄호를 열고 마지막 수어 뒤에 괄호를 닫아 끝맺으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수어민들레 솜사탕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수어 영상이 있어요.



솜사탕



나뭇가지에 실처럼 날아든 솜사탕

하얀 눈처럼 희고도 깨끗한 솜사탕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먹어 본 솜사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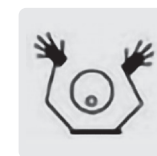
흑흑 불면은 구멍이 뚫리는 커다란 솜사탕



<나무> : 수형, 수동은 이미 배웠어요. 수형 위에 있는 갈매기 같은 표시는 무엇일까요? 양손 교대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한 기호들이구요. 하나씩 나올 때 마다 익히기 바랍니다. [경주] 수어를 보면 한쪽 사람이 앞서가다 다른 한 사람이 앞서가다 합니다. 이때 이 기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나무>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살표만으로 충분히 동작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나무> : 앞의 나무는 고정된 수어입니다. 그 다음 이 <나무>는 분류사라고 불리는 생산적 수어입니다. 나무인데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입모양은 불을 부풀린 모습입니다. 나무가 얇지 않고 두껍다는 것을 표현하는 비수지입니다. 비수지를 표현하는 기호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무> : 고정 수어, 생산적 수어, 생산적 수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뭇가지 모양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호에 추가하여 문자소를 넣는다면 강조하는 기호를 넣고 싶습니다. 힘을 줘서 표현하라는 기호.



<꺾다> : 손의 위치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슴과 팔까지 표시하여 주었습니다. 두 주먹을 붙이고 한 쪽 주먹을 움직입니다. 얼굴 표정은 이를 악물고 이마에 주름이 보입니다.



<뿔> : 비수지 기호로 나무를 꺾었다 그리고 하는 의미로 입에서 바람을 내뿜는 동작을 하였어요. 문법적인 비수지 기호는 반드시 표시해 주어야 해요. 하지만 비수지 기호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럼 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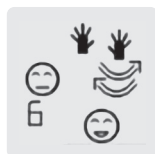
<실이 나오는 모습> : 나뭇가지에 솜사탕 실이 감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생산적 수어입니다.



<실이 쌓여가는 모습> : 복합 수동인 경우 두 개 동작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쌓이는 모습과 위로 이동하는 동작.



<솜사탕의 동그란 모습> : 왼손 손목의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문자를 적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눈> : 좀 더 현장감 있게 표현 했네요. 좌우로 흔들리면 내리는 눈입니다.



<눈> : 솜사탕 영상에서 가장 멋진 표현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눈이 내리는데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면서 마치 슬로우 모션을 보는 듯한 수어 표현이죠. 수어 문자에서는 느리게 기호를 사용합니다.



<눈> : 느리게 기호가 사라지면서 원래 속도로 돌아 옵니다.

나머지 부분의 수어문자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SWUG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Chapter 5

한글의 우수성과 수어문자

〈Chapter 5. 한글의 우수성과 수어문자〉에서는 한글과 수어문자의 공통점에 관해 설명한다. 수어문자가 배우기 쉬운 이유와 동시에 배우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Chapter 5. 한글의 우수성과 수어문자

수어문자는 자질적 음절자이다.
그래서 읽기 쉽고 쓰기 쉽다.

대학원에서 수어문자³⁾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수어문자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입니다. 수어문자를 처음 접했을 때는 수어를 그린 간단한 그림으로 인식했습니다.
수어 그린 간단 그림 수어문자 그린 그림

하지만 논문의 배경 지식을 익히기 위해 문자론에 관한 글을 읽다 보니 그 실체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5장의 첫 문장이 그것입니다. “수어문자는 자질적 음절자이다.”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위한 용어가 필요합니다. 하늘을 날아 다니는 이상한 비행 물체를 부르는 용어도 일찌감치 UFO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저에게 수어문자를 부르는 용어는 그저 수어 문자였습니다. 그것이 이전에도 존재하였는지 몇 가지나 있었는지 어떻게 누가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정의와 원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수어문자는 베일에 싸여 있는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상형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어를 그리는 상형문자. 충분히 타당성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은 수어문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수어문자는 수어를 적기 위한 문자로,
자질적 특성을 지닌 모아쓰기를 하는 음절문자이다.

수어문자의 두 가지 특성을 이해한다면 조금씩 그 베일이 벗겨지고 본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글에 대한 이야기 해 봅시다.

3) “수어문자”는 SignWriting을 뜻합니다. “수어 문자”는 일반적인 수어를 표기한 문자를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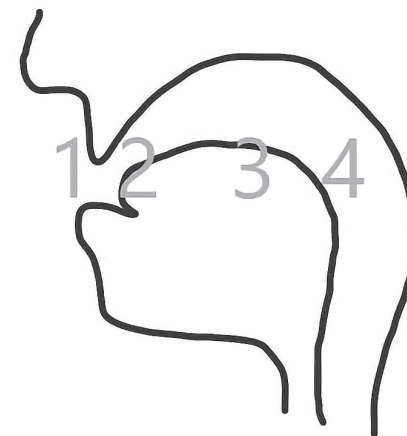
한글은 문자론적 관점에서 표기 단위와 자모 단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모 단위는 음운론의 자질에 대응되는 자질 단위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질 단위로 보면 자모 단위의 자음과 모음을 단자소로 다시 분해하여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글 표기 단위: 강, 산 → 음절자(syllabograph)
자모 단위: ㄱ, ㄷ, ㄹ, ㅁ, ㅂ, ㅅ → 자모자(letter)
자질 단위: ㄷ(ㄴ, ㅌ)/ㅈ(ㅊ, ㅉ)/ㅊ(ㅊ, ㅉ) → 기본자와 부가자

세종대왕이 1443년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반포는 3년뒤인 1446년이었지요.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한자를 차용하여 쓰고 있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음성 언어는 있었지만 그것을 적을 수 있는 문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어여빠여카어사” 크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글의 개수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모양도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한글의 만들새는 너무나도 멋집니다. 이제 그가 창안한 한글의 모습(게슈탈트)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의 핵심은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는 사람의 음성을 적기 위한 수단입니다. 음성 즉, 사람의 말은 입에서 나옵니다. 조음기관⁴⁾이라고 부릅니다. 입(구강구조)을 그려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훌륭함을 다시금 느끼시게 될 겁니다.



4) 음성언어의 조음기관은 얼굴에 위치하지만 시각언어인 수어의 조음기관은 좀 더 넓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예로 “빨리 빨리 와”라는 수어는 엉덩이를 세차게 두드립니다.

“가”라고 발음 해 보세요. 어디에서 소리가 시작되나요?
 “나”라고 발음 해 보세요. 어디에서 소리가 시작되나요?
 “다”라고 발음 해 보세요. 어디에서 소리가 시작되나요?
 분명, 입안 어딘가에서 소리가 날 겁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 보셨나요? 논문을 쓰면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세종 대왕의 서문 바로 다음에 예의⁵⁾가 나옵니다. ‘ㄱ’은 어금닛소리이며 군(君)자의 첫소리와 같다라고 나옵니다. 위의 그림에서 몇 번 위치일까요? 4번입니다.

ㅅ : 1 (읏소리)
 ㄴ : 2 (혓소리)
 ㄱ : 4 (어금닛소리)

그럼 ㄷ은 무슨 소리인가요? 3번 위치에서는 어떤 자음이 소리 나나요? 자세 한 것은 인터넷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그림은 단순화한 그림입니다. 중 요한 것은 입 안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를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도상성 있게 그림으로 나타내었고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문자도 비슷하다는 것 입니다. 영어에서 비슷하게 생긴 알파벳이 있습니다. b와 d가 비슷하고 p와 q 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b 소리와 d 소리는 다릅니다. 소리가 나는 위치가 다 립니다.⁶⁾

ㄴ과 ㄷ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ㄴ에 선 하나만 더 그었습니다. 소리도 같은 위 치에서 납니다. 이러한 특성의 문자를 자질 문자라고 부릅니다. 기본자가 존 재하고(ㄴ) 거기에 추가자(-)를 추가하여 새로운 글자(ㄷ)를 만들어 내는 방식 이 바로 자질적 문자의 특징입니다.

ㅅ, ㅈ : 1 (읏소리)
 ㄴ, ㄷ : 2 (혓소리)
 ㄱ, ㅋ : 4 (어금닛소리)

ㄴ과 ㄷ은 혓소리로 혀가 윗니 뒤에 붙었다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 책에서는 발음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안의 위치와 문자의 닮음** 을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한글 28자의 글 모양 및 소릿값 그리고 문장의 운용법에 대해 싣고 있습니다.
 6) b와 p는 소리가 나는 위치가 같습니다.

문자는 쓰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합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표기한 문 자의 모양이 유사하다면 소리와 문자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 관성을 통해 즉, 자질적 특성을 통해 문자를 배우기 쉽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다는 이야기는 해례본 정인지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이이십팔자이전환무궁) 簡而要(간이요)
 精而通(정이통) 故智者不終朝而會(고지자부종조이회)
 愚者可浹旬而學(우자가협순이학)
 “이렇게 28자가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한나절이면 익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안에 깨우칠 수 있다”

이제는 한글의 음절 문자 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적는 방식에서 알파벳과 여타 문자와 달리 모아쓰기를 합니다. ‘뽕’이라고 적을 때 초성, 중성, 종성 ㅂ ㅍ ㅁ으로 표기하지 않고 모아서 적습니다. 하나의 음절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아쓰기의 장점을 설명한 글에서 “한글 은 영어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정보가 더 많다. 이것도 모아쓰기의 장점이다. 우리 눈의 망막에 초점이 맺히는 곳에는 보통 6~10개의 글자가 들어온다. 따 라서 똑같은 글자 수가 눈에 들어올 경우, 한글을 읽을 때 영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 ‘한국인은 우수하다’(Koreans are excellent)란 문장을 예로 들 면 한글 문장은 전체가, 영어 문장은 Koreans만 한눈에 들어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글의 두 가지 특성을 설명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 문자에도 이 두 가지 특성이 공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질적 특성을 지닌 모아쓰기를 하는 음절 문자이다.

한글로 적을 수 있는 소리는 무궁무진합니다. 계속해서 정인지 서문에 있는 글입니다.

雖風聲鶴(수풍성학) 鷄鳴狗吠(계명구페) 皆可得而書矣(개가득이서의)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7) 음절은 화자와 청자가 한 문자로 생각하는 발화의 단위를 말합니다. 음소보다 크고 낱말(단어)보다 작습니다.
 음절은 자음과 모음 또는 단독 모음으로 구성됩니다.
 8) 한글에 대한 자부심의 근거를 알려주마! <KISTI의 과학향기> 제662호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금 알게 되면서 수어문자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배우기 쉽고 읽기 쉬운 이유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처럼 음절자로 한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기호, 어떤 수형도 그려낼 수 있는 다양한 표기들! 하지만 아직 수어문자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수어문자의 단자와 단자소, 자질소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수어문자가 한글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 예컨대 ‘강’, ‘산’은 각각 음절자가 되며 ‘강’은 ‘ㄱ ㅏ’로 분석되는 바, 그 각각은 자모자로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자질 문자라는 측면에서 자모자는 기본자와 부가자라는 자질소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ㄱ’은 기본자 ‘ㄴ’과 부가자 ‘-’(가로획)으로 분석된다. 정리하지만 음절자가 표기 단위가 되고 자모자가 단자소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자소 단위는 자질문자라는 측면에서 자질소 단위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자와 부가자는 자질소 단위가 된다.



[그림 1] 단자소 설명을 위한 수어문자 (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위 수어문자는 고개를 들고 입과 팔을 벌리고 있는 영문자 <Y> 자를 표현하고 있는 단자(graph)이다. 이는 하나의 음절자(syllabograph)이다. 여기에는 여러 개의 단자소(grapheme)가 포함되어 있다. 얼굴을 뜻하는 단자소와 고개를 드는 단자소, 입을 벌리는 단자소, 손 모양, 팔, 어깨를 표시하는 단자소가 그것이다. 그중에 손 모양을 보자. 손은 손가락 모두를 모아 편 손을 뜻한다. 손의 방향은 발화자 입장에서 손등과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늘을 향해 있다.

소리		형태		글자	
Phonetics	음성학	—	—	Graphetics	문자학
Phonology	음운론	Morphology	형태론	Graphology	문자론
Phone	음	Morph	형태	Graph	단자
Phoneme	음소	Morpheme	형태소	Grapheme	단자소
Allophone	변이음	Allomorph	변이형	Allograph	변이단자

<표 1> 단음, 단어, 단자 (출처: 배보은(2004), 문자의 자질에 대한 연구. 재구성)

편 손의 단자소는 ‘ㄷ’이 기본자 ‘ㄴ’과 부가자 ‘-’(가로획)으로 분석되는 것처럼 기본자(□)에 부가자(반은 흰색, 반은 검은색)를 추가하여 손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림 2] 자질소 설명을 위한 수어문자 (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좌측의 정사각형은 주먹을 꼭 쥐 수형을 뜻한다. 여기에 부가자(손가락)를 더해 새로운 단자소를 만든다. 새로 만들어진 단자소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단자가 되거나 다른 단자소와 함께 단자(음절자)를 구성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생각을 정리한 부분이다.

2.1 수어문자는 배우기 쉽다.

학습자 4: 처음 배울 때 저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2차시에 합류했어요. 기초적인 수형 설명은 배우지 못했어요. 책을 통해서 독학했어요. 처음에 따라가는데 헤매긴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림이 참 잘해 놓은 거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아주. 배우는데 아주 쉬웠던 거 같아요.

학습자 2: 일단 배우기는 쉬웠어요. 단지 입체적이어서 입체적인 것을 그려야 하니까 손가락을 그리고 머리카 형태를 봐야 하니까 일단 수어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만이 문자를 쓰기 편하다는 거... 제 생각에는 그래요. 3차원적이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뒤 평면이 아니라 입체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좋았어요.

학습자가 배우기 쉽다고 말한 것을 분석(analysis)의 층위와 해석(interpretation)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자.⁹⁾

9) Coulmas(2003 : 156-167)에서 한글을 분석하는데 분석의 층위와 해석의 층위로 구분하였다. ‘분석’은 배울 때를 염두에 둔 표현이고 ‘해석’은 읽을 때를 염두에 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다른 층위(different or independent level)가 된다. 그의 결론은, 한글은 배울 때는 자질적 특징 때문에(분석의 층위) 매우 쉽게 배우게 되고, 또 읽을 때는 음절적 단위로 모아쓴 결과 덕분에(해석의 층위) 매우 쉽게 읽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문자라는 것이다. 한글이 음소적이면서도 음절적으로 모아쓰는 특성이 있는 문자라는 점은 19세기 이래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

청인 학습자 4의 의미는 문자를 읽을 때 기초 수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상성이 강한 수어문자의 특성으로 인해 읽기 쉬웠다는 의미이다. 즉, 해석적인 층위에서 답변한 내용이다. 실제 수업에서도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편의점]이란 수어를 학습자들과 몇 분간의 논의 끝에 수어문자로 적을 수 있었다. 이는 간단한 규칙을 알고 있다면 쉽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석의 층위에서도 배우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보은(2013)은 문자언어는 음성언어와 달리 기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기록의 차원도 중요한 문자의 우열 조건이 될 수 있다. 쓰기 쉬운 문자란 글자의 모양과 연관된다. 자형이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당연히 쓰기도 쉬울 것이다. 학습자가 배우기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어문자의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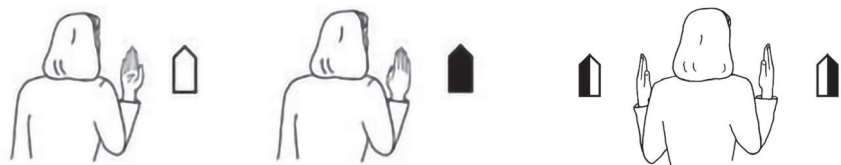
수어문자는 도상성이 강하다.

수어문자는 음절적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

수어문자는 자질적 특성이 있다.

수어문자에서 수형은 손의 모양을 본떠 그대로 만들었다. 스토키 표기법은 타자기로 표기할 수 있는 활자체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손바닥 모양을 알파벳 기호 'B'를 사용하였다. 한국수어 사용자는 미국 지화자 'B'의 수형을 이미 알고 있지 않다면 그 모양을 상상할 수 없고 이미 수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수어문자만큼 직관적이지 않다. 손의 모양을 그대로 적는 방식 면에서는 HamNoSys 표기법에 가깝다.

손바닥의 방향은 손 모양 기호의 내부를 채워서 표시한다. 내부가 비어 있다면 손바닥이 수화자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내부가 채워져 있다면 손등이 수화자를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분할 음영은 옆에서 손을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도상적 측면에서 보이는 대로 표기하는 매우 대표적인 방식이다.



[그림 3] 수어문자의 도상성(1) (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엄지를 편 모습의 손바닥을 표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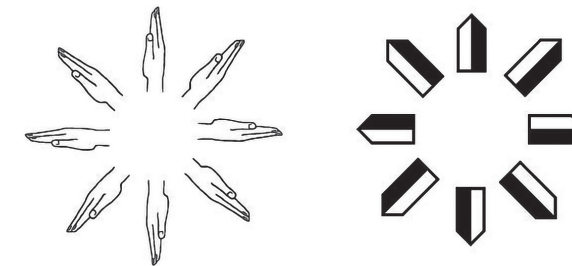
[그림 4] 수어문자의 도상성(2) (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엄지의 모양이 도상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손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손가락이 휘어 있거나 굽혀지거나 접혀있는 경우는 기호의 단순성을 위해 엄지의 모양을 통일하였다.



[그림 5] 수어문자의 도상성(3) (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기호의 단순성을 위해 손의 방향도 제약을 두었다. 수기로 적는 경우 무한정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 각 평면에 대해 여덟 개만 사용된다. 즉, 45°의 배수만 사용된다.



[그림 6] 수어문자의 방향 (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선행연구 중 문자론 용어 정리에서 한글의 특징을 살펴본 바 있다.

한글 표기 단위:강, 산	→ 음절자(syllabograph)
자모 단위:ㄱ, ㅋ, ㅇ, ㆁ, ㄷ, ㅌ	→ 자모자(letter)
자질 단위:ㄷ(ㄴ, ㅌ)/ㅈ(ㅊ, ㅉ)/ㅍ(ㅂ, ㅍ)	→ 기본자와 부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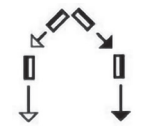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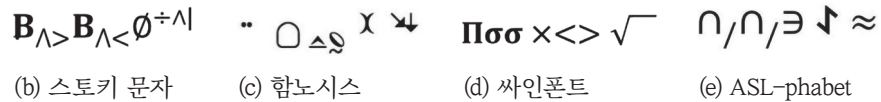
음절자 '강'은 자모자 'ㄱ', 'ㅋ', 'ㅇ'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강'자를 단자소 단위로 풀어 놓은 것이다. 한글은 다른 자모 문자와는 달리 자모자를 단

자소 단위가 아닌 표기 단위로 나타냄으로써, 즉 모아쓰기를 하기 때문에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배보은, 2013).

마찬가지로 단자소 단위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표기 단위로 나타냄으로써, 수어문자도 모아쓰기와 같은 특성이 있다. 다음은 미국 수어 [HOUSE]을 나타낸 각각의 문자 표기법이다.



(a) 미국 수어 [HOUSE]



(f) 싸인라이팅

[그림 7] 미국 수어 [HOUSE]의 수어 문자 표기법 (출처: Bianchini, Claudia S.(2020).)

위의 그림에서 (b), (c), (d), (e)는 수어의 단자소를 선형으로 나열하였다. 이는 마치 ‘강산’을 자모 단위 ㄱ, ㅏ, ㅗ, ㅓ, ㅕ, ㅛ으로 표기한 것과 같다. (f)는 모아쓰기를 한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림 8] 한국 수어 [할 수 있다]의 수어문자(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수어문자의 모아쓰기는 수어의 여러 형태소를 하나의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위의 심볼은 패[할 수 있다]의 수어문자이다. 총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수위를 나타내는 얼굴(○)과 손의 모양(☞)과 손의 동작(↑)

10) 모든 심볼이 동일한 요소들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과 비수지를 나타내는 눈썹 모양(ㄴㄴ)의 요소들이 표현되어 있다. 한국수어 문법에서 수형소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수어문자의 구성 요소를 수형소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수어문자의 수형은 수형소 측면에서는 수형과 수향을 포함하고 있다.

수어문자의 요소	수형	수위	수향	수동	비수지
손의 모양	○		○		
얼굴 모양		○			
움직임 모양				○	
비수지 기호					○

<표 2> 수어문자의 요소와 수어의 형태소 관계

수어문자는 수어를 적는 방법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글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이 없다면 초성과 중성만을 표기하는 것과 같이 수어문자는 수어의 다양한 형태소 중 필요한 요소만을 적는다.

2.2 수어문자는 배우기 어렵다.

학습자 4: 수동 기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전혀 유추가 안 될 거 같고. 근데 그거를 다른 걸로 뭘로 표현하자면.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하신 분도 고민해가지고 별 모양, 올챙이 모양 만드신 거 같은데 그런 건 좀 있어요. 봐서는 이게 그걸 표현한다. 기본을 좀 외워놓고 보면 쉽게 보일 텐데, 기본이 안 이뤄진 상태에서 보면은 감이 안 잡히죠. 저 별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학습자 2: 수화는 입체적이고 문자는 평면이잖아요. 입체적인 거를 수화로 그리는 것도 있지만, 그린 거를 수화로 입체화시켜야 하잖아요. 전환시키는게 나는 조금 느렸어요. 적은 거를 보고 수화를 3차원으로 하는 게 느렸어요. 저는 어려웠어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꾸는, 문자를 보고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입체화시키는 게 어려웠어요.

학습자 3: (수어문자를) 배울 때 일기를 한번 써 본 적이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실물을 수어문자로 적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림 그리는 자체가 기본적인 거를 알아야 하니까 수어를 모르면은 수어문자를 그리기 어려운 거 같아요.

학습자가 배우기 어렵다고 말한 것은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호학의 퍼스가 상징, 지시, 심볼을 규정하였던 글에서 문자는 사회적 규약으로 만들어진 심볼에 해당하기에 음성언어와 같이 수어문자도 마찬가지로 규약에 따라 읽고 적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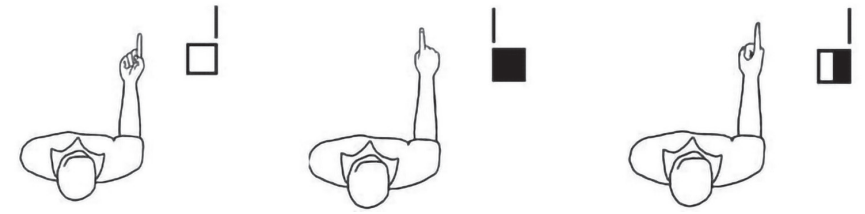
학습자 4의 답변은 심볼의 임의성에 대한 내용으로 Touch Symbol의 표기를 <*> 별 모양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학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심볼은 사회적 규약으로 처음 발레리 서튼이 만든 그대로 학습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심볼의 개수가 많다면 그만큼 학습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편 손 수형소 중에 손가락의 구부림 정도가 90°가 아닌 135°인 경우 수어문자 표현 시 다른 것들과 다른 예외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바닥의 방향을 기준으로 손바닥이 수직으로 세워져 있으면 수어문자의 손바닥 모양도 수직으로 세워 표기하는데 135° 꺾여 있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손바닥의 모양을 사선으로 표기하였다. 아래와 같이 활용하여 표기되는 (손 마디 분리) 경우 쉽게 읽어 내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



[그림 9] 특이한 수형의 단자소 (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학습자 2의 답변은 수형 심볼에 대한 내용으로 손가락의 모양이 복잡한 경우, 수어문자를 보고 바로 수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답한 것이다. 수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학습자에게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특히, 수형은 <표 2>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수어의 형태소 2가지, 즉 수형과 수향을 함께 표기한다.



[그림 10] 수어문자로 수향 중 수평 표기 (출처: 인터넷 <https://www.signwriting.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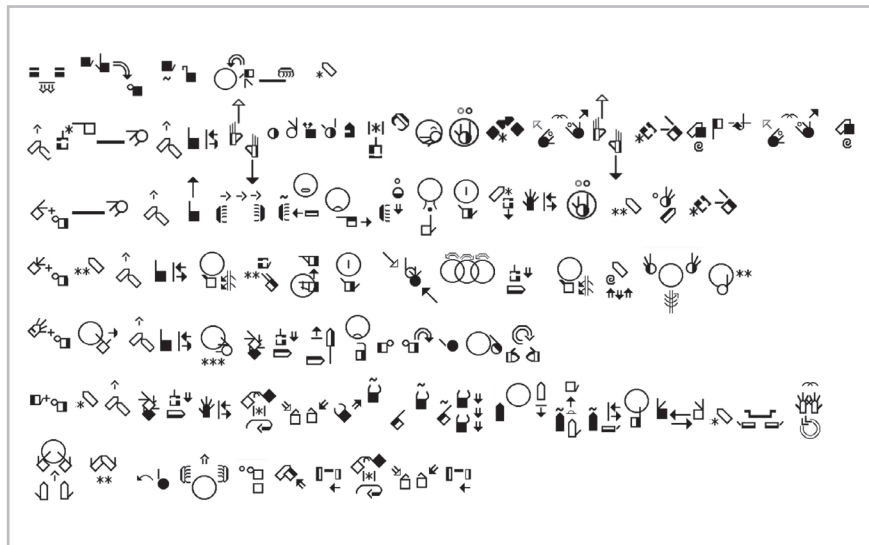
수어문자의 수형은 수형소 측면에서는 수형과 수향을 포함하고 있다.

수형과 수향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동시에 표현하여 모아쓰기가 가능해졌고 수지 및 비수지 정보를 모두 표기하고 수지 정보는 실제 손 모양과 동일한 형태로 적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림 5] 도상성 (3)을 보면 손바닥과 손가락의 모양은 동일하나 실제 수어를 표현해 보면 손바닥의 방향에 의해 손가락의 모양은 문자와 다른 형태로 ‘보여’ 진다. 손가락의 모양은 문자와 동일하지만 실제로 손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이것과 관련하여 학습 시간에 주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1: 모양은 입체잖아요. 입체. 요렇게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어쨌든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제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입체파. 피카소 그림이 이렇다매요. 정면에서도 보고, 옆면에서도 보고 다양하게 2D에다가 3D를 집어넣은 그런 거라고 옛날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이 2D에다가, 종이에다가 3차원의 그림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이런 정보를 같이 넣는 거죠. 애는 옆에서 보는 모습이잖아요. 입체파가 그리는데 그림처럼 정면도랑 평면도(측면도)가 한꺼번에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그림 하나에 넣으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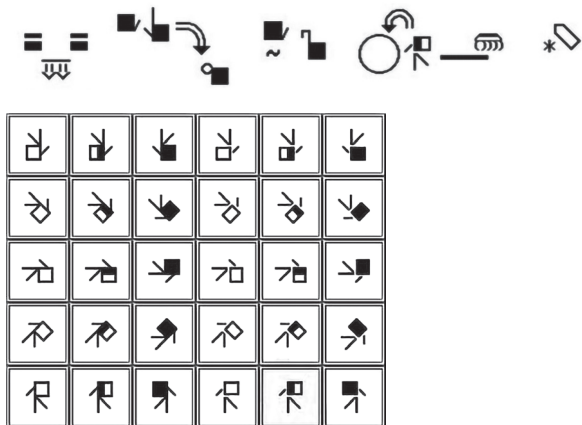
각 단자소의 조합 즉, 왼손인지 오른손인지(2),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반반인지 (3), 수직인지 수평인지 (2), 손끝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8)에 따라 하나의 수형이 결정된다.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하면 총 96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한다.

농인 학습자 수업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소보사 게시판에 있는 회의록 영상을 수어문자로 적어 보았다.



[그림 11] 회의록 영상 수어문자 예시

위 내용 중 첫 문장에 나와 있는 <안녕하세요 5월 10일 회의록 영상을 제가 남기기로 했어요>라는 문장에서 <나를 촬영하다>를 수어문자로 변환할 때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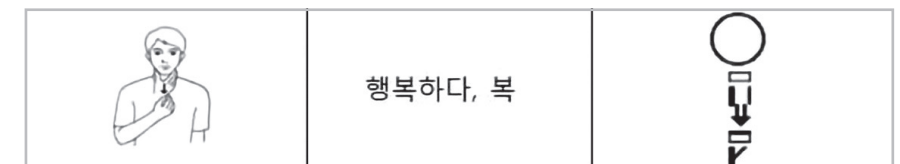
[그림 12] 수어문자 <나를 촬영하다>

비안치니의 말처럼 즉흥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불행하게도, 읽기는 쓰기의 용이성과 함께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길고 힘든 과정이며 명확한 철자 규칙이 없는 경우 텍스트의 올바른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 환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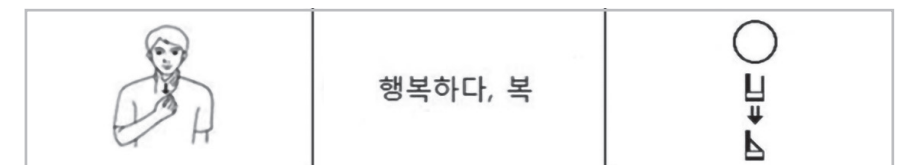
아동은 SW를 사용하여 교사가 생성한 텍스트를 숙고할 수 있지만 SW를 사용하여 스스로 글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교사는 텍스트 제작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지만 수업 중에 SW로 텍스트를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SW는 학문적 글쓰기 체계에서 요구되는 기능의 일부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학교에서 SW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독성을 향상하기 위해 수어문자를 적을 때 가능한 읽기 쉬운 단자소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수어를 수어문자로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그림 13] 수어문자 <행복1>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적을 수도 있다.



[그림 14] 수어문자 <행복2>

<행복1>보다는 <행복2>가 독자들이 읽기 쉽다. 똑같은 수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을 수 있다. 결국, 문자는 독자가 존재하므로 쉬운 글쓰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적는 방법을 연구하여 교재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뽀 (<- break) [감]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뱉는 소리¹¹⁾

위의 단어 뽀를 백이라고 적어도 이 단어를 이미 알고 있으면 문맥에 따라 뽀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아는 경우 이해할 수 있다.

11) 국립국어연구원 2003년 신어 학예연구원 박용찬 발행등록번호 2003-1-25, 36쪽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수어를 수어문자로 적을 경우 가능한 가독성이 높은 수형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아직 서로에게 가독성이 높은 수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인지는 향후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볼 문제다. 수어문자의 특정수형이 보편적일수록 분별하기 쉬운 수어문자가 될 것이다. 또한, 수형의 선택뿐만 아니라 발레리 서튼은 수어문자 매뉴얼에서 수어문자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가르쳐 주고 있다.

“수어문자를 쓰기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수어에 접촉 위치가 있습니까? 손이 서로 접촉하고 있습니까? 손이 얼굴에 닿나요. 아니면 몸 에 닿나요? 기호의 중심”이 되는 접촉 위치를 먼저 작성하십시오. 점점 위치를 작성할 때 두 개의 점점 기호를 가능한 한 가깝게 배치하십시오. 실제 모습처럼 보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두 개의 점점 기호 사이에는 공간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수어문자는 작은 우주처럼 점점 위치를 중심에 두고 그 주위에 나머지 수어문자를 배치합니다. 점점의 위치가 수어와 움직임 표시의 중심이며 점점 기호는 중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점점의 위치는 기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눈을 읽을 때 접촉 위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점점의 위치는 글을 읽는 한 개 단위가 됩니다. 점점 위치를 작성하면 너비와 높이가 더 작은 기호가 생성되어 세로 열의 쓰기가 더 중앙에 있고 압축되어 열 자체가 덜 넓어집니다. 점점 위치를 작성하면 기호의 시각적 그림이 제공됩니다. 두 손이 밀착되어 닿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일 Touch Contact Star는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터치 콘택트 스타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어문자 작성을 단순화합니다.

Double Touch Contact Stars는 Double Touch 또는 Touch-Touch가 위치가 아니라 움직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기록됩니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단일 터치 콘택트 스타뿐입니다.”

보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정서법을 설명한 이 글의 내용은 앞서 모아쓰기의 장점을 설명했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 눈의 망막에 맺히는 단어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에 중요 기호를 배치하여 글쓰기를 권장하고 있다. 독자가 수어문자를 읽을 때 한눈에 들어오도록 표기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수어문자 학습 교재 개발 시에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수어 문자는 다른 언어의 알파벳처럼 기호¹²⁾라는 점이다. 기호는 학습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기호는 그림이 아니고 서로 간의 약속일 뿐이다.

한글은 자음이 19개, 모음이 21개, 받침으로 쓰이는 글자가 27개이다.

초성+중성 음절 수 : $19 * 21 = 399$

초성+중성+종성 음절 수 : $19 * 21 * 27 = 10,773$

한글의 음절 수는 두 가지를 합한 11,172이다.

수어문자의 음절 수는 단자소의 배치에 따라 거의 무제한이다.

그럼, 수형의 단자소는 몇 개일까. 하나의 수형으로 만들 수 있는 단자소는 96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한 수형이 현재는 261개가 있다. 뿔은 하나의 음절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글자를 평생 몇 번이나 사용할까. 많은 수형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형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수화언어의 수형소 빈도 연구의 분석 대상 KSL 단어 수는 모두 9,557개였으며, 우세손과 비우세손을 포함한 전체 수형은 27,675개였다. 수어 단어는 하나의 수형으로만 구성된 한 손 수어부터 두 손의 서로 다른 수형으로 구성된 수어도 있으며, 한 수어 안에서도 수형이 변하는 경우도 있으며 두 개 이상의 수어가 결합한 복합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출현한 수형의 수가 많았다. 한 수어의 평균 수형 수는 약 2.9개였다.

우세손과 비우세손 전체를 포함한 수형 중에서 고빈도 수형은 9형(6,438), 1형(2,561), 주먹형(2,511), 지정형(1,879), 편손형(1,539), 5형(1,538), 부리형(920), 10형(918), 전화형(733), 6형(776) 순이었다. 우세손과 비우세손 전체를 포함한 수형 중에서 저빈도 수형은 N형, 3형붙임형, 8형검지굽힘형이 오직 한 수어에서만 발견되었으며, 3형검지굽힘형, ㅌ형, 4형검지굽힘형, 매춘부형, 8형굽힘형, 9형검지굽힘형이 두 수어에서만 발견되었다. 저빈도 수형은 주로 숫자 표현에서만 사용되는 지숫자형이나 영문알파벳형, 신조어에서 사용되는 수형이었다(최상배, 2012).

수어문자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수어를 모두 적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어서 수어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수형이 다양하다. 이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학습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하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일반 언어생활에

12) 여기서 기호가 뜻하는 것은 퍼스가 말한 3가지 기호 중 심볼을 의미한다.

서 언중은 문자로 적을 수 있는 모든 문자를 모두 사용하지는 않는다. 만일 사용한다고 해도 간략한 모습의 문자를 선호한다. 수어문자에서도 평이한 형태의 수어문자를 택하여 사용한다.

수어문자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수어문자의 수형은 ISWA2010 기준으로 24,464이지만 기초단어 486개를 수어문자로 변환한 부록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빈도수가 높은 수형은 기본자를 사용한 수어문자가 대부분이었다. 수어의 구성 비율이 무표 수형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상배의 연구 결과대로라면 9형, 1형, 주먹형, 지정형, 편손형, 5형, 부리형, 10형, 전화형, 6형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만일 수어문자 교재를 개발한다면 이를 감안하여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교수한다면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15] 빈도수 높은 수형

수어문자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변별력이 없는 수형소는 학습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표적인 수형소만을 선택하여 학습시키면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이다. 반면, 수어문자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수어만의 독특한 수형소는 수어문자 조어 규칙에 따라 손으로 그릴 수 있지만 컴퓨터를 활용하여 표기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슷한 수형을 임시로 활용하거나 ISWA를 개정해야 한다.

2.3 수어문자는 메타언어인지를 향상한다.

학습자 2: 수화학습에... 글썄, 수화는 일단 입체적이잖아요. 사람이 보여 주는 손가락이잖아요. 근데 애는 일단은 자세하게 형태를 만들어 주기는 해요. 내 자세를 잡아 주기는 해요. 아 이렇게 한다고 손가락이나 형태가 어떻게 해야간다는지 턱에 간다는지 이걸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주는 그런 좋은 점은 있어요. <중략> 좀 더 효율적이었던 거 같아요. 형태를 봐서는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호가 붙어서 아 이 기호는 돌리라는지 튕기라는지 아니면 이런 붙으라는지 이런 게

있어 좋았던 거 같아요. 올챙이라든지 올챙이가 없으면 가라든지 붙이라든지 모르잖아요. 쓸어내리라든지 모르는데 그게 있으니까 아 맞아 이 형태를 잡아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흑돌, 백돌, 꺾쇠 10개 손가락을 다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 손가락 중에 어디를 굽히려든지 그거는 영상을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데 문자는 알려주잖아요. 어디를 굽히세요, 튕기세요! 라고 알려주니까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학습자 4: 교육원에서 수업할 때 모르는 단어를 학습할 때 그 단어를 적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손가락을 손 모양을 글로 적었었는데 지금은 수화 모양을 비슷하게 그려놔요. 싸인라이팅으로 그려놔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정확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동작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낙서 식으로다가 막 해 놔요. 수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지요. 배울 때 수어문자를 알고 있으면 저처럼 손 모양을 그릴 때 활용하면 간단하게 그려지니까.

수어를 L2로 학습하는 청인 학습자 입장에서 수어의 각 형태소를 적을 수 있는 도구로서 수어문자를 활용하여 수어 학습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학습자 2: 수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입장에서 수어를 배우고 수어문자를 통해서 문법을 배우면 수월하죠. 왜냐하면 수어를 배울 때 이 수어는 맨 뒤에 무조건 써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실상 배울 때 부정문만 빼놓고 안되라든지 강한 부정문은 맨 끝에 쓰라는 말 외에는 누군가 문법적으로 어떤 단어는 중간에 꼭 써야 한다 이 단어는 꼭 끝에 들어가야 한나라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부정문을 꼭 써야 한다든지 시제는 시제대로 가야 한다는 갈켜준 사람은 배우면서 사실상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배우면서 문법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 단어는 끝에 가는 거구나 문자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해 준다면 아 그렇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 되게 쉬울 거 같아요.

학습자 3: 수어를 검색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수어문자를 보면 글 읽듯이 우리가 독서하듯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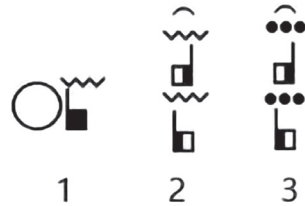
단어나 문장뿐만 아니라 음운론 학습에도 도움을 받았던 연구자 본인의 경험을 적어 본다.

[내일]이라는 수어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변이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3번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처음 수어를 배울 때는 1번으로 배웠던 기억이 난다. 어쩌면 1번이나 2번에서 3번으로, 다시 4번으로 수어 표현 습관이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림 16] 수어문자 [내일]

마찬가지로, [매일]이라는 수어도 가능한 움직임이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수어 습관이 바뀌는 것은 아닐지 생각한다.



[그림 17] 수어문자 [매일]

본 연구자가 수어를 적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 학습에서 위와 같이 단어들을 ‘적게’ 되었고 비로소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 각 변이형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변이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쩌면 다양한 생산적 수어에서 변이형을 거쳐 고정된 수어로 특정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다. 고정된 수어를 적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동작과 연구자가 사용하는 수어와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변이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수어문자로 적어 보니 확실히 그 차이점이 보였고 그동안 수어를 배우고 난 뒤 각 변이형에 대해 무심코 지나쳤던 학습 습관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하지만, 학습자가 주로 사용하는 변이형을 고집함으로써 비사용 변이형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했고 수어문자 학습으로 인해 다양한 변이형의 변별력이 높아져 학습 능률이 향상될 것이라는 가설이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 변이형 연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역 한국어 [아니꼽다]의 지역방언처럼 한국수어 [김치]의 지역 변이형을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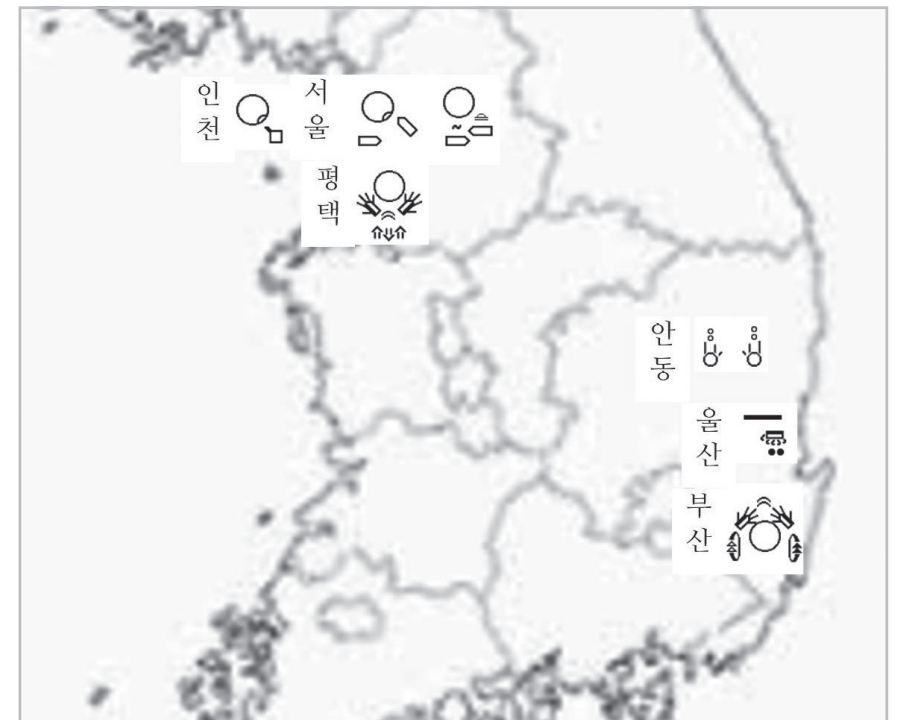
>아니꼽다

: [형용사] 하는 말이나 행동이 눈에 거슬려 불쾌하다.

- 평안도: 애시겁다
- 평안북도: 야시꼽다, 야시겁다
- 중국 길림성: 안꼽다
- 중국 요령성: 야시꼽다
- 중국 흑룡강성: 아이꼽다
- 함경남도: 아이꼽다, 양이꼽다,...
- 함경북도: 안꼽다
- 전라남도: 띠꼽다
- 충청남도: 내꼽다
- 강원도: 아니꼽다
- 경상도: 아히꼽다, 애이꼽다,...
- 제주도: 아니꼽상스럽다
- 경상남도: 이니꼽다
- 경상북도: 아이꼽다, 애꼽다

<https://wordrow.kr/사투리/409117/아니꼽다/>

[그림 18] [아니꼽다] 지역방언 (출처: 인터넷 <https://wordrow.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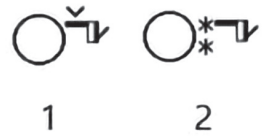
[그림 19] 수어 [김치] 지역방언 (출처: 연구자가 직접 적음)

“자신의 언어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 청각 장애 학생들은 스페인어 문법을 성공적으로 배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¹³⁾

위의 글은 니카라과 수어 핸드북 제3판에 나와 있는 글의 일부이다. 수어 문법을 배운 학생들이 스페인어 문법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내용인데 수어문법을 배우기 위해 핸드북에서는 수어문자를 사진과 병기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문법 용어도 책 말미에 소개하고 있다.

농인 학습자들과의 수업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수어문자 예시를 보고 청인은 (이미 정해진) 수어를 보고 따라 하며 수어를 복습하는 데 집중하였는데 농인은 수형의 차이에 대해 원어민으로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어와 달라 틀렸다고 이의제기하였다.

[한국] 수어의 수어문자 예시 1번을 보고 청인들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와 다른 새로운 수동의 동작을 익혀 학습하는 반면, 농인들은 2번으로 사용하여야 올바른 수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림 20] [한국] 수어문자 예시

수어문자에서 찾아낸 올바른 수어 사용 권장에서부터 시작된 연구자의 생각은 메타언어인지 향상에까지 연결되었고 실제로 니카라과 수어 핸드북에는 각종 수어 문법 용어들을 소개하고 있었다.

학습자 11: 아예 그 한국수어 자체를 늦게 배워서 모국어가 늦으니까, 한국어를 훨씬 늦게 배웠거든요. 그 친구는 한국수어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한글을 배우는 순서니까. 한글 문자 자체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소보사 교육 방향 자체가 한글 위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어를 배우고 나머지 일반 교과를 배우려면 일부러 한국어 문장에 노출(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게 보통 문장대로 설명해서 풀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때 이거를

13) 니카라과 수어 핸드북(p117)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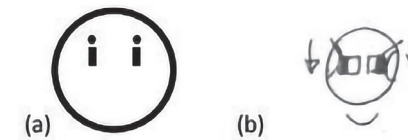
(수어문자) 한번 적용해 봤대요. 그러니까 효과 있는 거 같다고 금방 아이가 잘 본다고... 한글을 기억하고... 그 용어 개념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어휘를 기억해야 하는데 수어는 기록이 안 되고 글자는 기록이 되지만 글자는 나랑 너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아이가 새로운 개념을 외우는 게 어려웠었는데 수어문자로 그대로 한글 개념을 수어로 바꿔서 얘기한 그 수어를 수어문자로 옮긴 거죠.

연구자: 어떻게 했나요? 아직 (수어문자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습자 11: 했는데 알아보더라고요

연구자: 아 보는 거는 쉽거든요.

해당 학생이 수어 문자를 배우지 않았는데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수어문자가 읽기 쉽기 때문이다. 여기서 읽기 쉽다는 것은 ‘레지빌리티(legibility)’와 ‘리더빌리티(readability)’ 중 레지빌리티를 뜻한다. 어떤 수어를 표현했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1] 이탈리아 [보다] 수어문자 예시 (출처: Bianchini, Claudia S.(2020).)

비안치니의 글에서도 메타언어인지 향상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위 그림은 농인 참가자가 창안한 수어문자로 상대방을 주시한다는 새로운 수어문자이다. 이는 수어 문법을 이해하고 단어로 표현한 사례인 것이다.

2.4 수어문자는 변화하고 있다.

농학생 수업 8차시에 한 학생의 질문으로 제기된 수형의 일관성 부재에 관한 문제는 창안자와의 이메일 답변으로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알지 못한 또 다른 규칙은 없는지 살피던 중에 이탈리아의 비안치니

14) 샌드라 에른스트(Sandra B. Ernst, 1977)에 따르면 ‘레지빌리티’는 개개의 글자 형태를 식별하고 인지하는 것이며, ‘리더빌리티’는 보고 지각하는 과정(Scan and Perceiving Process)의 성공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레지빌리티는 판독성, 리더빌리티는 가독성이라고 정의했다.

논문 중에 이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인용한다.
1974년 발레리 서튼이 고안해 낸 이래로 싸인라이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다. 그의 논문은 1995년(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한 때)에서 2010년(싸인라이팅의 최신 공식 버전을 발표한 때)까지의 기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6가지의 버전이 발표되었다.

버전	명칭	비고
1	SSS1995	
2	SSS1999	
3	SSS2002	
4	IMWA2004	
5	ISWA2008	
6	ISWA2010	

<표 3> 수어문자 버전 (출처: Bianchini, Claudia S. and Fabrizio Borgia (2012).)

1. 버전별 기호의 명칭 변화

버전	기호	고유번호 코드
SSS1995	➤	s182-0-0
SSS1999	➤	s204-1-1-1
SSS2002	➤	09-01-001-01-01-01
IMWA2004	➤	08-01-001-01-01-02
ISWA2008	➤	05-01-001-01-02-01
ISWA2010	➤	03-01-001-01-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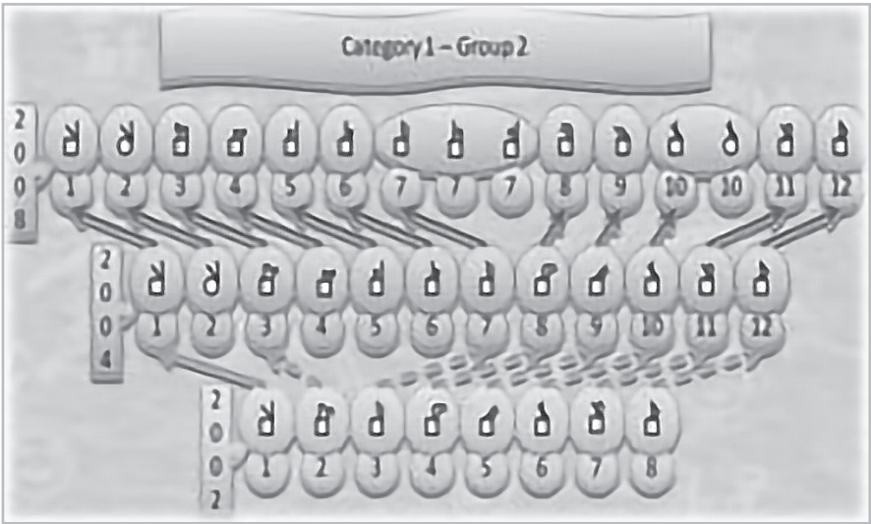
<표 4> 수어문자 버전별 기호의 명칭
(출처: Bianchini, Claudia S. and Fabrizio Borgia (2012).)

1995와 1999 버전에서는 UNC(Unique Numerical Code, 고유번호 코드)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2년부터 고유번호 코드는 6개 숫자로 구성된다. 처음 두 숫자는 기호의 타입을 식별한다. (CAT, GR) 다음 두 숫자는 기본 심볼과 변이형을 식별하며(BSy, VAR), 마지막 두 숫자는 기울어짐을 식별한다. (FILL, ROT)

01	-	01	-	001	-	01	-	01	-	01
CATEGORY		GROUP		BASE SYMBOL		VARIATION		FILL		ROTATION
(CAT)		(GR)		(BSY)		(VAR)		(FILL)		(ROT)

[그림 22] 고유번호코드(UNC) (출처: Bianchini, Claudia S. and Fabrizio Borgia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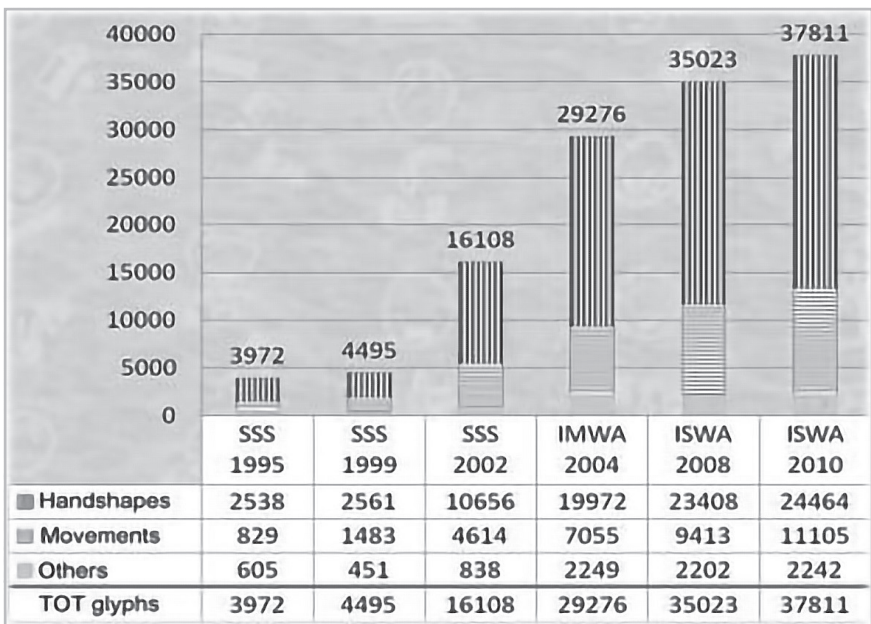
2. 새로운 기호의 추가



[그림 23] 새로운 기호의 추가 (출처: Bianchini, Claudia S. and Fabrizio Borgia (2012).)

고유번호 코드의 형식만이 변경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버전마다 발레리 서튼은 새로운 기호를 추가하였고 그것들을 분류하기 위한 방식을 새로 고안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고유번호 코드의 순서에도 조정이 필요하였다. 그녀는 각각의 경우마다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림 23]를 보면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8개의 새로운 기본 수형이 추가되었다. 2002년 2번과 3번 사이에 3개의 기본 수형이 추가되었다. 기본 수형의 번호가 3칸 밀리게 된다. 손가락의 접힌 모습에 따라 통일성을 유지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2004년에서 2008년으로의 변화에서는 7번과 8번 사이에 2개의 수형이 추가되지만, BSY07의 VAR02와 VAR03의 번호로 추가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컨버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하지만 이는 구분 원칙을 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3. 기호의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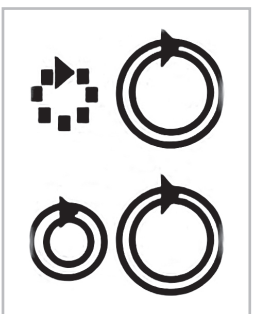


[그림 24] 기호의 수 변화 추이 (출처: Bianchini, Claudia S. and Fabrizio Borgia (2012).)

[그림 24]을 보면 기호의 수는 버전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5년에서 2010년 사이에 거의 10배가 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수형과 움직임을 표시하는 기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발레리 서튼은 좌측과 우측 손을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에서 각각 다르게 표기하기로 했다. 또한 4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180° 표현에서 8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360°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한가지 수형이 24개에서 96개로 증가하여 수형이 급격히 4배 증가하였다. 수형의 개수는 1995년에 2,538개에서 1999년 2,561개, 2002년 10,656개, 2004년 19,972개, 2008년 23,408개, 2010년 24,464개로 증가하였다.

4. 기호의 모양 변화

기호의 개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고유번호 코드의 모양도 변경되어 더욱 일관성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수직 원형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호가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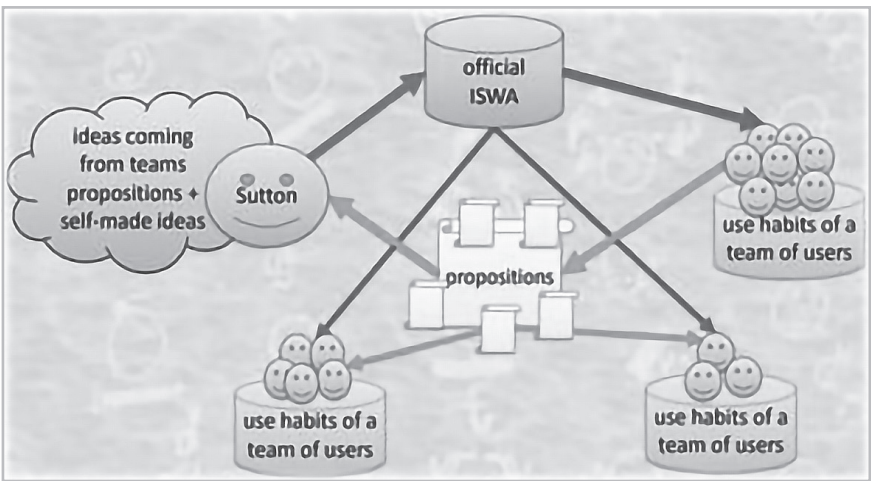


[그림 25] 수직 원형 움직임 기호

(출처: Bianchini, Claudia S. and Fabrizio Borgia (2012).)

1995년 버전에서는 수직 원형 움직임을 [그림 24]의 상단 좌측 기호로 사용하였다. 2004년에는 움직임 범위에 따라 [그림 24]의 상단 두 개의 기호를 사용하여 작은 범위에서는 좌측 기호를 큰 범위에서는 우측 기호를 사용했다. 큰 범위 기호는 다른 움직임 기호와 일치되는 방식이지만 작은 범위 기호는 두 줄 사용 규칙에 위배되어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ISWA2008에서는 [그림 24]의 하단에 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전부 통일화된 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5. 기호의 업그레이드 과정



[그림 26] 기호의 업그레이드 과정

(출처: Bianchini, Claudia S. and Fabrizio Borgia (2012).)

공식 버전의 업그레이드 과정은 하향식의 표준화와 함께 사용자 커뮤니티로부터의 참여가 변혁에 있어서 촉진자로 역할을 하였다. 발레리 서튼은 웹사이트나 메일링 리스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사용자 요구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자형(ad hoc glyph)을 수용하였다. 위로부터의 수정과 아래로부터의 변혁이 통합되어 서튼이 예상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까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으로 수정돼 왔다.

나라별로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교재가 나와 있지 않다. 다른 나라의 교재를 활용하여 수어문자를 배우다 보니 교재 선택에 따라 일부 기호의 사용이 서튼의 생각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는 위의 임시 글자의 문자와는 다르게 동일한 기호의 생각 차이로 인한 오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인 교재를 활용하여 교수하는 상황이다 보니 표면 심볼에 대한 규약을 스페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 만일 모든 학습자가 통일된 교재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타 국가 교재와 혼용한다면 한국수어 문자표기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 결과를 적은 조선왕조실록(세종실록)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해석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적혀 있다. 훈민정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질 문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어문자도 동일하다.

15) 비수지 기호, 입을 벌리지 않고 입술 사이로 혀를 내미는 동작의 기호는 노르웨이 수어의 영향으로 2006년도에 추가되었다.

16) 두 줄 표면 기호(≡)의 의미가 스페인 교재에서는 위쪽에 위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발레리 서튼의 문서에는 앞쪽에 위치하도록 설명되어 있다.



한국수어를 배우신 분들은 위 그림을 보면

어느 나라인지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각 기호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대충 감으로 일본이 아닐까 하실 겁니다.

수어문자는 읽기 쉽습니다. 또한 배우기 쉽습니다.

한글과 수어문자

지은이 김종태
발행인 최병희
편집 박희선
디자인 박희선

초판발행 2025년 7월 5일
출판등록 2025년 3월 18일 제 2025-0000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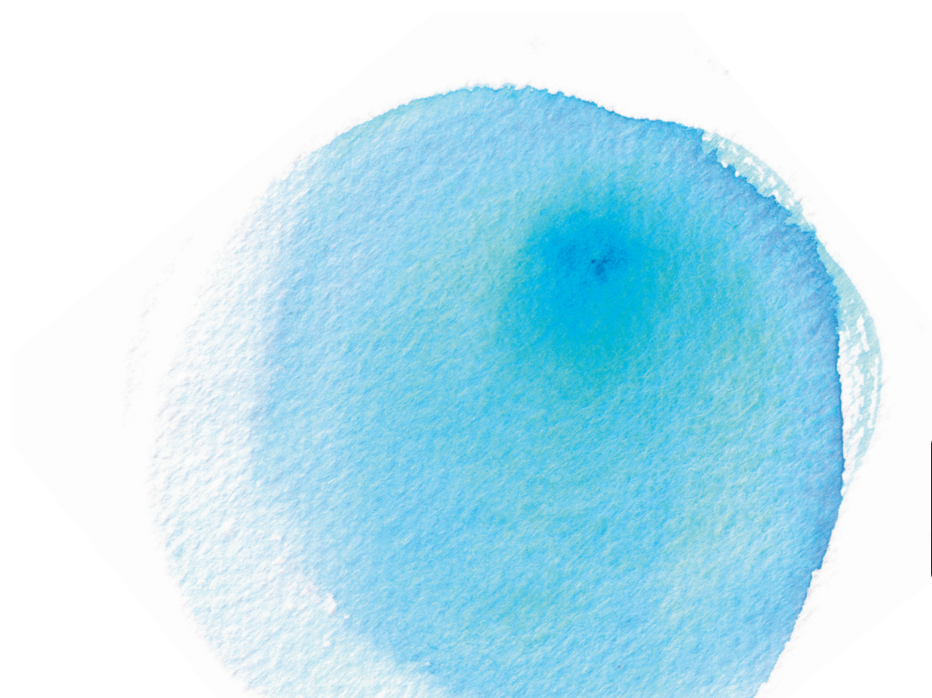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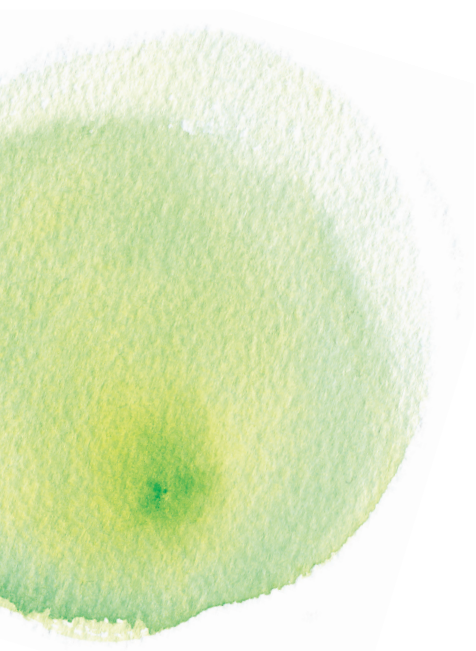
펴낸곳 도서출판 봄이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31, 311동 1403호
010-4538-2859
홈페이지 www.bomida.org
이메일 bomida2507@naver.com

ISBN 979-11-993137-1-2

©봄이다 2025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도서출판 봄이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파본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값 18,000원
03710



9 791199 313712
ISBN 979-11-993137-1-2